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칼을 갈 때는 숫돌을 쓰고
재목을 다룰 때는 도끼를 쓰고
자신을 다룰 때는 지혜를 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2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9호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韓·中 사드 갈등 '불교교류'가 푼다

사드 배치 논란, 불교계 영향 없나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한 · 중 양국은 불교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사드 갈등 국면으로 인한 악영향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한국불교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중국불교와의 교류를 통해 화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당면한 교류사업은 매년 열리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이다. 한국 참가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중국과 일본불교 측과 오는 3월 22~24일 제주도에서 제2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를 연다.

하지만, 중국불교 측은 제주 롯데호텔에서의 투숙을 거부한 상황이다. 지정된 호텔에서 회의와 숙박을 함께하는 것은 관례였다.

종단협은 중국 불교계가 회의를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종단협 관계자는 "중국불교 측에서 롯데호텔에서 묵긴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인근 호텔을 소개했다"며 "한 · 중 갈등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대회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로 인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생과 화해를 위한 한 · 중 불교교류는 계속된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한 · 중불교교류는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선묵 혜자, 이하 108산사순례회)가 오는 5월 21일부터 25일 중국 저장성 일대에서 진행하는 '설두사 성지순례 및 평화의불 봉안' 행사다. 108산사순례회는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불'을 DMZ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 지역에 분등해오고 있다.

이번 중국성지순례에서는 영보 설두사를 비롯해 주산 보타낙가산, 상해 옥불사, 항주 영은사, 한산사 등 순례가 진행된다. 특히 22일 설두사에서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설두사 측과 양국 경색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맺는다.

선묵 혜자 스님은 "사드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관계개선과 우호증진, 평화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중국 순례에 나서게 됐다"며 "각 나라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종교의 근본 목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도 3월 17일 중국 북경에서 중화전국청소년연합회 소속 국제청년교류센터와 청소년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맺어지는 협약은 2010년 7월 진행된 1차 업무협약의 기간 종료에 따른 연장 협약으로 파라미타와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 측은 청소년 교류의 장을 매년 한차례씩 가져왔다. 한 · 중 갈등 국면에서 협약 연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청소년 교류는 이어가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에 따라 2차 업무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中불교, 롯데호텔 거부해
예비회의 예정대로 진행

어려워도 불교 교류 '꾸준'
108산사회, 5월 中설두사서
평화의 불 봉안, 화해 '물꼬'
파라미타 · 中청년교류센터
3월 17일 청소년 교류 협약

파라미타 회장 심산 스님은 "이번 협약에는 20년 넘게 꾸준히 중국 측과 신뢰를 쌓아온 상인 스님의 역할이 컸다"며 "교류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불교가 한 · 중 정치관계를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양국 신뢰를 위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 · 중 · 일 불교의 황금유대가 동북아시아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 불교는 한국부터 중국, 일본까지 아우르는 문화적 기호이자 삶의 방식이었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에서 불교적 세계관이 다른 사상보다 양국이 직면한 공통 문제를 타파할 수 있다. 한 · 중 · 일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화코드로서 불교 교류를 지속 활용하고 개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헌재 결정 승복… 국민 통합 이끌어야"

불교계, 평화적 민심 수습 당부 · 호소 잇달아

불교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 수용하고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아닌 '평화 르네상스'의 시작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3월 9일 '광장에 핀 평화의 꽃, 국민이 함께 지켜냅시다!'란 제하의 호소문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 마땅함을 밝히며,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화쟁위는 "탄핵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듯하다. 건강한 사회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그 방식은 지극히 평화로워야한다. 나와 다른 견해를 존중하면서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상대편 의견도 경청할 수 있다면 탄핵심판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그간 지켜온 평화 집회문화를 이어갈 것을 당부하며 "이번 탄핵심판 후 광장에 분출될 민심이 대립과 갈등의 아픈 상처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 평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새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앞서 3월 6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도 대변인 주경 스님(기획실장) 명의로 '국민화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헌재 판결을 존중해 국민화합으로 국가를 조속히 안정시켜야한다고 호소했다.

조계종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헌재 판결에 승복해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화합을 이뤄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튼튼한 안보와 외교전략 속에서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고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태고종도 3월 7일 헌재 판결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히고, 향후 사회통합과 국민 안녕의 일념으로 갈등과 대립 해소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박아름 기자



불심으로 다시 뛰자 화합의 대한민국

탄핵 정국과 한중 갈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혼란스러웠던 3월 9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서울 조계사에는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도량등이 걸렸다. 형형색색 연등으로 꾸민 글귀에는 공업중생으로서 우리 시대 아픔을 함께 치유해 가자는 불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조계사 측은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론을 하나로 하자는 의미"라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한데 뭉쳐 몸도 마음도 다시 뛰자"고 취지를 설명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갈등 극복 해법 찾을 '금강포럼' 발족

천태종 3월 5일 관문사서… 초대 이사장 춘광 스님

천태종이 현 사회에 만연하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해법인 사회적 소통 확산을 위해 '금강포럼'을 발족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금강포럼(이사장 춘광 · 천태종 총무원장)은 3월 5일 서울 관문사 2층 대강의실서 '금강포럼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사장 춘광 스님을 비롯해 상임대표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 김종규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포럼 발기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족한 금강포럼 이사장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이, 상임대표에는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각각 추대됐다. 또한 공동대표는 우선 박시현 前 천태종 중앙청년회장을 선임했고, 추후 회의를 통해 나머지 대표를 임명키로 했다.

발대식에서 이사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번 새롭게 발을 디딜 금강포럼은 앞으로 천태종의 성성한 종풍을 더욱 확산해 시대 변화를 바르게 향도하고,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청정수를 부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금강정책 연구소, 전국 16개 시 · 도 및 전국 시 · 군 · 구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인 금강포럼은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경험을 통해 소통과 대화, 협상 및 참여 주체가 되도록 리더 발굴과 지원, 종단의 인재양성 및 조직화 추진에 진력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취재부 수습기자	0명	① 수습기자: 2017년 2월 졸업자 이상 ②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7년 3월 24일(금)까지
2.접수방법 :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 02-2004-8204)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6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9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 정법의 원류 책 내용 일부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

정법의 원류

〈정법의 원류〉는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이다. 정맥선원은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가 주재하는 도량이다. 〈정법의 원류〉를 통해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정맥을 이은 법과 지도방편을 만날 수 있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조계종 중앙종회 키워드 ☑ 멸빈자사면 ☑ 원로추천 ☑ 은퇴출가

[미리보기] 제208회 임시회 3월 27일 개원

사면-부칙으로 1회 한정
원로-9인 임기만료 앞둬
은퇴-51~65세 행자 1년

올해 조계종 최대의 화두인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 등을 다룰 제208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3월 27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제10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08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다. 임시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원해 3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의안과 종책질의 접수 마감은 각각 20일과 22일까지다.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이번 임시회서는 멸빈자 사면과 관련된 종헌개정안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멸빈자 사면 조치를 당부한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에 따라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가 종헌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종헌종법특위는 부칙에서 종헌 제128조(사면 · 경감) 단서조항(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을 1회에 한해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부터 2016년까지 멸빈 징계를 받은 자 중 출가독신자로 승려생활을 하는 자다. 사면 · 경감 이후에는 5년간 종헌종법상 선출직 · 직임직 · 품임직 · 선임직 · 위촉직 등 일체 종무직 취임을 제한하고, 각급 선거 및 산중총회 등서 선거권 및 선출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단 화합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개인 비위가 아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멸빈된 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징계 내용을 비롯해 수행자로서의 삶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멸빈자 대사면이 가능키 위해서는 이번 종회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은 종단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중앙종회 개원일 오후 진제 스님의 종정 추대식이 예정돼 있어 평소보다 많은 중앙종회의원이 임시회에 출석할 전망이다.

원로의원 9인 임기 만료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 외에 원로회의 9인의 임기만료에 따른 의원 추천의 건도 주요 사안 중 하나다. 오는 4월 26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의원은 원로의장 밀운 부림 대종사를 비롯해 원명 지종 · 금성 명선 · 불심 도문 · 천호 월서 · 송암 혜승 · 연암 현해 · 은암 고우 · 도연 법흥 대종사다. 현행 종헌에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원로의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족수 문제가 발생한다.

원로의원 추천은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원로의원이 없는 교구본사인 마곡사 · 수덕사 · 은해사 · 불국사 · 쌍계사 · 금산사 · 대흥사 · 선운사 등 8곳에서 우선적으로 추천해야 한다. 회의서는 교구별로 내부 협의를 거쳐 각 1인의 원로의원 후보만을 추천하도록 해당 중앙종회의원에게 당부하기로 했다. 원로의원 추천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어 종회의원 5인 이상의 추천과 동의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음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은퇴출가자 법계 '견덕'까지

오랜 기간 논의해온 은퇴출가특별법 제정안은 은퇴출가자에게 이전보다 한 층 높아진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는 은퇴출가자의 연령제한을 51~65세로 수정했다. 이전까지는 55~70세로 추진했지만 현행 일반출가 연령이 50세 이하인 관계로 55세까지 틈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70세에 출가하는 것은 나이가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은퇴출가자는 강원 등 기본교육이 면제되므로 3년의 행자생활을 부여했으나 출가연령에 비해 길다는 지적에 따라 1년으로 수정키로 했다.

초안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전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법계 품수를 가능케 한 점이다. 법계는 수행자의 수행력을 공인받는 것이기도 하고, 좌차 또한 부여되기에 은퇴출가자의 지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계는 견덕(비구니 계덕, 4급 승가고시 합격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과 말사주지 임명은 제한된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구족계 수지 후 5년이 지나면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임시회서는 사찰법 개정안 ·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등의 종법 제개정과 초 · 재심호계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 인사 관련 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불기2560(2016)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 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와 지난 회기서 이월된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경 관련 종헌종법 제개정안도 논의된다. **윤호섭 기자**

익명 기부자, 동국대 또다시 기부 '감동'

8년 만에 찾아 2억 원 쾌척

익명의 불자가 동국대에 2억 원을 또다시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최근 중년 여성이 평생 아껴 모은 재산 2억 원을 동국대에 쾌척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최근 동국대 발전기금 모금 담당부서인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을 찾아 기부의사를 밝혔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이 기부자는 "기부는 세상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선행"이라며 "동국대가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서 우리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욱이 면담 중에 이 불자가 2009년에도 3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무주상보시'를 한 지 8년 만에 또 찾아와 거금을 쾌척한 것이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 기부자는 평생 독실한 불자로 전국 주요 사찰과 집에서 신행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자는 "다만 너무 오랜만에 기부를 하게 돼 죄송할 따름"이라며 "다시 돈을 모아 기부하기 위해 이 봉투를 가져가겠다"고 봉투를 다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 감동을 줬다. 이어 "돈을 모아 언젠가 다시 기부할 것이다. 오히려 복을 짓게 해줘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성민 기자**

"간선제, 계파정치로 귀결" "승랍 5년 이상 선거권을"


대은 스님


김경호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공청회 열려

오는 7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태고종이 직선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 의지가 높아 불교계 최초로 수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종단이 될 수도 있단 점에서 주목된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3월 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6대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와 원로회의 의원, 지방교구 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기조발표와 함께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대은 스님과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대중토론에서는 원로의원 스님 10여 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스님들이 직선제 도입을 찬성했지만 일부 스님들은 선거관리 투명성 강화 등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도산 스님은 기조발표에서 "태고종에는 3800여 스님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설사암에 있어 종단 상황에 관심이 부족하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종도들의 지지를 통한 총무원장의 권위와 대표성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스님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면 종단이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대은 스님과 김경호 이사장은 직선제 도입으로 간선제의 계파정치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대은 스님은 "입산 기간이 짧은 종도들의 경우 수행이력상 선거권을 부여하기 어려운 만큼 5년 이상 종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집행부, 직선제안 일부 공개
지역별 투표 후 중앙서 개표
3월 중앙종회에 개정안 제출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간선제로 인한 폐해를 집중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조계종의 서의현 스님 3선 사태는 간선제에서 대중들의 의사가 종단운영에 반영되지 못한 극명한 경우"라며 "당시 직선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원로 스님, 본사 등 기득권층에서 반대했고, 결국 현재 계파정치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조계종에서도 현재 직선제 추진에 대해 일부 스님들이 비불교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 자자포살처럼 모든 대중이 평등하게 결정권을 갖는 직선제야말로 불교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의 직선제안도 일부 공개됐다. 도산 스님은 "후보들이 공약, 기조 등을 공약집으로 내면 종단 홈페이지를 활용해 종도들에게 알리는 방안이 있다. 지난 선거 당시 진행한 지역별 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투표는 한자리에 모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아 서울, 충청, 영남 등 5개 광역에서 나눠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지역별 개표 시 선거불복 및 부정시비가 일 수 있어 모두 중앙에 모은 뒤 개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선거인단 자격 유무, 공정성 시비, 후보자 검증 등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은 이날 공청회 여론을 수렴해 3월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왼쪽)와 최종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양해각서에 서명 후 환한 미소로 기념촬영 하는 모습.

본지, 경제취약계층 지원 MOU

조계종복지재단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협조

본지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경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 공동사업에 착수한다.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박종수)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3월 8일 '경제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본지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불교계 최초로 수행 중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이 사업을 기사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경제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고자 한다.

이날 박종수 현대불교 대표이사는 "경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최종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4년 간 실시해 온 사업이지만 현대불교와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지원 성공사례 소개를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단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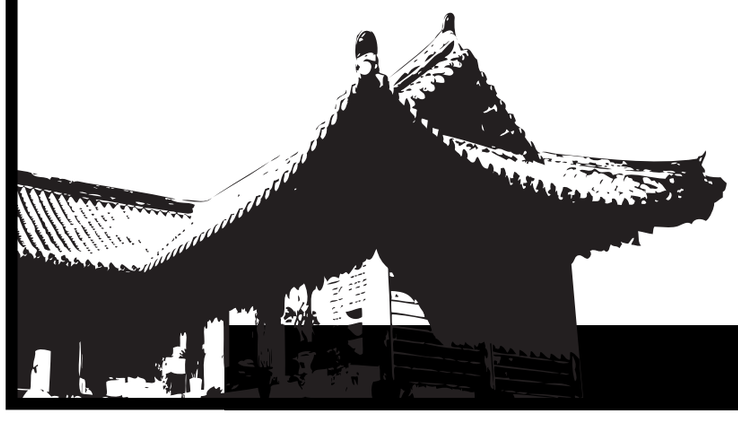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조계종 문화재청

사전 협의체 구성… 정책 소통 나선다

나선화 청장, 3월 6일 자승 스님 사과 방문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 으로 불거진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문화재청이 사과와 재발방지, 사전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며 이뤄진 것이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벌어진 갈등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나 청장은 "한국 문화재 중 70%가량이 불교 문화재이고, 이 안에 담긴 정신이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가치를 가진다"면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함께 협의해 관리한다면 앞서 발생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 자리에서도 나 청장은 "불교계를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체인 '불교문화유산 정책협의회' 구성 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해 실시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 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이 연구용역은 사찰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해당 사찰과 조계종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관련 기사 본지 1131, 1132호〉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문제 사실을 인지한 후 문화재청 항의방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재청의 행정 절차를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문화재청장의 사과 방문과 사전협의체 구성은 조계종의 꾸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이뤄진 결과물이다. 특히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전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협약 통해 협의회 첫 구성해
양 기관 실무진 회의 정례화
제도화 통해 '不通행정' 방지
"실효성있는 성보 정책 기대"

협약에 따라 구성된 '불교문화유산 정책협의회' 는 양 기관의 추진하는 문화재 행정의 소통과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유산 관련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 조계종과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단과 문화재청에서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협의체 구성은 유지돼 일관적인 정책 수립도 용이해졌다.

'불교문화유산 정책협의회' 는 조계종 측에서 문화국장이 협의단장으로 차 · 팀장급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정책국장이 협의단장으로 과장 · 사무관급 각각 4~5명이 참여한다. 협의회가 논의하게 되는 분야는 불교문화재의 보존 · 수리 · 도난 · 방재 · 활용 · 홍보 등이다. 협의회 회의는 2, 5, 8, 11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장의 사과방문과 '불교문화유산 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조계종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이번 협의회 구성은 후임 청장 등이 부임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 정례화했으며, 종단과 정부가 합리적 협력을 통해 문화재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데도 의미가 크다"면서 "협의회는 종단과 문화재청의 실무자들이 불교문화재 현안을 논의 · 협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나 청장의 예방에는 총무원 사서실장 심경 스님, 문화부장 정현 스님, 문화국장 용주 스님,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박한규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유산 정책협의회 협약 주요 내용

구 성 원	조계종 : 문화국장(단장), 차 · 팀장(회원) 4~5명 문화재청 : 정책국장(단장), 과장 · 사무관(회원) 4~5명
논의 분야	불교문화재 보존 · 수리 · 도난 · 방재 · 활용 · 홍보
회의 시기	2, 5, 8, 11월 분기별로 정례화

부루나 후예들, '설법제일' 자웅 겨룬다

조계종 교육원, 6월 1일 제1회 학인 설법대회

조계종 학인 스님들이 '설법제일' 의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1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기본교육기관 학인 스님들의 설법 능력을 겨루는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 를 개최한다.

학인 설법대회는 설법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설법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을 높여 학인들의 전법포교 역량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파악해 참신한 설법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부터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필수 과목으로 '설법과 토론' 교과목을 신설했다.

학인 설법대회는 참가자 1인이 8분 이내로 준비해온 설법을 시연해 스피치 능력과 불법 전달 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법 주제의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내용으로 설법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는 각종 소품 또는 기자재(파워포인트 등)를 활용하거나 보조 참여자의 조력을 받아 설법 무대를 구성할 수 있다.

대회는 오전 예선과 오후 본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에서 심사점수가 높은 12명의 스님이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 심사에 따라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본선 심사에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심사위원단 외에 청중평가단(스님 및 재가자)을 구성해 현장투표방식의 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설법 대회 참여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본선대회는 모든 대중이 참여 관람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3월 9일 대선주자인 이재명(왼쪽) · 안희정 후보를 각각 만나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탄핵심판 앞서 대선주자 조계종 예방

자승 스님, 3월 9일 이재명 · 안희정에 국민화합 당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조계종을 예방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월 9일 각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예방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이 시장은 올해 조계종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에 공감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기조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국가안팎의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예방했다"고 인사했다. 자승 스님은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월간 〈불광〉, 문체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불교계 잡지 월간 〈불광〉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월간 〈불광〉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콘텐츠잡지 108종 중 유일한 종교계 잡지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기사(콘텐츠) 내용과 편집 디자인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시사경제교양 △여성생활정보 △스포츠취미레저 △문화예술종교 △과학기술 △산업농수축산 △교육학습 △지역 등 8개 분야서 총 108종을 선정했다. 현재 국내엔 약 4,000종 잡지가 발행되고 있다.

이번 우수콘텐츠잡지 선정으로 월간 〈불광〉은 문체부 명의의 2017 우수콘텐츠잡지 선정증 및 로고를 사용하며, 문화소외지역 및 관련 시설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정원 스님 유고집 〈일체 민중이~〉 발간

추모사업회 준비위 발간… 행장 · 유언 · 일기 등 수록

"사랑하오. 민중이 승리하길, 촛불이 기필코 승리하기를 바라오"란 유언을 남기고 소신공양 한 정원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유고집이 발간됐다.

정원 스님 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는 3월 7일 정원 스님 유고집 〈일체 민중이 행복한 그날까지〉를 발간했다.

유고집엔 정원 스님의 행장과 생전 스님이 SNS에 남긴 글, 일기, 저서 〈새벽으로 가는 길〉서 발췌한 시 등이 수록됐다. 세부목록은 △1장 유언 △2장 일기 모음 △3장 법성게 강의록 △4장 투쟁시 연재 △5장 유작시 모음 △6장 추모시 및 추모사로 구성됐다.

정원 스님의 속가 동생 서상원(한경대 행정학 교수) 씨는 이날 발간 기자간담회서 "정원 스님을 알리기보다 스님이 이루고자 했던 뜻을 기리는 작업으로 유고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죽음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책에 수록된 '생에 대한 집착이 이리 집요한지 몰랐다' 는 스님의 말 등에서 스님의 생전 고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서 씨와 정원 스님 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정원 스님 선양 사업을 지속 전개한다. 서울시에 요청해 정원 스님이 소신공양 한 장소인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추모비를 건립하는 한편, 추모사업회 준비위를 정식 추모사업회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유고집 수익금은 정원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과 양심수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유고집 발간 하루 전인 6일 불교사회연구소는 '정원 스님의 소신공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종교의 사회참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경전에 나타난 소신공양의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며 "정원 스님의 분신은 일반적 자살과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자신의 육신을 던져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자 한 대자비의 실천이었다"며 "종단을 비롯한 여러 불교단체들은 스님의 뜻을 오래도록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기구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통도사 방장선출 산중총회 구성원 461명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23차 회의를 열고, 15일 열리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후보자 선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자격이상자와 타교구 선거권 행사자 등을 제외한 총 461명의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예정된 화엄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 확정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17일 오후 2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FCA 풍수지리 최고지도자과정 모집

대한민국 풍수지리학계의 큰 스승, 최고의 교수진 직강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지리(風水地理) 전문가, 최고지도자 양성과정!!

양택풍수, 음택풍수, 이기풍수, 형기풍수, 현공풍수, 삼합풍수, 비보풍수, 도시풍수, 부동산 풍수, 인테리어 풍수, 기(氣) 풍수, 릴리안 투 풍수 등 풍수지리 종합 마스터 과정!!
좋은 자리 및 좋은 터 찾는 법, 좋은 잠자리, 좋은 책상자리... 생기(生氣)가 흐르는 좋은 곳과 살기(殺氣)가 흐르는 곳 찾는 방법!!
생기를 끌어오고 살기를 피하는 법! 수맥 찾고, 수맥파 차단하는 법! 엘로드 사용법의 허와 실, 제대로 된 엘로드 사용법!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동양미래학자 / 미래예측학박사 1호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학위원장
RTN부동산TV '풍수야 놀자' 토크특강 진행


지도교수 최명우 박사
동양철학박사(풍수전공) / 현공풍수지리 연구소장
전남대, 조선대, 대전대 외래교수 역임
서라벌대 풍수명리학과 외래교수 역임
Earist University 동양철학전공 주임교수 역임
대만 종의명 선생 현공풍수 사사


지도교수 정경연 박사
도시계획학박사 /
(사)정통풍수지리학회 명예이사장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동방대학원대 풍수지리 최고지도자과정 교수
국민대 평생교육대학원 외래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전임교수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의학박사. 자연치유학박사 / 탑성형외과 원장
고려대 의대,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동방대학원 미래예측학과 겸임교수
동방대학원 풍수지리 최고위 주임교수
청운풍수지리학회 회장 / 강남대, 공주대,
서라벌대 풍수지리학 교수


전임교수 노승우 박사
명예 철학박사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공주대학교 교수 / 서라벌대 풍수명리학과 교수
동방대학원 풍수지리 최고위 책임교수
용인대학교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교수
법왕불교대학 명예학장 / MBC KBS SBS
MBN TV조선 다수 출연


전임교수 세준스님
철학박사 (원광대 기공기학전공)
포천중문의과대학보건대학원 외래교수
한국기공학회 총무이사
숲 치유명상심리연구원 원장
동국대 인테리어풍수과정 지도교수

■ 대 상 : 풍수지리 관심자, 부동산 관계자. 인테리어 관계자, 행복 설계사, CEO, 관리자, 인사담자 풍수지리 왕초보부터 최종정리를 희망하는 고수까지
■ 입 학 : 1학기 2017년 4월 3일(월), 2학기 2017년 7월 10일(월) 학기당 15주, 2학기 과정
■ 수강료 : 학기당 1,500,000원 / 1, 2학기 일시 등록 2,40,0000원, 교수추천 및 동문 : 10% 장학금
■ 자격증 : 풍수지리사, 양택감정사(소정의 절차)

※문의 : 동국대 FCA 사무국 02-3443-4984

일 주 문



생명나눔, 자비나눔기금 전달

일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스님은 3월 9일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나눔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원담스님 9주기 추모다례재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3월 9일 수덕사에서 덕숭총림 3대 방장 원담 스님 열반 9주기 추모다례재를 진행했다.



전국비구니회 정기총회

육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은 3월 31일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마음쉼 3기 명상교실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3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마음쉼' 3기 명상교실을 진행한다. (02)2650-2213

스님 사후재산, 승려복지기금 전달

故선후 스님 유족, 5000만원 기탁



2016년 8월 입적한 수덕사 선후 스님 유족이 스님의 사후재산을 승려복지기금으로 기탁해 교계 안팎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선후 스님 유족은 3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써달라며 승려복지기금 5000만원을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전달했다.

승려복지회 측은 "승려복지제도가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선후 스님 유족의 사후재산 기증을 계기로 하루빨리 건강한 승가공동체가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화촉 **유윤정 〈월간 불광〉 기자**

유윤정 〈월간 불광〉 기자는 4월 2일 서울 삼성역 스카이뷰 섬유센터 17층 웨딩홀서 신랑 박선영 씨와 화촉을 올린다. (02)528-4098~9

"국가 새틀 짜는 시기 국민 정신 향상에 기여"

Interview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물질 추구서 정의·윤리 확립 전환
소외계층 보듬는데 종교역할 강조
공무원불자조직 확대 임기 내 목표

"국가 제도에만 의지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덕과 윤리 등 정신에 관한 향상보다 물질을 보다 많이 얻는 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요.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불교를 포함한 종교가 제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사진〉은 3월 8일 공불련 신년간담회를 통해 최순실 사태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이번 최순실 사태 밑바탕에는 '빨리 잘 살아야 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을 속이며 과업 만을 쌓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종교의 타락도 이런 사회분위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지금은 국가 정신 중심기제가 흔들린 상태이기에 종교계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저성장 시대를 맞아 양극화 문제 등 빈부격차 해소에 불교가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저성장 시대, 이제는 성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각자가 보시와 자선활동을 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정국에서도 물질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후보가 더 많은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공식 취임한 김 회장은 취임 후 매월 셋째주 금요일 조계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공무원 불자 회원들이 한자리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참석 인원도 점차 늘어 100여 명을 넘어섰다.

김 회장은 "월례법회는 공무원이 주축이 되지만 향후 다른 이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공무원 조직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재미있게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취임 이후 공불련은 각 부처 불자회 조직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성지순례 등을 통해 신심 증장도 앞장서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통일부, 조달청, 기재부 등에서도 불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법회를 통해서 불자회 조직이 즐겁고 좋구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직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결정할 일이 많아지는데, 불교 수행이 식견을 높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공무원 불자들이 함께 수행을 통해 공직에서 맡은바 임무를 원할히 잘 해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염불'을 공불련서 하고 싶다"며 "6월 정기법회에 이어 7월말 부탄 해외성지순례를 통해 신심 고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시기는 국민들을 한데 묶을 정신적인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 불교가 다시금 우리 사회를 위해 앞장섰으면 합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회원 사찰 유대 강화에 매진"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장 자관 스님



"부산 동래구 각 사찰 스님들과의 유대를 강화, 지역민과 불자들이 부처님의 불성 광명에 머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 신임회장 자관 스님〈사진〉은 3월 5일 부산 자비암에서 열린 연합회장 취임법회에서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1월 1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각종 활동에 전념, 3월 5일에서야 회장 취임식을 열게 됐다.

스님은 이날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회원사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1월 임기 시작 후 사찰 5곳에 불과했던 회원 사찰을 45곳으로 늘리기도 했다.

자관 스님은 "직접 조사한 결과 부산 동래구에 110여 개의 사찰이 있다. 하지만 현재 45개 사찰 만이 동래구불교연합회에 가입한 상황"이라며 "이는 부산불교연합회에 등록된 동래구 사찰 87개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많은 회원 사찰 가입을 유도해 동래구를 시작으로 부산이 불심 도시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사찰 확보와 함께 동래구불교연합회는 경로잔치, 관공서 방문, 대중공양 및 대법회 등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한 대외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립 후 그동안 동래구불교연합회는 동래구청 산불방지 요원 경방복 지원, 장학금 전달 10회, 경로잔치 4회, 동래 경찰서 및 소방서 투병 직원 지원, 다자녀 가정과 노부모 봉양자 지원 등을 진행해 왔다.

자비암에서 다년간 경로잔치를 여는 등 자비나눔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인 자관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이어 갈 뿐 아니라 자체 특강을 진행해 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취임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을 비롯해 동래구불교연합회원 스님과 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래구불교연합회는 자비의 쌀 20kg 100포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관응당 지수 스님 13주기 다례재



김천 직지사 중암(주지 도진)은 3월 6일 '관응당 지수 대종사 원적 13주기'를 맞아 경내 영산대보전에서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직지사 주지 법등 스님,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 문도 어른 덕해 스님, 중암 주지 도진 스님, 관응문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관응 문도 측은 "13주기를 맞은 이날까지 잊지 않고 참석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봉은사·강남경찰서 업무협약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강남경찰서와 '주민 참여적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2월 27일 법왕루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봉은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템플스테이체험 등을 강남경찰서와 공동수행하는 한편, 경찰관 및 군복무 의경들에게 위문품·문화체험·장학금 등 지원한다. (02)3218-483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천태종 대구 대성사 졸업·입학식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는 3월 4일 금강불교대학 제12회 졸업(수료)식 및 제14회 입학식을 경내 서원당 3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식장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장화사 주지 홍법 스님,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 윤수현 대성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제12회 졸업식에선 1학년 34명 수료, 2학년 35명이 졸업했고, 신입생은 100명이 입학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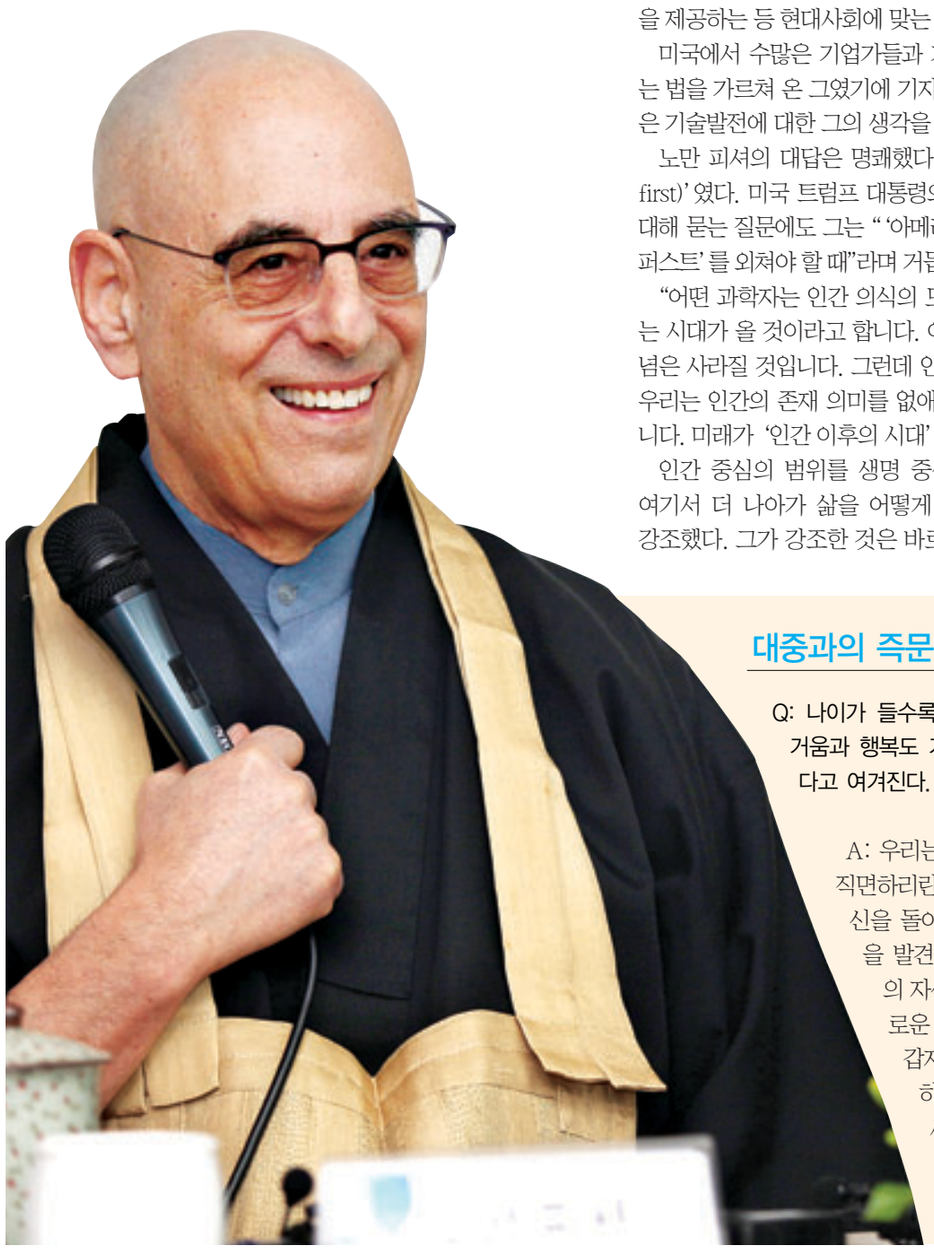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美선불교 지도자
노만 피셔
첫 방한 현장

"현대인들이여, 기억하세요. '휴먼 퍼스트!' "

"현대 테크놀로지(기술) 발전을 보면 성찰이 빠져 있는 듯합니다. 기술자들과 자본가들은 기술발전에 신이 나고, 경제 성장에 열광하지만 정작, 인간의 존재, 그리고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불교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노만 피셔




노만 피셔는 유머러스한 설명으로 좌중을 웃기며 강연을 이어갔다.


대중들은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통공연장은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대중들로 꽉 찼다.

4차 혁명과 AI 시대에 선(禪) 수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현대사회에 불교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불교 지도자인 노만 피셔는 3월 8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열린 방한 첫 행사에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이 중심이 돼야 하고, 여기에 자신을 돌아보는 불교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에브리데이 젠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노만 피셔는 일상 생활 속 불교 사상 적용에 앞장서 왔다.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벨리의 많은 IT기업에 선 사상을 적용한 명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발전을 이끌고 있다.

미국에서 수많은 기업가들과 기술자들에게 내면을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온 그였기에 기자간담회에서는 4차 혁명과 같은 기술발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노만 피셔의 대답은 명쾌했다. 바로 '휴먼 퍼스트(human first)' 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그는 " '아메리카 퍼스트' 가 아니라 '휴먼 퍼스트' 를 외쳐야 할 때"라며 거듭 인간 중심을 강조했다.

"어떤 과학자는 인간 의식의 모든 것을 컴퓨터에 이식시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죽음' 의 개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없애는 기술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미래가 '인간 이후의 시대' 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인간 중심의 범위를 생명 중심으로 확장한 노만 피셔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성찰이었다.

그는 "수행할 때 우리는 온 신경을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 에 집중한다. 이 힘을 토대로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며 "이런 능력을 키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휘쓸리고 공감과 이해력이 높아져 다른 사람과 더 잘 연결된다. 구글 등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새 아이디어가 이를 통한 팀워크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갈등, 모두가 '가족' 이라 생각하면 풀린다

8일 저녁 진행된 대중과의 만남에서는 보다 한국 상황에 맞는 진단이 이어졌다. 자유로운 즉문즉답의 분위기에서 그는

기술발전, '인간 위해야' 주문
탄핵정국에 '근본은 한가족' 강조
보살행 통한 사회구성원 협력

한국의 탄핵정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가감없이 밝혔다.

그는 "혼란 가운데에서도 인간이라는 하나의 큰 가족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처음이었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역사를 통해 반복해 왔다"며 "사회의 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좋지 않고, 감정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서로에게 반응하고, 확대 재생산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시기에는 기본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가족으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충동이 있고, 이런 일에 당혹하고 놀라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고 인간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 기반한다면 각자의 입장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상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노만 피셔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토대를 잘 지키고 있는 한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선수행은 보살행"이라며 "보살행을 통해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자신도 이로움을 얻는다. 우리 사회는 함께 해 나갈 때 보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문즉답에 앞서 그는 대학에서 선불교에 대한 책을 접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했음을 소개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조동종 스즈키 순류(1904~1971) 선사와 공부하던 이를 따라 수행을 시작했고, 버클리 인근 선센터에서 공부하며 아내 캐시를 만나 함께 수행해왔음을 밝혔다.

한편, 노만 피셔는 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권선아 스트리트젠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모임인 '다르마 프렌즈' 의 초청으로 처음 방한했다. 그는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3일간 대중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방한 일정을 주관한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한국의 큰 변화 국면에서 국민들이 불교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들어보길 바란다"며 "삶의 기준과 가치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대중과의 즉문즉답

Q: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진다. 즐거움과 행복도 가식으로 느껴지고 인생도 곧 끝난다고 여겨진다.

A: 우리는 우리 몸이 점차 노쇠하고 죽음에 직면하리란 걸 잘 압니다.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 스스로에 내재된 최고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늙음은 인생에서의 자신감을 줍니다. 노(老)는 삶의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갑자기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삶에 대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순간을 가지고 성찰해나가야 겠죠.

Q: 한국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만약 당신이 청년실업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사회가 발전 일변도로 구성돼있고, 우리는 일련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만일 제가 실업 상태라면 즉각적으로 저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 적게 소유하고 작은 공간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 달아나고, 너무 급속도로 변하는 곳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업이 없다는 것은 꽤 좋은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인으로 살 때 가능한 한 직업을 갖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달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실업상태로 지내곤 했습니다. 매 끼니 보리를 먹었죠. 저에게는 많은 책을 읽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스스로 고쳤고, 고칠 재간이 없으면 그냥 걸었습니다. 다시금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유용하게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Q: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을 했는데, 악의 존재도 사랑해야 하는가?

A: 훨씬 힘들지만 악의 존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힘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신이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미움 때문에 삶이 왜곡되고 내면에서 더 힘들어 집니다.

미래의 언젠가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아주 먼 미래라도 언젠가는 말이죠.(웃음)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증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이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승/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주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위해
천태지자·운서주굉·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중관철학, 귀류논증학파를 중심으로
게셰 텐진 남카/신국판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유불도 통섭을 통한 인도불교의 중국적 변용
김진무/신국판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세계화를 중심으로
최용운/신국판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불상점안의식의 역사와 사상, 작법절차를 중심으로
해시/신국판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한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병욱/신국판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일심(진여)의 신해성' 과 '일심지원(본각)의 결정성' 을 중심으로
고영섭/신국판양장/464쪽/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사회 아픔 치유 위한 명상 아카데미 열린다



명상지도자협회, 4월 명상아카데미 개강

"사회 변화는 제도가 아닌 개인이 먼저 조금씩 변화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명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직장 스트레스, 이혼 위기와 가족 해체 등 현대사회가 처한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명상아카데미가 열린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회장 혜거)는 4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지혜와 평화의 길' 명상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명상아카데미 강좌는 수요일에는 목우선원에서, 토요일에는 상도선원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열린다. 4월 5일과 8일 개강식은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명상아카데미는 스마일명상, 자비명상, 위빠사나 등 10여개 명상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명상아카데미에서는 기초과정으로 70시간 동안 성철 생활참선프로그램, 명상상담 이론과 실습, 위빠사나 호흡관찰법, 자비명상, 하트스마일명상, 가피명상, MBSR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심화과정으로는 명상지도자협회 소속 회원센터에서 100시간 동안 학습이 가능하며 센터로는 금강선원, 목우선원, 상도선원, 행불선원, 통담 아카데미아,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보리수선원, 위빠사나붓다선원 등 20여 곳이 준비돼있다.

전체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인터넷 강의도 신청가능하다. 특히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구교육으로 인증돼 과정 수료 시 연수점수 30점을 받을 수 있다.

상임이사 인경 스님은 "명상을 통해 이성과 감성의 균형으로 자기조절기능이 강화되고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번 강좌에서는 그동안 현장서 검증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명상지도자협회는 이번 강좌 이수 수강생에 민간자격증인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발부한다. 기초과정 후 심화과정을 수료하면 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총 46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명상전문지도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명상아카데미 강좌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홈페이지(www.kamto.net)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명상지도자협회는 3월 23~26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국제불교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명상 대중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명상지도자협회 부스에는 테마존과 체험존, 나눔존, 상담존에 나뉘어 명상정보를 제공한다. (02)953-5307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평균연령 75세, 마음은 젊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3월 8일 센터에서 탑골문화예술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다짐하는 입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배움 앞에는 나이의 구분이 없어 보였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 50년, 동문회관 건립 추진

50년사 편찬 및 인명록 발간, 선서화전도 개최 예정

50주년을 맞은 대불련총동문회가 동문회관인 청년붓다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불련 총동문회는 동문회관(가칭 청년붓다회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으며 50년을 맞아 〈50년사〉 편찬 및 인명록 발간, 50주년 기념 동문대회, 10.27법난 조명 세미나, 50년을 위한 사명과 비전찾기 운동, 대학포교 후원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 개최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50주년 기념 동문대회는 8월 12~13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리며, 10.27법난 조명 세미나는 10월 14일 경 예정돼 있다. 선서화전은 8~10월 경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불련총동문회가 구성한 대학전법지원단은 캠퍼스포교 활성화 및 지회 복원 사업으로 청춘콘서트와 초청강연회를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홍보지 가칭 대불련신문도 2회 발간키로 했다.

군포교지원단은 16곳의 군법당 2000여명의 장병들에게 법회를 지원하며, 53명찰 순례단은 9월 2일 회향 후 33관음사찰 성지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원각사 급식봉사를 진행하며 사업위원회는 상조사업과 생활 화환사업, 보험사업, 농산물 판매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불련이 시행하는 시곡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중앙대 이상화, 한림대 육주현 학생에게 각 300만원씩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낡은 신행 버리고, 자신 점검하는 계기로"

조계종 출가열반주간 '신행혁신계율산림' 성료

부처님 출가 열반 주간을 맞아 신행혁신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계율산림이 펼쳐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주최하고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성만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가 주관하는 신행혁신계율산림이 3월 5일 입재한데 이어 6일부터 11일까지 조계사 극락전에서 진행됐다.

조계종은 부처님이 출가한 음력 2월 8일과 열반한 음력 2월 15일을 출가열반정진주간으로 삼아 신행활동을 독려해오고 있다.

이번 출가열반정진주간은 특별히 신행혁신을 주제로 보살행을 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5일 열린 신행혁신계율산림 입재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법사로 나서 6가지 구체적인 실천덕목을 제시했다.



지홍 스님은 "낡은 신행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생활하는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 보듬는 불자 상담사 양성과정 '눈길'

조계종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 상담 전문 교육기관인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2017학년도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상담대학은 1년 과정으로 불교교리와 상담, 역사 등 기본과목을 비롯해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면접 상담 등을 강의한다. 졸업 후 불교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불교상담대학원은 2년, 4학기 과정으로 불교상담에 필요한 초기불교 수행과 상담, 명상심리상담, 대승불교와 상담, 자아초월 심리학과 불교상담, 유식학과 상담, 선과 상담 등 전문과목을 교육한다.

졸업 후에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 불교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서울시나 어르신상담센터, CLC희망학교, 가정법원, 서울남부구치소, 동대부여중 등 외부기관 상담활동이 가능하다.

조계종 포교원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인 관계로 스님은 40%, 종무원은 20% 학비 할인 혜택도 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심리상담사가 필요하지만 불자 상담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많은 분들이 불교 정신으로 상담을 하도록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군종교구, 대만불교 성지순례

생활불교와 현대적 불사 현장 견학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4박 5일간 대만불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군종교구 성지순례단은 교구장 정우 스님과 부교구장 승원 스님, 육군 7군단 도관 김희균 법사, 해군 2함대 혜정 김명환 법사, 그리고 공군 15전투비행단 동광 박대용 법사 등 영관 군승법사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순례에서 군종교구 순례단은 고웅 원조사, 제원사, 묘숭산, 불광산사, 중정기념당, 고궁박물관을 방문했으며, 대만불교 현대화 및 대중화 현장을 체험했다. 특히 고웅 원조사 주지 경정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불자들이 고웅 공항에서 군종교구 순례단을 맞아 환영행사 등을 개최했다.



순례 이튿날에는 불광산사 주지 심보 스님과 국제불교회 중화총회 서리회장 자용 스님을 만나 양국 교류도 함께 논의했다. 교구장 정우 스님은 "군승 150여명을 대표해 순례단에 영관 군승 15명이 참석했다. 대만불교의 원력과 수행력을 느끼고, 불법홍포의 새로운 원력을 세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백담사 경내에서 바라본 수심교의 모습. 안거를 해제한 운수납자들은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다리를 건너 만행에 오른다. 산하가 팔만 사천 법문이고, 바람이 격외도림임을 알아야 한다.

정휴 스님의
백담사 무문관
'是甚 日記' ⑤



계곡 돌멩이가 화두… 門外서 '그놈' 붙들다

끝없는 물음으로 자아 일깨워야

무문관에 들어 온지 3개월이 다 되었다. 석 달 동안 잠겨있던 문이 열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볼 것이다.

해제(解制)가 되면 전국 선방에 문이 열리고 운수납자(雲水衲子)들은 만행(萬行)을 나설 것이다. 걸망을 짊어지고 머무는 곳마다 겨울 한철 갈고 닦은 깨달음을 풀어놓고 한편으로는 아직 잡이 덜 깬 산속의 봄기운도 부려 놓을 것이다.

독방에서 해방된다는 들뜬 기분에 하루 종일 화두도 들지 않았다. 그동안 쉬는 시간을 틈타 보았던 조그마한 집 한 채를 바라보았다. 한 평도 안 된 집 한 채가 눈을 뒤집어쓴 채 바위처럼 일념(一念)이 만년(萬年)이 되도록 절구통 수좌처럼 앉아있다. 무금선원(無今禪院)이란 현판을 달고 노옹(老翁)처럼 앉아있다.

자세히 바라보니 밤새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깐 졸다가 막 깨어난 것 같이 보였다. 수척해 보였지만 피곤한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기다림에 익숙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불노옹(不老翁)이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멀리 떨어져 있는 대청봉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눈을 감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것 같았다. 새들이 찾아와 울면 눈 한쪽을 반쯤 떴다가 이내 감고 정진을 계속하고 눈보라가 세차게 칠 때는 한 쪽 귀를 열고 듣다가 닫아 버렸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날 자세가 아니다. 그러나 간간히 시선은 절 밖을 향해 있었고 누군가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기다리면서 스스로 그리움을 만들고 있었다. 창 밖에서는 눈발이 날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바람이 본분소식을 풀어놓는 것 같았다. 선지(禪旨)를 풀어놓는 솜씨가 대방무외(大方無外)하고 천지를 흔들었다.

자연이 나에게 전하는 일경(一境)의 소식이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걸림 없는 자유와 대용(大用)이 현존함을 깨닫게 하였다. 자연은 시시각각 변하면서 일기일경(一機一境)을 전한다.

봄이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법성(法性)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여름이면 삶의 전체의 모습을 드려내는 기틀을 보인다. 비록 말이 없으나 잎이 피는 것은 유언(有言)이요, 잎이 지는 것은 말후구(末後句)이다. 그리고 본체를 드려내기 위해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내려놓는 것은 무언(無言)의 설법이다.

자연은 이렇게 많은 것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아름다움이나 읊고 있다. 눈이 쏟아지는 겨울날 깊은 계곡에서 쏟아지는 눈사태를 보라. 어찌 그것이 단순한 눈사태만의 것이겠는가. 그것은 천뢰(天賴)같은 할(喝)소리요 날카로운 기봉(機峰)이 아니겠는가.

바람이 매섭게 불며 짐승처럼 칭얼대고 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한 짐승이 울부짖고 있는 것 같다. 바람은 변화를 자재하여 칭얼대던 울음을 그치고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소리를 내었다가 할(喝)과 봉(棒)을 앞세워 휘몰아친다.

설악산의 바람은 대청봉에서부터 시작된다. 천불동을 거쳐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울음소리로 변용된다. 때로는 나뭇가지를 흔들다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려내고 할퀴다가 지나간다. 어느 마을에 머물다가 싸움을 익히고 왔는지 매우 사납고 거칠다. 그리고 흐느끼고 울부짖는다. 어느 마을에서 분노를 만났는지 그 분을 삭이지 못하고 또 슬픔을 만났는지 뒷마당을 지나가는 바람은 울부짖고 흐느끼는 것 같다.

동해 파도소리 같은 바람이 한참동안 휘몰아치더니 대용(大用)의 자유만 남긴 채 사라지고 다시 적막이 찾아들었다.

차 한 잔을 놓고 3개월동안 참구했던 것들을 점검하였다. 사유는 깊어졌지만 밑바닥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새로운 의심이 화두가 되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신이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깨달음과 닦음에 완성이 있을 수 있을까? 물건이라면 노력과 수련, 그리고 연마를 통해 만들고 싶은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이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제품과 달리 완성될 수 없다. 정신세계의 완성이란 우리가 두고두고 추구할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거듭거듭 새롭게 형성되고 태어나야 한다.

나는 문득 다음과 같은 앙산(仰山)스님의 일화가 떠올랐다. 앙산이 부엌일을 하고 있을 때 스승인 위산(僞山)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앙산(仰山)은 주저함도 없이 '소가 풀밭을 가려고 하여 고삐를 힘껏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3개월 정진 끝에 문 열리는 날
내설악은 '無言 설법' 설하고
걸림없는 자유 있음 깨닫게 해

다시 한 번 무문관에 들어가서
생사 넘어 萬年토록 앉고 싶다

문 밖을 나가면 또다시 보고 듣고 이해관계에 따라 또 휩쓸리며 살 것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놈' 을 붙들고 관리해야 할 것 같다.

무문관을 떠나면서

여기가 옛 고불(古佛)의 도량임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람과 물소리가 전하는 일기일경(一機一境)의 언어를 알아듣는 눈 밝은 통찰력과 서슬 푸른 직관을 가진 운수(雲水)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누가 이곳에 무문관(無門關)을 세웠을까. 망치로 두들기고 쇳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를 누가 앉혔을까. 오래전에 입적한 만해(萬海)가 세운 것도 아니고 영겁의 세월 속에 묻혀 있는 매월당(梅月堂)이 꿈에 나타나 예언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청봉(大淸峰)에서 시작된 칼날 선 바람이 천불동(千佛洞)을 거쳐 이곳에 이르러 주춧돌을 놓은 것도 아니다.

분명히 하나를 버려서 둘을 얻는 기략(機略)과 지혜를 갖추고 하나를 통해 셋을 밝히는 거일명삼(擧一明三)의 기용(機用)을 갖춘 눈 밝은 운수(雲水)가 원을 세웠을 것이다.

그는 천지를 뒤집고 세상을 사로잡는 대기대용(大機大用)이 있었을 것이고 못을 기울고 산악(山嶽)을 무너뜨리는 경추도악(傾湫倒嶽)의 기개와 하늘의 관문을 열어 재치고 지축을 옮겨 놓은 기략(機略)을 갖추고 있는 분임이 분명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산(山)의 신령스러움은 그 산이 높거나 낮은데 있지 않고 산속에 뛰어난 가람(伽藍)이 있어야 신령스럽다고 했다.

부처를 만들어 내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내는 깨달음의 요람을 이곳에 앉혔으니 어찌 신령스럽다고 말하지 않으리요. 하늘에서 신령함이 내리고 땅의 상서로움이 모인 이곳에 선불장(選佛場)을 앉힌 안목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솟는다.

무릇 부처를 배우기 위해 뜻을 둔 사람들은 여기서 앉고 누우면 반드시 해탈의 진미를 맛볼 것이고, 빈손으로 왔다가 선방 문고리만 잡는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리를 거두어 갈 것이다.

분명히 말하노니 찾고 구하고자 하는 사람, 삶의 백척간두에서 절망한 사람들은 무문관에서 며칠 묵고 가라. 화두(話頭)는 눈 밝은 선지식에게 받을 필요가 없다. 무문관 옆에 있는 수 만평의 계곡에는 수 백 만개의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깔려 있다. 이것이 바로 1200공안(千二百公案)이요 화두이다.

돌멩이 하나 들고 참구를

냉혹한 시련 없이는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흐르는 물에 닳고 닳아 모난 것은 다듬어지고 거친 것은 부드러운 살결을 이루어 있음을 볼 것이요, 돌멩이 하나 하나가 독특한 개성을 갖추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급한 것은 멈추게 하고 분노를 가라앉혀서 삭고 닳게 하며 오랜 인내를 거쳐 자기 모습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하나가 화두라고 말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무문관(無門關)을 세운 분은 조실(祖室)로 있는 무산(霧山) 선사였다. 그는 단순히 문이 없는 무문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망치로 두들기고 쇳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를 앉힌 것이다.

범부를 고치기 위해 망치로 두들기고 성인을 이루기 위해 용광로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 새로운 인격을 주조(鑄造)토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문관은 혁범성성(革凡成聖)의 산실이었다.

밖에는 칼바람이 불고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눈을 뒤집어 쓴 나뭇가지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러지고 있었다. 누구나 자기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 부러지고 넘어지기 마련이다. 자연이 그 이치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스님 계시냐?"

"산행을 나갔습니다"

운수(雲水)가 걸망을 지고 떠나려 할 때 동자스님이 눈앞에 서 있어 물은 것이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어느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산중에 있습니다."

동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선(禪) 법문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 이 산중에 있겠지. 나를 이끌고 다니는 주인공도 나를 떠난 일이 없지."

운수(雲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눈 덮인 내설악(內雪岳)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독백을 하듯 한 마디 내뱉었다.

"참으로 웅장한 법신이군. 누가 눈 덮인 산하(山河)가 팔만 사천 법문인 줄 알고 있을까. 눈보라를 몰고 휘몰아치는 저 바람이 할(喝)과 봉(棒)을 갖춘 격외도림임을 깨닫고 있을까."

운수(雲水)는 눈을 맞으며 겨울 속에 잠든 설악의 봄을 걸망에 지고 길을 나섰다. 다시 한 번 무문관에 들어가서 삶도 죽음도 없는 빈 모습으로 일념(一念)이 만년(萬年)이 되도록 앉아 있고 싶다. 〈끝〉

강원도 고성 화암사 회주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 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서광 보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비구니부장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지옥 중생 모두 구하리”… 大願을 세우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② 지장보살 이야기 ㊥

아이가 쑥쑥 자라게 하는 저 불가사의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메마른 겨울 산을 푸른 녹음으로 뒤덮는 저 신성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곡식과 과일을 탐스럽게 익게 하는 저 신비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만물을 치유하고 완성시키고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신령스런 힘은 어디서 오는가. 지혜와 선근을 키우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지장보살(地藏菩薩)의 어원은 산스크리트 키티쉬가르바(Ksiti-garbha)입니다. ‘키티쉬’란 ‘대지(大地)’를 뜻하고 ‘가르바’란 ‘생명을 품는 태(胎)’를 의미합니다. 지장보살은, 고대 인도의 ‘대지의 신’인 대모지신(大母地神, Mother Earth)에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어 길러 내듯, 대지가 세상 만물을 품어 발육 성장시키는 신성한 힘을 말합니다. 대지의 신이야말로 가장 큰 생명력을 품고 있는 신으로, 예로부터 자연 숭배 신앙의 중심으로 신앙되었습니다. 대지의 신성한 에너지는 만물의 탄생과 발육과 풍요로서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그 때 커다란 향구름과 꽃구름 · 아름답고 오묘한 보배장식 구름 · 곱고 깨끗한 의복 구름이 몰려와 커다란 향비 · 꽃비 · 보배장식비 · 의복비를 내려 온 대지를 적십니다. 그러자 온갖 백천의 미묘한 큰 법음의 빗소리가 천지를 가득 울립니다. 이는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소리이며, 지혜로 나아가는 소리이며, 중생을 성숙시키는 소리이며, 삼악도의 중생을 제도하는 소리이며…”

〈지장십륜경〉 서품 中

메말라가는 꽃을 다시 피게 하고

〈지장십륜경〉의 첫머리에는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자 일어나는 상서로운 징조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궁핍과 결여를 채워주는 온갖 구름이 몰려와서 풍요의 비를 내립니다. 소낙비 같은 빗소리가 진동하고 중생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메마른 가뭄 속에 생명의 비가 퍼붓는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이 같은 공덕을 일으키며 등장하니 그곳 회중들은, 바라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 시든 꽃에 다시 생기가 돌듯 가피를 입습니다. 지장보살은 유정이 필요로 하는 의복, 침구, 약품, 평상, 곡식, 집 등 모든 구체적인 필수품에서부터 일체의 모든 안락한 환경, 지위, 이익, 명예, 공덕, 경지, 성품, 아들딸, 복덕 등 무엇이든 그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중생을 열반으로 이끈다고 하십니다.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당장 결핍되어 고통 받는 것을, 자비의 마음으로 다 품어줍니다.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구해주기는 부모와 같고, 여러 가지 비겁하고 용렬한 것을 감싸주기는 우거진 숲과 같고, 여름에 먼 길을 가는 이에겐 쉬어갈 큰 나무와 같고, 더위에 목마른 자에겐 맑은 샘물과 같고, 굶주린 이에게는 달디 단 과실과 같고, 몸이 드러나 자에겐 의복과 같고, 더위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두터운 큰 구름과 같고, 빈궁한 자에겐 여의보주와 같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편안히 의지할 바가 되고, 갖가지 곡식을 가꾸는 이에게는 단비가 된다.”

지장보살은 명부전(冥府殿)의 주존, 즉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존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악도 떨어져 헤매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 유명합니다. 그 본원적인 뜻에 근거하면, 지장보살은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풍요롭게 기루는 대지와 같은 불가사의한 공덕성을 갖추고 있고, 이는 중생을 윤택하게 하고 또 증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불성(佛性, 또는 지혜)이 없는 지옥과 같은 곳에 ‘자비’의 마음으로 뛰어들어 ‘지혜’의 빛을 비추어 그곳에 떨어진 무수한 중생들을 구제합니다.

불가사의한 공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장보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고 어떤 원(願)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이 능히 가능한 것입니까?”

인도 대모지신 연원된 지장보살
고통받는 모든 중생 품고 이끌어
‘죄업 중생 모두 구하겠다’ 서원
지장보살을 ‘大願本尊’ 칭한 이유

지장보살이 무수한 중생들을 과거에 제도하였고 또 현재에 제도하고 있고 또 미래에 제도할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 문수사리보살이 이같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해야할 육도 중생의 숫자와 규모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천겁을 헤아린다고 해도 안 될 정도로 많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인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란 존재의 실체는 원(願)을 세워 그 결과로 받은 몸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 또는 서원이란, ‘중생을 구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즉,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덕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라는 자리(自利)와 그것을 바탕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이타(利他)의 회향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같은 ‘수행과 공덕’을 세세생생토록 억 겁의 세월을 거듭하여 장엄된 몸체를 부처님 또는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타’의 정신을 더 강조하는데, 이를 ‘보살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장보살은 지장보살이 되기 이전, 세세생생 전생의 과거에 어떤 서원을 세웠을까요. 어떤 서원과 행(行)을 억 겁 동안 거듭하여 결국 ‘지장보살님’이란 화신이 되셨을까요? 지장보살은 전생에 큰 장자의 아들이었던 적도 있고 또 바라문의 딸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 뛰어드는 장면, ‘안양암 시왕탱’의 부분. 안양암 명부전에 있으며, 조선말기에서 일제 강점기 사이 조성됐다. ⓒ하지권 사진

큰 장자의 아들이었을 때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죄업으로 괴로워하는 육도중생을 모두 구하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다”라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또 전생에 바라문의 딸이었을 때에도, 어머니를 구하려는 마음에 지옥에 뛰어들었다가 무수한 중생들이 어머니와 똑같은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일체의 중생구제’라는 커다란 서원을 세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만약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여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한다면 나도 언제까지라도 부처님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광목이라는 여인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광목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지은 죄업으로 지옥에 떨어져 갖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악업을 일삼은 우리 어머니를 가엽게 여겨 달라’고 간절히 구원을 빕니다. 그리고 깊은 업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엄청나게 큰 서원을 세웁니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해 세운 이 큰 서원을 들어주소서. 저의 어머니가 영원토록 삼악도와 인간세상의 하천한 모습의 과보를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백천만억 겁 동안 모든 지옥과 삼악도에서 고통 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 지옥 아귀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이같이 죄를 받는 중생들이 모두 다 성불한 뒤에야 제가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지장보살본원경〉 中

‘자비심’으로 가여워하는 마음

참으로 착하고 용감한 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광목이 세운 원대한 서원 그대로, “그대는 그대가 먼 옛 겁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한 후에 깨달음을 얻어리라”고 하십니다. 한편, 이 말씀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업을 짓는 중생들의 숫자는 끝이 없기에 “지장보살은 오랜 겁 동안 제도해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또 거듭해서 서원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중생들이 끊이지 않는 죄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떼거리로 물밀 듯 육도를 표류하는 중생들을 위해, 지장보살은 자신을 위해 낼 시간은 일분일초도 없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이 세운 지극히 숭고한 서원은, 스스로를 돌 볼 겨를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 자처하는 우리들의 희생적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득도마저 미루고 서원을 거듭하여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보살이 되기 위한 비법이 담긴 경전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이 한량없는 겁의 세월 동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 많은 중생을 자비심으로 가여워하기 때문이다.” 바로 광목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간곡히 바라던 그 자비의 마음입니다.

‘부디 죄 많은 우리 어머니를 가엽게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소서’라며 매달리던 광목의 간절한 마음은 부처님에게 가 닿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광목아! 너의 자비심으로 어머니는 구제되었다.” 그리고 “네가 세운 큰 서원대로 자비로서 항하의 모래알만큼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자비심으로 가여워하는 마음은 원대한 서원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냈던 자비심의 물방울은, 거대한 폭포가 되고 다시 바다가 되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무수하게 많은 죄업 중생을 모두 남김없이 구하겠다’는 커다란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명칭 앞에는 ‘대원본존(大願本尊)’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새벽과 저녁 예불에 칭송되는 ‘대원본존 지장보살마하살’이라는 염불의 문구가, 어째서 문자 그대로 ‘대원본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종합불사 안내

사찰 및 부지 매매 거래 (전문 공인중개사)
사찰 신축, 증축, 개축, 철거 및 이전 (전문 기술과 경험)
각종 불교용품 제조 및 판매 (20여년의 신뢰)

불법외호와 중흥을 위해 20여년의 경험과 신뢰로 불교용품은 물론 사찰 불사 및 매매까지 무한 책임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건축 사찰 부동산 각종 불교용품

■ 전통건축 및 사찰 부동산 서정웅 이사 010-5387-5105
최종문 이사 010-4436-4292
■ 각종 불교용품 최안식 이사 010-6545-2020



위패몰 .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2단 합동위패 ②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용전대 ②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② 축원카드 보관함 소대위패①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 051) 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용성 스님 죽음관, '12연기 · 대승' 기반"

문현공 연구원, 전자불전 18집 특집논문서

독립운동가이자 근대불교의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사진〉은 〈능엄경〉,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대각원류〉, 〈귀원정종〉 등 다양한 저서를 남겼다. 이중 1936년 〈임종결〉은 용성 스님 특유의 죽음관이 담긴 한글 저서이자 사상서이다. 〈임종결〉에 담긴 용성 스님의 죽음관을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문현공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전자불전〉 18집 특집논문 '용성 선사의 죽음관 연구'에서 용성 스님의 저술 〈임종결〉을 연구 · 분석했다.

제자가 용성 스님에게 죽음의 본체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는 〈임종결〉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문답이 아니라 △본성의 본체 △본체의 작용에 근거한 생사 △평상시 죽음을 위한 대비 △임종시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 △임종 이후 정토왕생 방법 △삼매에 드는 방법 △악연의 인과를 소멸시키는 방법 △영혼에 대한 언급 등의 주제들이 다뤄진다.

이를 통해 용성 스님은 평상 시 수행을 닦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강조하고, 수행의 습기(習氣)에 따라 임종시 왕생하거나 해탈한다고 했다. 임종시 유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사망 직후에는 고인의 식(識)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 고인이 있는 곳을 편안히 유지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용성 스님 '임종결' 연구 · 분석
기신론 · 유식 · 정토 등 종합 기술
평소 수행이 生死 분별을 끊어

"스님 사상 핵심 담긴 사상서"
현대 죽음교육에도 활용 가능

문 연구원은 "용성 스님의 임종 시 태도의 기본 입장은 평소 수행이 중심에 있다"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데에 대한 용성 스님의 관점 역시 생사 근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수행적인 삶, 죽음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성 스님의 사상은 현대 죽음학 및 죽음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죽음에의 대비 교육'의 측면에도 깊이 있는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불교의 궁극적인 측면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연구원은 용성 스님의 〈임종결〉에 담긴 '생사 극복 방법'에도 주목했다. 용성 스님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만드는 근원심(根源心)의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봤으며, 이를 〈대승기신론〉의 '구상차제(九相次第)'와 〈육조단경〉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문 연구원은 "삶과 죽음을 만들어내는 분별심, 그 분별심을 만들어내는 무명을 제거해 생사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관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며 더 중요한 것은 생사를 일으키는 무명의 소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성 스님의 죽음관은 12연기의 죽음관과 대승불교의 생사관에 맞닿아 있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측면에서 죽음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면서 "결국 〈임종결〉은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 간화선, 염불선, 유식사상에 대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상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불전〉 18집에는 '백용성의 사상과 계승'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으며,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의 '용성진종의 승단개혁운동' △한상길(동국대)의 '백용성 대종사 자료 조사기' △김광식(동국대)의 '금정총림 설립의 역사와 범어사의 정체성'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보물 지정

도림사 아미타설법도 · 몽산화상법어약록도

18세기 경북지역 화승들이 조성한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등 불교문화재가 잇달아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보물 제1933호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1739년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등 경북 지역서 활동하던 화승들이 경주 거동사 오주암에서 제작해 불영사에 봉안했다는 화기가 남아 있으며,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및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각 회상(會上)을 나란히 배열한 안정된 화면 구성과 격조 있는 인물 묘사, 세련되고 유려한 필치, 밝고 온화한 색감을 통해 높은 품격을 보여준다.

특히, 지물을 든 천장보살과 지장보살 아래로 협시가 보살이 아닌 무장형(武將形)으로 등장하고 있어 팔공산 지역과 구미, 상주 일원의 경북 중북부 지역의 결합된 화풍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보물 제1934호로 지정됐다.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도림사 보광전의 후불탱화로 1730년 철매(哲梅)의 증명 아래 수화원(首畵員) 승려인 채인(彩仁), 진행(眞行), 즉심(卽心), 각천(覺天), 책활(策活) 등이 조성했다. 18세기 전반기 화풍과 화사간의 교류를 통한 화맥(畵脈)의 전승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물 제1933호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보물 제767-4호로 지정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는 중국 원나라의 고승 몽산화상 덕이(1231~?)의 법어를 간략하게 줄인 것으로 조선 초기 신미 스님이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이는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머지않은 시기에 간행된 도서라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조선전기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신성민 기자

세계유산 가치 담은 '부여학 6호' 나와

수리 · 복원 18편 논문 수록



세계유산의 수리복원에 대한 논문들이 담긴 〈부여학〉 6호가 발간됐다.

〈부여학〉 6호에는 '세계유산, 수리복원, 재생 그리고 부여'라는 주제로 18편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부여 밖에서 본 세계유산을 주제로 국내외 세계유산, 수리복원, 재생과 관련한 역사이론과 사례가 포함돼 있다.

18편의 논문은 △비평적 시각에서 세계유산 △세계유산의 역할 △건축도시의 수리복원 △동아시아의 수리복원과 재생 △부여와 세계유산 재생 중 하나의 세부주제로 저술됐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백제 고도 부여의 세계유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철학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고도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차문화硏, 사단법인으로 새출발

3월 4일 법인 창립 총회
박동춘 소장 이사장 선임

茶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연구 · 교육 · 전승 사업 실시
"차 우수성 전세계와 공유"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3월 4일 사단법인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창립총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차문화 전문 연구기관인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가 사단법인으로 외연을 넓히고 새롭게 출발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발기인들과 법인 창립에 동의하는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인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법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일괄 동의했다. 또한 초대이사장에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을 선임했다. 박동춘 이사장은 연구소장을 겸임한다.

법인 이사로는 김호석 수묵화가, 변영섭 고려대 명예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홍윤선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서경 목포대 연구교수, 이학종 미디어붓다 대표, 이만훈 前 중앙일보 국장, 김옥경 새봄어린이집 원장, 김미자 전북대 철학과 박사과정 등이 참여한다. 감사에는 김현옥 前 우리은행 지점장, 신혜현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동춘 초대 이사장은 선임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응송 스님에게 차를 접하고 배운지 올해로 37년이 됐고, 연구소를 2001년 개원해 법인화하는 데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면서 "연구소를 사단법인화 하는 것은 차문화 연구가 몇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이를 세상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법인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법인화를 통해 차 전문 연구소로서 전문 연구,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한국 차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이 된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차문화 · 산업 콘텐츠 개발 △야생차밭 보존 관리 사업 △한국 전통 제다 교육 사업 △한국 차문화 · 산업의 기초 자료조사 및 학술 연구 △한 · 중 · 일 차 역사 · 문화 강의 △동아시아 차문화 · 산업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동아시아 차문화 · 산업 전문서적 출간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한국 전통 제다 교육 및 제다 전문인 양성을 통해 농춘 유휴 인력을 활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음악 · 미술 등 예술 분야와 연계해 새로운 차 문화 · 산업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화 장엄, 학술적 조명 나선다

지화 보존회, 3월 24일 학술세미나

불교의례의 위엄을 더하는 장엄구(莊嚴具)인 종이꽃 '지화'(紙花)의 역사와 가치를 학술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지화장엄보존회(회장 정명)는 3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지화 장엄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김태연 대구대 명예교수의 '지화장엄의 세계와 가치' 주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양종승(무속박물관 관장)의 '불교와 무속의 전통지화 비교 고찰', 김성순(서울대 종교문화연구소)의 '동아시아 삼국의 전통지화 비교 고찰', 정성준(동국대 티벳장경연구소)의 '불교지화에 나타난 밀교의 영향 - 오방색의 중심이 흰색이란 점을 포함해' 등이 주제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진관 스님(무진장연구원장), 김용덕(한양대 교수), 이은종 씨 등이 참여한다. (010)5390-0108

신성민 기자

보조 계승자들 사상 · 수행을 말하다

보조사상연구원, 17일 월례학술대회

보조 지눌 스님의 법을 계승한 수행자들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3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 2층 문화강당서 '보조 지눌과 계승자들의 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제118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혜정(원광대)의 '지눌의 원돈신해문과 마음수행' △김성순(서울대)의 '〈질의록(質疑錄)〉에 나타난 금명보정(錦溟寶鼎)의 근대기 불교인식' △문광 스님(한국학중앙연구원)의 '탄허의 보조계승과 그 확장' 등이 주제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김천학(동국대), 김용태(동국대), 임상희(동국대)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11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일곱 번 용서하고
율장엔 7번 용서와 9번 기회를 준다
고개 숙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생명은 아름답다. 신비하고 경이롭다. 생명은 그 존재만으로도 움직이는 기적이다.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천지창조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권리 앞에서 평등하다. 귀천(貴賤)이 있을 수 없고 높낮이가 허락되지 않는다. 절대평등의 다함이 없는 행복과 자유 누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일 수 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다했을 때 그에 따른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켜야할 사람의 도리는 소홀히 하면서 누려야할 권리 주장엔 메아리가 없을 것이 뻔한 일이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 내가 흔들리면 남도 흔들릴 수 있음을 헤아려 살피는 것이 인생의 기본덕목인 배려이다. 배려와 이해는 소통에서 비롯된다. 대화를 통해, 토론을 통해 공동체의 흐름을 통해 단절과 결핍을 풀어 가야한다. 나(我)라는 생각과 너라는 생각, 우리라는 울타리의 보호벽을 허물어가야 한다. 틈이 생기면 대화는 멀어지고 대화의 단절이 길면 이해의 결핍으로 적이 되는 세상이다. 가까운 친척도 멀리 있으면 먼 친척이 되어가고 먼 친척도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되는 격이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대화로서 다양한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일 터이다. 오해는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곡해(曲解)는 대화의 막힘에서 출발한다. 대화는 입을 통해 문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상대자한테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대화는 입으로 문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느낌을 담은 표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몸짓의 대화가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법이다.

흔히 〈천수경〉의 첫 구절인 정구업(淨口業)을 설명할 때 입을 통해 짓는 거짓말(妄語), 기만하는 말(綺語), 두 가지 말(兩舌), 거친 말(惡口)로 4등분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천수경(千手經)〉의 경(經) 명칭이 의미하듯 손이 천 개면 입도 천 개인 것이다. 그러므로 눈은 보는 입이요, 귀는 듣는 입이다. 코는 냄새 맡는 입이요 입은 맛을 분별하는 입이다. 배꼽 밑의 두 개의 생식기관은 배설하는 입이요 팔 다리는 움직이는 입인 것이다.

좁게 보면 신체에 달린 구멍은 모조리 입이요 넓게 보면 온 몸의 팔만사천의 세포 하나, 하나가 모조리 입이 아닌 게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구업(淨口業)의 바른 해석은 신(身) · 구(口) · 의(意) 삼업(三業)으로 좁혀 받아들일게 아니라 신업(身業) 구업(口業) 의업(意業)이 셋이 아닌 하나로 설명되어야 할 터이다.

손짓 몸짓도 언어요 표정도 언어이다. 예전 사형(死刑)을 집행할 때 집행관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두 눈을 가린 사형수에게 자신의 말을 최후의 목소리로 각인 시키는 게 두렵고 께름칙하기 때문이다. 하여, 한 목숨을 마감하는 최후의 언어는 말이 아닌 손짓, 또는 목 짓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웅변일 수 있고 또 다른 언어일 수 있는 것이다. 형사 소송법에서 묵비권이 하나의 권리 행사로 존중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일 터이다. 자, 방향을 바꾸어 조계종단의 숙제로 떠오르는 멸빈자 사면복권에 대해 언급할 차례이다. 이유야 어떠하던 조계종단에 소속된 종도로서 종헌 종법을 어겨 궤도를 이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한 과보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종단의 사법 기관에서 중징계를 받아 승적도 박탈된 그들이 10년, 20년 넘게 사찰 주변을 떠나지 않고 승복 걸친 또 하나의 스님으로 살아간다면 종단에서는 섭수자비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종헌 종법을 보완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의 과오에 따른 충분한 형벌은 그동안의 세월로 충분한 것이다. 10년, 2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님을 헤아려 그들에게 수행자로서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자비를 베풀어야한다.

사람이 사람을 벌주되 사형(死刑)까지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율장 정신을 되살려 일곱 번 용서하고 아홉 번 기회를 주어야한다. 한 울타리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이다. 고개 숙인 그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누릴, 진정한 의미의 참 수행자의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불법 앞엔 스승·제자 따로 없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발심은 선후가 있으나 도를 깨치는 데는 선후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수행자의 공부를 두고 한 말인데 공부를 먼저 시작했다 해서 반드시 먼저 깨닫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혜능 선사 같은 경우 절에 온지 8개월 만에 오조로부터 법을 전해 받아 육조가 되었다. 그것도 계를 받아 스님이 되기 전에 법을 전해 받고 나중에 인종 법사로부터 계를 받으면서 인종 법사에게 법을 전해준 결과가 되기도 했다.

상좌가 은사보다 먼저 깨달은 경우도 있었다.

중국 당나라 때 신찬(神贊) 선사가 복주(福州)의 고령사(古靈寺)에서 은사 계현(戒賢) 스님을 모시고 살다가 절을 떠나 백장 선사 회상에서 안거를 나고 다시 은사가 계신 고령사로 돌아왔다. 은사가 물었다.

"여기 안 있고 밖에가 무엇 하였느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은사가 목욕을 하면서 신찬 선사에게 등을 밀어 달라 하였다. 등을 밀던 신찬 선사가 이런 말을 했다.

"법당은 좋고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好好法堂 而佛不靈)

은사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자 "부처가 영험이 없는데도 방광을 하는구나."(佛雖不靈 也能放光)

하루는 또 은사가 창밑에서 경을 보고 있었다. 마침 그때 벌이 한 마리 방안에 날아 들어와 창문에 몸을 부딪치고 있었다. 이때 신찬 선사가 즉흥시를 지었다.

열려 있는 문으로는 나가지 아니 하고
(空門不肯出)
창에 부딪치니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投窓也大痴)
백년을 낡은 종이 뚫은들
(百年鑽古紙)
어느 날에 생사 벗어날 기약 있으리오.
(何日出頭期)

이에 은사가 경전을 덮고 물었다.

"네가 행각하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저번에 목욕할 때도 그렇거니와 말하는 게 수상하구나."

"백장 화상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대중에게 알려 모이게 하고 신찬 선사에게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할 것을 청했다. 신찬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 법을 설했다.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밝게 비쳐 멀리 육근(六根), 육진(六塵)의 경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참되고 한결같은 그것이 통째로 드러나 문자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성품은 오염됨이 없어서 본래 저절로 완전합니다. 다만 허망한 인연을 여의면 곧 본래 그대로의 부처입니다."

(靈光獨耀 逈脫根塵 體露眞常 不拘文字 心性無染 本自圓成 但離妄緣 卽如如佛)

은사가 감동하여 말했다. "내가 어찌 늘그막에 와서 이런 지극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던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청하여 법문을 듣고 감동했다는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지리산 칠불사에는 서상수계(瑞祥受戒)에 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조선조 순조 때인 1826년에 대은 낭오(大隱朗悟) 선사가 칠불사에서 서상수계를 성취했다. 〈범망경〉에 의하면 천리 안에 계를 줄 스승이 없으면 부처님께 기도하여 서상을 받으면 계체(戒體)가 성립되어 부처님께 계를 받은 것이 된다고 하였다. 영암 도갑사에 주석하던 대은 선사가 서상계(瑞祥戒)를 받기 위하여 스승인 금담(錦潭) 스님과 함께 칠불사에 와 용맹기도를 하였다. 기도 중에 부처님 미간백호로부터 한 줄기 상서로운 광명이 비쳐 나와 대은 스님의 정수리에 꽂혔다. 이렇게 해서 상좌인 대은 스님이 먼저 서상계를 받고 스승인 금담 스님이 상좌로부터 그 서상계를 전수 받았다. 이리하여 그 계맥이 대은낭오, 금담보명(錦潭普明), 초의의순(草衣意恂), 범해각안(梵海覺岸), 선곡율사(禪谷律師), 용성진종(龍城震鐘)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동계맥(海東戒脈)이라 한다.

부처님 법의 진원지, '眞空' 마음자리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⑪ 무념의 법

153억 년 전 하나의 티끌이 폭발하여 이루어진 우주는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 있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보고 있지 않으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는 무관하게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보존의 법칙에서 나무 한 토막을 불에 태웠을 때, 나무토막이 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모양만 열로 바뀐 것입니다. 나무토막이 열이고, 열이 나무토막이며, 나무토막과 열이 에너지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참된 모양이고 참된 마음입니다.

언어와 문자로 전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진공의 마음자리를 부처님께서는 삼처(三處)에서 전하셨고, 역대 조사들도 오직 이 마음자리를 비유(比喩)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1,700 공안(公案) 또는 화두(話頭)라고 합니다. 이 화두 가운데 공부인들에게 널리 실참 되는 것이 '이뭣고'와 무자(無字) 화두입니다.

남악 회양 선사가 육조 혜능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혜능 선사가 물었습니다. "어데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혜능 선사가 또 물었습니다. "시십마(是什), 습마물(什 物)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온 물건이 무엇이냐?"

이에 대답을 못한 남악 회양 선사는 8년 동안 부단한 수행을 거친 뒤 혜능 선사에게 말했습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닦고 증득할 것이 있는가?"

"닦고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오염할 수는 없습니다."

혜능 선사의 이뭣고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아서 있는 것이 아닌 진공의 이 마음자리를 물은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오염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물건도 있을 수 없는 청정한 진공 가운데서 없는 것도 아닌 항하사와 같은 묘용이 있습니다. 그래고 "닦고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라고 회양 선사가 대답한 것입니다. 석두 선사에게 도착한 오예 스님은 큰 절을 올리고 선사의 곁에 섰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강서에서 왔습니다" "공부는 어디에서 했는가?"

순간 오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옷깃을 뿌리며 돌아섰습니다. 법당 문을 막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여보게!" 하는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몸을 돌리자 석두 선사가 손바닥을 세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예 스님은 순간 크게 깨달았습니다.

석두 선사의 '이뭣고'는, 선사의 부르는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분별의 생각이 끊어진 진공의 마음자리를 안 것입니다. 오예 스님은 순간 일체가 구족하여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이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과 조사 스님들의 천칠백 공안은 이 마음자리를 가리키고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어와 문자 그리고 생각으로는 이 마음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자는 생각으로, 생각은 언어와 문자로 서로 대상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오직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끊어진 무념(無念)이 되어야 합니다.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음이요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삿된 생각은 있음과 없음, 좋아함과 싫어함, 선과 악, 생과 사 등 분별의 이분법을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고, 바른 생각은 이와 같은 삿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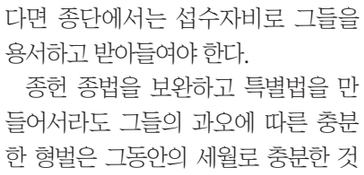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대출력 믹싱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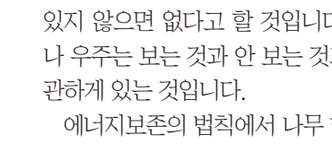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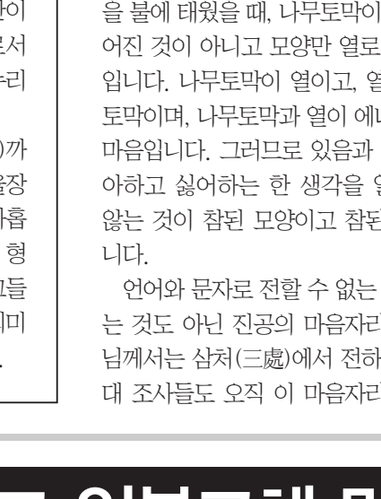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엠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1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02)733-1959
720-1836

마음 도리 아는 새싹불자 가람 탄생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3월 25일 한마음유치원 준공


3월 25일 준공하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유치원 외관 모습.


원아들이 사용하게 될 유치원 내부 모습.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마음 도리를 아는 불교인재 양성에 앞장서기 위해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선원 도량탑 앞에서 '도량탑 제막식' 및 '한마음유치원' 준공식을 봉행한다.

한마음유치원은 "정신세계와 마음의 도리를 알아 물질세계에 바로 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잇기 위해 설립됐다. 앞으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유아 교육 철학으로 삼아, 스스로 행복하고 전체와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다짐이다.

설립자이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물질계로 치닫는 현시대에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인재를 길러내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며 설립 취지를 전했다.

현재 한마음유치원은 용기꽃반, 웃음꽃반 5세 반과 지혜꽃반, 행복꽃반 6세반 그리고 자비꽃반 7세 반 등 7반으로 구성되며 정원 160명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 2일 문을 열어 현재 75명이 등원 중이다.

한마음유치원은 동심을 지키듯 환한 베이지색 벽과 갈색 지붕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연면적 948㎡로 지상 2층인 저층 건물로 안정감을 주는 건축구조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준공 당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시설로 꾸미기 위해 친환경 페인트,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으며 바다와 산으로 둘러진 아름다운 자연 조건을 자랑한다. 아울러 안정감을 주는 원목과 파스텔톤 색상, 동화 스토리를 활용한 꾸미기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대행 스님 가르침 교육 철학으로 '스스로 행복한 인재' 기를 것" 원아 건강 최우선 고려한 설계 유아명상 프로그램 등 '다채'

교육 부분은 유치원 기본 교육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특색교육으로 유아명상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유아 연령에 맞는 명상활동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도록 도와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욕구와 심적 변화들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자연관찰을 통한 교감 활동으로, 자연의 일부인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은 물론 자연을 사랑하도록 돕는다.

체험 활동으로 부산 영도 봉래산에 위치한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숲 체험과 텃밭, 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활동으로 즐거움도 더한다.

이밖에 가족 간 소통을 위해 다양하며 특색있는 부모교육과 체험을 마련하고,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 유기농과 국내산 재료를 엄선해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한마음유치원 준공식에 앞서 도량탑 제막식을 진행한다.

도량탑 제막식에서 참가자들은 경주석으로 조성된 8각 기단 위에 9개 구가 위로 갈수록 작아지게 세워둔 탑신을 마주한다. 한마음선원 본원과 각 지원에 봉안된 도량탑은 삼천 대천 세계에 불심의 에너지 중심처가 되고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뜻이 담긴 둥근 모양의 9층 탑을 세우라는 뜻에 따라 조성한 탑이다. 공생, 공심, 공체로 일체 만법을 걸림 없이 들이고 내라는 가르침이 형상화 돼 있다. 기단부를 비롯해 전체를 국내 화강암으로 경주에서 출토된 경주석을 사용했다.

하성미 기자

응공조계종, '아름다운 동행' 이웃돕기

불우이웃 위해 쌀 20kg 50포 등 전달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3월 7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면사무소(면장 장재석)에 쌀 20kg 50포, 휴지 30롤 50팩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사진〉 '아름다운동행 이웃돕기기탁' 사업 일환으로 전달된 쌀과 생활용품들은 지역 내 불우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자리엔 종정 법운 대종사, 범종사 혜광 스님, 수정사 수덕 스님, 천심암 지암 스님, 영통사 혜오 스님, 황룡사 경도 스님, 금천사 명원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응공조계종은 제2기 종단 임원진 및 부장 스님들에 대한 임명장도 총본산 동명사 경내 대웅전에서 전달했다. 종정 법운 대종사는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인연됨을 소중히 여겨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으로 재도약하자. 한국불교 중흥과 본 종단의 청청승가 종단 정립을 위해 더욱 단합하고, 수행 정진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응공조계종은 종정 법운 대종사의 상좌로서 종단 발전과 계승을 목적으로 발기(14명)된 응공법운 문도회(회장 명원)의 첫 회의를 경내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원광사, 인재불사 나눔으로 자비심 일깨워

9년 간 총 2억2000여만 원 전달



태고종 부산 원광사(주지 지광)가 3월 5일 원광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원광사는 2008년부터 매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9년 동안 전달한 장학금 총액이 2억2000여만 원에 이른다. 장학금은 봉축과 천도재 등 여러 행사 가운데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을 회향하는 것으로, 이날은 신라대학교 3학년 최소연 외 대학생 4명에게 각 200만원, 연재고등학교 2학년 신지은 학생 외 11명에게 50만원씩 총 1,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주지 지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의 좋은 인재 동량이 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도들에게는 장학금 전달이 자비심을 꾸준히 실천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광 스님은 "오늘 장학금 전달의 원동력은 신도들의 자비정신이자 남을 보살피겠다는 마음의 결과다. 장학금 전달로 이 사회와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 물에 빗물이 떨어진다고 어떤 큰 변화가 있겠느냐"며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유마거사가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고 하셨다. 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실천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받는 이도 세상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성장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누비라실버순찰대 "치안은 우리가!"

구평종합사회복지관·사하 경찰서 MOU



범죄 예방과 부산 사하구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누비라 실버순찰대' 가 창립됐다.〈사진〉

사회복지법인 공덕향(대표이사 명현)이 운영하는 구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은 3월 3일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에서 누비라 실버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하경찰서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누비라 실버순찰대는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치안을 제공하는 상생사업이다. 부산에서 처음 실시된 복지 사업 누비라 실버순찰대는 어르신 3명과 각 동의 지구대 경찰관 1명이 팀을 이루어 활동한다. 치안 관련 전문 교육 이수 후 앞으로 매주 주3회 3시간씩 지역 순찰을 나서 범죄 예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발대식에는 이혜정 복지관장을 비롯해 안정용 사하경찰서장 및 경찰 및 치안 관계자와 실버순찰대 어르신 6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김해 장유 보리원, 초기불교이해 강좌 개설

3월 21일~5월 30일, 매주 화 총10강

초기불전연구원 근본도량인 김해 장유 보리원(원장 대림)이 제6기 초기불전학림을 개강하고 초기불교이해 강좌를 개설한다.

개강은 3월 21일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해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기간은 5월 30일까지로, 총 10강이다. 교재는 〈초기불교이해〉(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간)이며 강사는 각묵 스님이 직접 나선다. 동참금은 10만원이며 수강 신청은 초기불전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각묵 스님은 "불교 만대의 뿌리요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되는 부처님의 원음, 초기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며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 불교 2600년의 전개에도 그 뿌리가 있다. 무엇이 불교이고 무엇이 불교가 아니냐는 판단을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불교의 뿌리인 초기불교"라고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055) 321-8579

하성미 기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교육안내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다" -대행선사 법어

내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놓아 원만하게 생활을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自性)을 밝혀나가는 생활 속 참선 수행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의 특징

- 3가지 주제 : ①주인공(主人公)에 믿고 맡기기 ②지켜보기 ③실천궁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해서 토론과 행선을 진행.
- 생활속 공부 점검 :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마음공부로 풀어가는 실천.
- 한마음으로 같이 공부 :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내주는 공생관(共生觀) 등, 일상의 문제들을 공부로 삼아 도반으로 배우며 지혜와 자비의 길로 같이 성장.

27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모집

1 교육대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2 교육일정 : 2017. 3. 18(토) ~ 5. 20(토) 총10주
3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30~8:40 (오리엔테이션 오후 1시부터)
4 교육장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5 교육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6 문 의 : TEL 031)470-3200, 매주 월요일은 휴무

NAVER 함께하는 진화 검색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음공부

- 한마음과학원에서 10년간 실시한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들이 마음으로 써낸 수행일지의 정수
- 마음보기, 가족, 직장, 사찰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겪으며 주인공 관법으로 정진해 나가는 명쾌한 해결책
- 마음공부의 지혜, 사랑, 웃음과 눈물, 감동이 가득, 수행 재발심의 도우미

목 차

1장 _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하여
2장 _ 내 인생의 마음공부
3장 _ 내가 바뀌어야 남도 바뀐다고
4장 _ 나로부터 나를 깨치는 가르침
5장 _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

전국유명서점에서 절찬 판매중

값 13,000원

한마음과학원 펴냄 | 성균관출판부 | 315쪽 | 값 13,000원 문의 031)470-3200 * 판매처 : 전국유명서점, 인터넷서점

"사찰음식 수익, 사회에 환원"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사찰음식점 수자타 운영하는 미륵사 주지 혜법 스님

'광주의 어머니 산'이라 불리는 무등산을 가는 초입에 서면 '수자타 사찰음식'이라는 팻말을 마주한다. 광주지역에서 사찰음식 대중화를 표방하며, 최초의 뷔페식 사찰음식전문점을 운영하는 혜법 스님(사진 · 미륵사 주지)은 늘 분주하다. 새벽부터 시작하는 음식준비로 바쁜 '수자타'는 매일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 광주의 사찰음식 명소다.

미륵사에서 운영하는 수자타는 3개의 대형 연희홀과 1개의 소형홀로 구성된 총 550평 면적, 3층 규모의 공간이다. 1층의 대형홀은 400여 명이 동시에 공양할 수 있는 일반식당 공간이고, 2~3층은 다양한 불교행사나 돌잔치 등 연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불교계의 대부분의 행사가 진행되고, 일반인들의 결혼과 만남 행사도 열리는 광주 불교계의 소중한 공간이다.

"수자타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와서 공양을 하고, 약간의 공양비는 사찰을 유지하거나 불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매일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수자타라는 사찰을 찾는 것입니다."

혜법 스님이 2006년 사찰을 운림동으로 이전한 후 2009년 사찰음식점을 개설해 어느덧 8년째 이르렀다. 불교세가 약한 광주서 오랜 기간 운영하기는 분명 쉽지 않았을 터, 그럼에도 스님은 미소를 띠며 "괜찮았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2~3년 만에 무너질 것이라 했어요. 지역 불교세도 약한데다가 이런 대형공간에 사람들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다보니 결실은 자연스레 따라온 것 같습니다."

스님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수자타'는 이미 광주에서 사찰음식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더불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먼 타지의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수자타에는 매일 밥류 · 밑반찬 · 요리 · 채소 · 탕류 등 90여 가지의 음식이 나온다. 이 많은 가짓수는 20여 명의 직원들에 의해 정성껏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식대는 1인 7,000원에 불과하다. 사찰음식을 일반인들이 쉽게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님의 배려가 담긴 금액이다.

매일 90여 가지 음식 만들어
8년째 불교문화 지역에 알려
불교복지 공간 위한 불사도

그렇다면 수자타 사찰음식의 핵심은 무엇일까? 혜법 스님의 답은 간단했다. '제철음식을 만드는 것'과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 2가지다.

스님은 음식에 특별하거나 화려한 장식을 배제한다. 정확한 간만을 맞춘 간결한 음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차려진 정갈한 음식은 종교와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수자타를 찾는 요인이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자타를 통한 수익은 사회 환원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됐다. 현재 7,000평의 땅을 90억 원에 매입해 복지시설 불사를 진행 중이다. 사찰의 수익사업이 불교와 지역사회를 살리는 좋은 예가 된 것이다.

"미래의 불교복지공간을 계획하고자 인근 토지를 매입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원룸요양원과 복지시설 등을 마련해 제공할 겁니다."

혜법 스님을 통해 수자타가 도심의 문화공간이자 포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난달 완공된 증심사 신규 템플스테이관. 이곳은 각종 편의시설을 내부에 갖추고 있다.

퇴근 후 산사 머무는 템플스테이

바쁜 도시인들을 위한 안성맞춤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일반인이 출퇴근 하듯 사찰서 5박6일 동안 머물며 일상생활과 산사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장인들을 위한 '출퇴근 템플스테이'란 명칭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사찰에 머물며 스님과의 차담과 선택적 문화체험을 즐기며 개인의 온전한 휴식과 새로운 삶의 원동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템플스테이다.

프로그램은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5박6일 동안 진행된다. 특히 프로그램은 출근 전과 퇴근 후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출근 전에는 오전 4시 기상해 예불을 시작으로 명상, 108배, 아침공양 등이, 퇴근 후에는 스님과의 차담, 촛불명상, 다스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 템플스테이는 당일형과 휴식형, 체험형, 맞춤형 등 다양한 형태로도 운영된다. 당일형은 2~4시간동안 사찰음식 체험과 스님과의 대화 등이 진행되며, 휴식형은 사찰 산책, 스님과의 차담, 다도를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형은 사찰에 머물며 예불, 108배, 공양, 참선, 포행(산책) 등을 할 수 있으며 맞춤형은 신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다.

광주 증심사, 직장인 위한
출퇴근 템플스테이 마련

출퇴근 가능이라는 독특한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것은 증심사가 무등산에 있으면서도 차량으로 도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뛰어난 접근성에 기인한다. 또한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증심사는 지난달 사업비 총 15억 원을 들여 템플스테이 전용관 3동을 완공하고 전체 40여 명의 참가자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했다. 신규 템플스테이관은 각 방에 2~3인이 숙식 가능하며, 방별로 욕실과 냉난방기기, 사물함 등이 구비되어있는 한옥양식의 최신시설이다.

조영훈 종무소 담당자는 "바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작은 휴식과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오랜 시간 도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사찰에서의 명상과 내면의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사회에서도 적용해 일주일간 명상휴식과 생활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심사는 2008년 광주 지역 최초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됐다. 이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선정하는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사찰'로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 지역 대표 사찰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더불어 문화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자리로 행복 보장받는 老年

고창군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사업 발대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자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나섰다.

고창군노인복지관은 3월 3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박우정 고창군수, 이호근 전북도의원을 비롯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발대식은 이종인 · 김영순 어르신의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이어 직무 및 소양교육, 안전교육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교육을 시행했다.



올해 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기타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124명), 공공시설봉사 분야로 학교주변 환경 안전 계도 관리 지원사업(79명), 공공의료 기관 및 복지시설관리 지원사업(70명),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지원사업 10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시장형사업 지역보육시설 및 아동센터 도우미파견사업(30명)을 수행하고 발생된 수익금을 참여자 인건비로 지급하게 된다.

행사에서 고창군노인복지관장 대원스님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사, 3~10월 '마음 쉬는 수요일' 운영

마지막 주 수 · 목 1박2일간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가 전통산사와 문화재에 깃든 불교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의 마음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금산사는 오는 3월 29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 · 목요일 1박2일간 '마음 쉬는 수요일-문화가 있는 수요일, 전통산사를 찾아갑니다'를 총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수요일에는 치유공간 '이웃' 대표인 정신건강 전문의 정혜신 박사와 전주시립예술단원인 이창선 대금연주자가 함께하는 마음치유 콘서트 '내 마음이 지옥일 때'가 진행된다. 목요일에는 백양사 천진암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체험과 걷기명상, 탁본체험 등 불교문화체험 등이 이어진다.

매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화재청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산사에 깃든 정신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는 취지로 산사체험 및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김제 금산사, 정읍 내장사, 남원 실상사, 완주 송광사, 고창 선운사 등 5곳의 사찰이 선정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현옥 시인 4집 〈위안부의 눈물〉 발간

최근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아픔을 기억하는 소녀상에 대한 철거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불자시인의 시집 출간이 눈길을 끈다.

조현옥 시인은 4집 시집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을 출간했다. 시집에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0명의 증언을 시로 표현한 글이 담겨 있고, '나비의 거처' '돌아온 소녀' 등 52편의 창작시가 담겨져 있다.

조현옥 시인은 발간사를 통해 "이역만리 타향에서 일본 군인들의 강제적 성노예로 무참히 사라져 간 분들의 영혼들을 위해 시집을 바친다"며 "과거는 수정될 수 없고,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하물며 사죄는커녕 한국의 소녀상까지 철거하라는 요구를 하는 일본을 보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고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決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쌩뚱! 맞은 소리!

소리공학 전문가가 진단하는 한국 법당들의 소리는
심오한 염불정서와 전혀 다른 쌩뚱맞은 소리로! 이런 소리에 내 염불을
실림으로 내 귀에 내 염불이 힘들게 들림에서 목이 가고 수 만번
반복 속에 만성피로에 젖어듬에도 원인조차 모른체
참으로 힘들게 염불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

법당소리 비교시 놀랍도록 선명한 소리의 차이에 고민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말없이 쌔엥! 가버리는 이유는 부담드리기 싫어서 이지만 어마! 어마! 한
소리의 차이를 잊지않고 고민이 정리되면 반드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앰프 다루기 1초! 고장도 없지만 지금은 A/S가 부실하면 문을 닫는 시대!
토탈시스템 완벽시설후 귀 법당 기존 시설의 평균 절반가격 할부가능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은 각종 제품이 다 있으니 소리구경 하세요!

☎ 055) 343-1191, 010-9471-2026
(주) 염불소리 대표 공 희 (소리공학 저서)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음식을
베풀면 이 두 가지 인연으로 그 수명은 길어진다네.

- 금강명최승왕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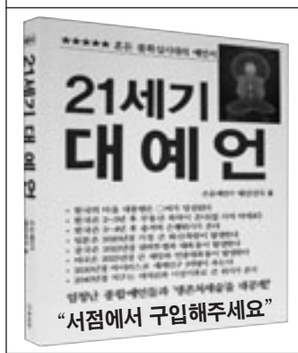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불사나 선물용으로 청암 달마도를 저렴하게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10매 이상은 사찰명과 스님법명 넣어 드립니다
규격 40cm×60cm 1매 6천원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타로&백초귀장술
- 진로 적성 성격 질병 궁합 합격 승진 등 사주보다정확한심리상담가능
- 단기간 배워 상담가능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원 개원하실 분
010-8246-3253
책임개인지도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양평 암요양원 건강힐링캠프
공기 맑은 산, 황토집에서 건강을 / 체질음식, 천연조미료, 유기농, 죽염식단으로 원장님 수시무료 건강상담, 체질감별.
네이버에서 양평 암요양원을 검색
010-9237-8599

운전하며 농사일 하면서 사찰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1종 대형면허, 65세,
사찰경력 3년
010-6476-602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시 복정동)
010-5382-8261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4139-8830

신심있는 50~60대 처사님 모십니다
(평택 약천사)
010-7100-809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동림사)
055-337-0001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기도하며 무보시에 노스님 시봉하며 지내실 보살님 인연 기다립니다
(부산 대원정사)
010-4898-0885

스님 연락바랍니다
1. 경기도 여주시에 계시는 혜성스님 (강명애)
2. 울산에 계시는 무애스님 (관음정사)
3. 부산 동래 정보스님
010-3386-1662
마산 태봉암 혜각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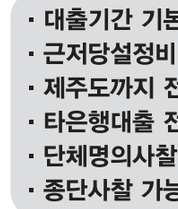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기 문 강 의 안 내
기문으로 보는 사주는 1세-90세까지 사주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사주학으로써, 사업자와 공직자 구분이 확실하며 학업생(학업진로 선택), 병리(병방론), 부부애로 등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기문학입니다.
(스님 직접강의 합니다)
강의날짜 : 4월 첫째주 화요일 / 강의시간 : 오후 2시부터 매주 화요일 강의
010-3544-9777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0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상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은행권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태봉사
- 법 명 : 해원 (유혜정)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삼광리 608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무속 단계 무료, 심천 유료)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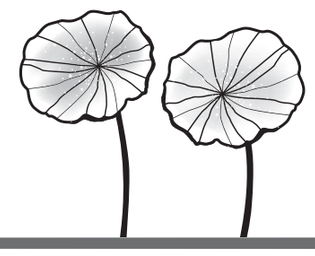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오온(육신, 감각, 지각, 의지, 분별)의 집착은 그 뿌리를 갈망에 두고 있느니라.

- 잡아함경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서울지역 무료 출장상담 및 무료 전국신문광고 서비스 제공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제공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신뢰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원주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법당. 목조 요사채. 공양간 ● 산신각. 토지 700㎡
- 뒷편 이산 사찰. 교통편리. 위치 좋음. 주차장 있음
- 양도가액 : 6억원 (융자 2억 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60평 ◎ 면적 : 55평
◎ 요사 : 30평 ◎ 법당 : 25평
◎ 무허가,사용료 있음 ◎ 요사 : 30평
◎ 양도가 : 5천 ◎ 양도가 : 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토지 : 270여평, 종각, 요사채 30평
- 법당 23평,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 2,000세대 아파트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사찰(급)안내

- 하동 한옥 토굴 양도
- 토지 6,000㎡. 한옥토굴 63㎡. 차방있음
- 지리산줄기산중토굴. 청정계곡
- 녹차재배함. 조용하고 깨끗하고 남향
- 가액 : 3억3 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10개, 공양간, 창고, 외부 화장실 등등 대형주사장 등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원

010-4628-56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 (구 : 숭인2동 220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하차 2,3번출구 대도로 바로 옆 약 15m거리
- 법당 전체 20평, 법당 10평, 요사채 10평
- 방2개, 주방1, 화장실1, 살림합니다
- 후불탱화 5존불 신중단 영가단
- 가액 : 보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300만원. 가격절충

010-3722-2738

서울시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잠실 인근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5000만, 월 150만 시설비 15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보사찰안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5
- 대 266평, 법당 21평, 요사채 22평(방 3, 화 2)
- 종교법인등록, 집기 및 시설 양도
- 주차장 완비, 남향(탁 트인 전망)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918-79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92평
- 4층 건물
- 건물 : 철근 콘트리트 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 가액 : 5억5천만원

010-5931-10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25평(목재)
- 공양간 10평, 요사채 방 2칸
- 대지 157평
- 가액: 2억 9천

010-3508-7710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1억 6천만원

010-7345-16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 총부지 임야 2,000평
- 건물 법당 16평, 요사30평 조립판넬구조
- 가액 : 1억 8,500백 대출 7,500백 안고 1억 1천

010-7188-7723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5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여항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가)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15억

010-6667-4753
010-3852-257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물 2채
- 대웅전, 산신각, 별도 황토방 2개
- 주방, 욕실, 조경,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버스터미널 도보 5분거리
- 가액 : 3억 8천만원 (융자있음)

010-4561-2149

사찰안내(토굴)

- 위치 : 송정동 터미널에서 차로 3분거리. 구미역에서 차로 5분거리
- 법당 33㎡(10), 요사채 53㎡(16)
- 방3,주방,욕실,화장실2,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 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월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2499-300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
- 평수 : 4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9177-7842

사찰(급)안내

- 위치: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액 : 3억5천만원(몽땅)
- 시세이하 반값

010-8014-7707
010-3832-71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24-17 삼안공원 앞
- 건물 3층 건물중 1층 33평, 도시가스
- 가액 : 보 1,500만원, 월 40만원 시설 집기 일체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8352-4111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소재
- 부지 : 666평 중 사찰부지 조성 210평
- 건물 : 부지조성한 아래 종전 가든한 건물3동 32평 1동 25평 2동
- 특징 : 철죽꽃이 유명한 황매산 주령 아래 가든한 곳 건물3동 위 산밑 210평 사찰부지로 조성, 연못지하수 1급수 면소재지 2~3분거리 현재 울산-합양간 고속도로 건설중 대병IC 5㎞ 이내. 국토변에 위치한 명당자리
- 추천용도 : 사찰연수원 팬션가든
- 가액 : 4억 최저가액(대출금 있음)

주인직 055)933-488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 평수 : 40평(3층 건물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범종, 108소불,
- 큰방1,넓은공양실, 실내화장실, 냉난방시설,주차장 완비, 최고시설
- 가액: 보증금 500 월38만원 시설비 1,800만원
- 큰절 소임 관계로 급히 싸게 양도함

010-3152-273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91번지
- 법당목재30평 요사채30평
- 종교부지324평 개인땅200평
- 법당목재건물
- 가액 : 3억(전세 9천)

033-434-1365
010-7128-136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 50평,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모셔져있고 방 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보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2069-3944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5번길 17 (거제 시장 통닭 골목)
- 3층 건물 중 2층 삼존불, 주방, 욕실, 창고 등 (보신후 결정)
- 가액 : 보 5백만원 월 50만원 (실평수 60평) 시설비는 보신후 결정

010-8385-2447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 방향 도심속 조용한 사찰
- 대지 : 54평 / 2층 양옥, 전통대문신축, 1층 전체 소나무 원목 리모델링 완료(총 1억 3천투자) 1층 : 법당,공양간, 종무실,창고 등(40평) 2층 : 산식각, 요사채(방3, 거실1, 화장실1, 베란다) 3층 : 옥상(창고 등 증축가능)
- 참고사항 : 주변 아파트 3개소 5000세대 건축중 / 지하철 공사예정으로 시세상승 예정
- 양도금액 : 3억 5천, 전세가능(1억 7천)
- 관세음보살 등 동 불상 4분 후불탱화, 설법단, 칠성단, 신중단 등 냉장고 4대 등 각종 주방비품, 에어컨 4대 등 각종 비품 상호협의하 인계 건강상 사유로 급 양도 /

010-6731-2365 / 010-6741-253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읍 청도시장부근
- 임법당, 마당있는 시골집(독채)
- 아미타불, 관음, 지장 시설원만, 집기류 주차장 좋음 (대형 버스진입 가능)
- 가액 :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5366-149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대지 : 69평
- 1층 : 27평(방3칸,공양실,주방) 2층 : 25평 법당 스님 친견실
- 종무소 3평, 도시가스 주차가능
- 삼존불, 각단 탱화 법당시설 완벽
- 가액: 3억9천(은행대출 1억4천) 안고 2억 5천

051-413-3318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약 50평 3층
- 삼존불, 소불
- 방 2, 부엌
- 몸만 오시면 됨 (본사 업무 관계로)
- 가액 : 보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 약간

010-4541-1140

사찰(급) 전세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1길 125-4
- 법당 4칸 1동, 요사채 2동(기타건물) 300평, 경내 전답 1,000여평
- 세간살이 일체
- 가액: 전세보증금 5천만원 협의가능 2~3년 후 적당가에 양도 가능

055-931-9633
010-3022-498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금련산 전철1번출구 3분, 바닷가 3분
- 큰방1, 작은방1, 다락, 창고2
- 아미타 동불(흑탱화) 미륵불(흑탱화),산신(탱화)
- 인등 30개, 종50관, 대북, 엠프일체
- 냉장고, 세탁기 부엌살림 일체
- 가액: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350만원

011-676-53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221-1번지
- 종교부지 680평 법당 35평 요사 30평, 조립판넬구조
- 삼존불 집기일체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십만원

010-4876-1042
성진스님 직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 스님 급한 관계로 급 양도
- 지장기도도량

010-3112-04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최상의 위치
- 건평 : 70평, 완벽한 시설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등)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조정

043-848-576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
- 명리 상담 하던곳
- 평수 : 약 50평(화장실 포함)
- 깨끗한 건물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즉시법회 가능

010-6829-4040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 경의선 지하철연결 서울역,용산역
- 시설 : 특급, 법당 2층 30평, 1층 건평 65평, 방 6개, 상담실, 큰거실 2, 화장실 3개,주차시설 완비
- 사주 보고 포교 하실 분 적합, 밀집 아파트 대단지 있음
- 가액 : 전세1억6천만원(월세 가능)
- 난방 심야

010-4012-55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칠곡면
- 평수 : 2,730평
- 내용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선방 각 1동
- 요양원, 치유원 등 적합
- 가액 : 6억5천 (절충가능)

010-3855-7136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이산면(영주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88㎡(신축,조립식주택 49㎡)
- 초지 : 1,038㎡(각종 약초나무 심어있음)
- 조립식 요사채,조립식큰창고,목욕탕,수세식화장실2개
- 넓은주차장 완비(하천부지 일부사용)
- 주변 수로 완전 정비
- 앞에는 육백년 느티나무 시보호수 뒤로는 비봉산이 있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필요로 하시는 분
- 가액 : 답사 후 절충.꼭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591-479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영월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대지 270평, 요사채 40평 목조로 된 신 건물, 법당 17평
- ※군부지 약 500평 사용가능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924-8969 주인직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계룡산 제일 전망 좋은 암자
- 평수 : 약 500평
- 요사채, 법당
- ※시, 서화, 염불, 시조, 판소리 교육해 드립니다
- 가액 : 전세 5천만원, 양도가 3억 5천만원

010-4233-3459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中 '가장 잘 생긴 스님' 젊은층 인기 폭발

저장성 푸안 사찰 주지 시 밍신 스님

훈훈한 외모, SNS 포교로 인기
스님 보기 위해 방문한 신도들로
사찰, 때 아닌 문전성시 이뤄
젊은층, 쉽게 불교 알려줘 '열광'

중국의 한 사찰이 한 비구 스님 덕분에 때 아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훈훈한 외모와 활발한 SNS 포교로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국의 온라인 매체 'Sixth Tone'은 최근 중국서 '가장 잘 생긴 스님'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 밍신(Shi Mingxin) 스님을 3월 2일 소개했다. 시 밍신 스님은 187cm의 큰 키와 넓은 어깨, 깊은 눈매, 부처님을 닮은 긴 귓불로 중국 동부 저장성(Zhejiang)에 위치한 조용한 사찰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Sixth Tone'은 "시 밍신 주지 스님을 따르는 팬들이 엄청나다"며 "이들은 SNS상에서 스님을 추종하는 것 뿐 아니라, 스님을 직접 보기 위해 스님이 주석하는 푸안(Pu'an) 사찰까지 먼 거리를 마다않고 방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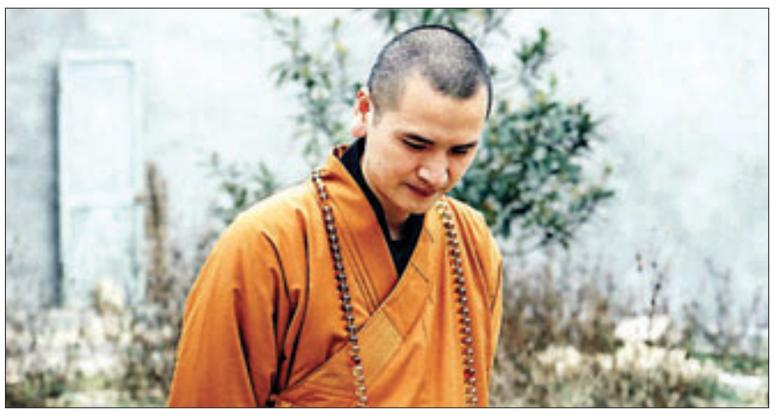
푸안 사찰 외에도 다른 지역 사찰 한 곳의 주지도 겸하고 있는 시 밍신 스님의 신도는 50만 명을 육박한다. 최근 중국서 불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스님의 인기는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수행자가 외모로 인기를 끄는 것이 부담스러울 법하지만 시 밍신 스님은 "동기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부처님을 많이 찾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찰을 방문합니다. 저를 알고 싶어서겠죠. 이유야 어떻든 사람들이 사찰을 방문하는 자체가 신행생활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불자들이 저를 보기위해 사찰을 찾아도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는 것은 빼놓지 않죠."

시 밍신 스님은 26세 때까지 불교에 큰 관심이 없었다. 지방정부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비디오 게임을 즐겨하고, 일본 만화 '원피스'에 열광하는 청춘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찬불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비교적 보수가 좋고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항상 제 삶에 대한 어떤 것을 찾는데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 불행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죠. 인간으로서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찬불가가 주는 메시지가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직후 시 밍신 스님은 출가를 원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큰 산이었다. 중국 사회서 승가의 명성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출가하기 위해 다른 도시의 한 사찰로 도망쳤지만 부모님이 찾아와 스님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일도 있었다.


최근 중국서 훈훈한 외모와 활발한 SNS 포교로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시 밍신 스님.
사진출처=Sixth Tone

"부모님 때문에 잠시 출가의 뜻을 접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3년 후 베이징에 위치한 불교학술원에 다니며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교를 공부하는 수준이었지만,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출가를 통해 고통을 버리고 행복을 얻고 싶다'는 발원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출가한 시 밍신 스님이 가장 먼저 세운 원(願)은 불교에 대한 나쁜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자신의 부모님이 출가를 극도로 반대한 이유 중 하나기도 했던 팽배한 불교에 대한 불신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 방법으로 시 밍신 스님은 SNS를 택했다. 스님들이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단 편견을 깨트리기 위함이었다. 스님은 경전구를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지만, NBA 농구 영상이나 일본 영화 등을 올려 젊은층과 소통하기도 한다.

스님의 '웨이보(Weibo)' 팔로워 위안 시아퀸(Yuan Xiaoqin · 29) 씨는 "시 밍신 스님은 기존 스님들에 대한 편견을 깨트렸다. 모든 승려가 독선적이고 지루한 줄 알았지만 스님은 젊은층과 소통하며 불교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이러한 포교법에 대해 기존 중국 불교 지도층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스님은 개의치 않는다.

"제가 스님이 되려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님과 얘기하기 위해선 먼 길을 지나 절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람들이 더 쉽게 스님들과 소통하고 불교를 접하길 원했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박아름 기자

BDRC, 티베트 佛典 보존 프로젝트 돌입

"티베트 불교 경전 전면 디지털화 할 것"

티베트불교자료센터(Tibetan Buddhist Resource Center: TBRC) 센터가 불교디지털자원센터(Buddhist Digital Resource Center: BDRC)로 명칭을 변경하고 티베트 불교 경전 보존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BDRC는 3월 1일 공식 홈페이지(www.BDRC.com)를 통해 "불교계 전역에 있는 티베트 불교 경전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착수했다"며 "이는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BDRC는 1999년에 설립, 티베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1200만 페이지 이상을 보존해왔다.

수세기 동안 필사본과 목판 인쇄물로 이어져온 불교 경전은 BDRC만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보존돼 왔다.

BDRC 중앙위원회는 많은 불교 경전들이 분실될 위험을 막기 위해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중국어로 번역된 티베트 불교 경전들도 포함시켜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중앙위원회는 "이번 사업은 역사상 최초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불교 경전을 디지털 자원으로 아우르는 작업으로, 불교의 핵심 원전자료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DRC는 이사회가 우선순위로 정한 문서들에 대한 보존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와 에코시스템 보존방식을 구축하며, 사용자가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웹상의 모든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연결하는 '개방형 연결 데이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BDRC는 3월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교계 전역에 있는 티베트 불교 경전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최첨단 디지털 라이브러리 방식을 적용, 아카이브를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BDRC는 온 · 오프라인으로 티베트 불교 경전이 공유될 수 있도록 경전 원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언어로 접할 수 있도록 번역작업도 한다. 또한 학자, 번역자, 기술자, 도서관 사서 및 일반인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해 불교 경전의 이해를 돕는다.

BDRC관계자는 "BDRC는 '야자수 잎 재단' 위원장 피터 스킬링의 도움으로 빨리어로 적힌 야자수 잎을 스캔하기 시작했다"며 "많은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역사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지원은 미래 세대에 숭고한 가치를 전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명상으로 고도 집중력 발휘… 우수 성적 '견인차'

호주 유명 선수들 명상 생활화 '눈길'

엘리트 선수들만이 살아남는 스포츠 세계에서 운동선수들은 항상 상대편을 이기고 극한의 상황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 방법으로 호주의 유명 운동선수들이 마음챙김명상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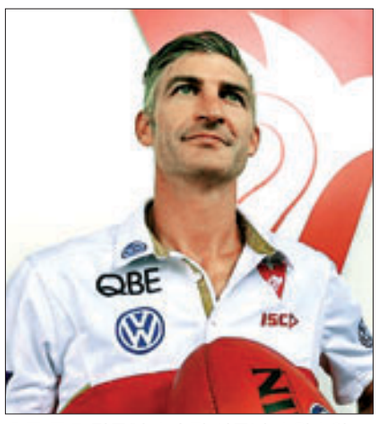
호주 풋볼 리그(Australia Football League, 이하 AFL)에 소속된 시드니 스완스의 부코치 브렛 커크는 매일 명상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

20대 때 AFL선수로 뛰던 커크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의 죽음을 겪고 나서부터 명상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명상을 했고, 그 효과는 짧은 시간에 결정적 선택을 해야 하는 스포츠에서 두각을 발휘했다.

커크는 스포츠계의 정상을 차지하는데 명상이 도움이 됐다고 믿고 있다. 그는 "축구는 복잡한 삶과도 같다. 마치 카오스적인 상황에서 게임하는 것과 같다. 명상은 이런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명료함을 갖게 한다"며 "예전에는 운동선수들이 명상 대신 요가와 냉욕(冷浴)을 했다. 이제 나는 매일 명상을 하지 않으면 양치질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커크는 "많은 젊은 남성들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헤어 나오지 못한다"며 "나 역시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으나, 명상을 하게 되면서 내면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호주의 유명 크리켓 선수인 캠 반크로프도 명상을 생활화한 인물 중 하나다. 24세 때 명상 지도교사로 변신한 그는 "명상을 시작한 후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집중은 계속하면서도 매우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는데, 꾸준한 명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주 풋볼 리그에 소속된 시드니 스완스의 부코치 브렛 커크(사진)는 매일 명상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
사진출처=ABC 뉴스

반크로프의 코치이자 전직 선두 타자로 활동한 저스틴 레인저는 그의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명상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명상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무념무상의 상태를 취할 때 당신의 마음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호주대학 스포츠건강과학과 샌디고든 교수는 "명상을 한 운동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보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적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고든 교수는 "뇌의 기능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뇌는 용서, 자기연민, 타인을 북돋우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 마음수행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中 강경파, 뇌 빈 부류"

중국 외교부 "기만적인 배우"라며 날 선 공방

달라이 라마가 중국 내 강경파들에 대해 '뇌가 빈 부류'들이라고 혹평하자 중국 외교부는 달라이라마를 '기만적인 배우'라고 받아치며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등 외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3월 5일 HBO 채널의 '라스트 위크 투나잇 쇼'와 인터뷰서 "중국의 계획은 인간의 두뇌를 사용하지 않은 근시안적이고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중국이 다른 국가와 달라이 라마의 접촉을 방해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다.

특히 그는 "중국 관리들의 뇌엔 상식이 결여돼 있으며, 강경파들은 뇌 일부가 비어있다"고 이례적인 힐책을 퍼부었다. 또한 달라이 라마는 자신이 티베트 불교 영적 계승자의 마지막 달라이 라마가 될 것이라 말하며, 중국의 방해로 인해 지도자 승계절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경솽 대변인은 7일 입장을 발표하고, 달라이 라마를 '오락 프로에 출연한 기만적 배우'로 지칭하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솽 대변인은 "14대 달라이 라마는 종교 의상을 걸친 채 반중 분리 행각을 펼치는 정치 망명자"라면서 "이제는 기만적인 연기에 아주 능한 배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m, 5m, 7m, 8m, 10.5m, 13m, 20m, 30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정서는 축적돼 내 삶으로 나타난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⑥



영적 에너지가 삶을 바꾼다

요즈음 필자가 보는 TV의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조연들의 얼굴 표정을 보노라면 저절로 우울해진다. 드라마의 전 과정에서 부부간의 불만으로 인한 언쟁과 증오, 동료 간의 경쟁으로 인한 질투와 모함 등 가식적인 만남의 모습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같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졸이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여 즐겁지 않는 정서를 갖게 한다. 드라마 스토리에 따라 출연자들이 그렇게 연기를 하겠지만 그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내내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뭔지 모르게 에너지가 떨어진다. 이러한 드라마로 인해 불안하고 가슴 졸이는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는 반대로 즐겁고 평화로운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정서이든 인간의 내면에서 지속적이 될 때 그 정서는 그대로 축적되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모습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면에 있는 영적 에너지는 그 사람의 외적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꿔준다. 내면의 변화가 외적모습을 바꾼 한 사례를 보자. 귀신과 요괴의 상을 조각하는 조각가가 있었다. 오랫동안 귀신과 요괴를 조각하다보니 그 조각가의 얼굴은 점차 요괴처럼 추악하게 변해갔다. 사람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추악해졌다고 했다. 병원을 찾아 그 원인을 물었으나 알 수 없었다. 한 대사가 확신을 갖고 말했다. "당신의 모습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귀신과 요괴의 조각 대신 100개의 불상을 조각하세요." 처음에는 귀신 조각상과 비슷했던 얼굴이 차츰 불상을 비슷하게 닮아갔다. 사람들도 그의 모습을 보고 더 좋은 인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조각가의 의식이 귀신이라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모습을 조각하는 동안 그의 생각은 귀신의 이미지로 가득하여 요괴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자애로운 불상의 모습을 조각하는 동안은 밝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가득하여 불상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 사례가 말해주듯 밝음과 어두움 어느 쪽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의식은 달라지고 그 의식은 외형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인간의 외적인 모습은 내적 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내적 의식은 본질적인 것이며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힘은 그것이 가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영적인 힘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힘을 가질 때 그에게 힘을 주고 창의적 생각들을 의식 속에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허물어질 때조차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염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자란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난다. 15년 전에 필자는 명상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터전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여러 곳을 살펴보았지만 어느 곳도 명상센터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 터전을 찾는 일을 멈추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금의 명상센터가 있는 곳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냥 산책하듯이 농로를 따라 조그만 언덕에 올라섰다. 언덕에 올라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 저절로 '아, 이런 곳에 명상센터를 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감탄을 했다. 전면에 보이는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오름과 오름의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 좌우로 감싸듯 울을 이루는 숲,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평지, 말 그대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자리였다.

필자의 마음이 간절해서일까? 농로를 따라가다가 마침 밭에서 김을 매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느닷없이 "혹시 이곳에 나온 땅(매물)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수긍하면서 주변을 돌아본 뒤 나오면서 "아주머니, 수고하세요"하고 인사하는데, "아저씨, 아저씨, 며칠 전 저기 풀밭에 몇 사람이 다녀갔습니다"라고 하지 않는가. 그 말에 필자는 가슴이 뛰었고 소위 필(feel)이 꽂혔다.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으로 주인을 만나 그 땅을 매입하였다. 지금의 제주국제명상센터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내 안의 염원이 자라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 "내면에 따라 변하는 외형은 영적 힘이 갖는 중요성 의미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감정 놓을 때 문제 벗어나"

몸은 마음을 표출한다

웨인다이어(Wayne Dyer)는 〈마음의 습관〉(2001)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기연민이나 상처, 슬픔, 두려움, 의심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모든 문제에는 마음의 해결책이 있다' 고 생각하고 이곳 병실에 마음의 힘을 불러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마음의 존재' 라고 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우선 두려움과 걱정대신 사랑과 존경과 경외감으로 병원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농담을 던졌고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서히 두려움과 걱정, 의심 등이 사라졌다. 밝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졌다. 그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내면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데 쓰인다고 보았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면에 어떤 이미지를 품느냐가 우리가 삶에서 장차 얻게 될 바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에너지를 형성하고 그것이 외부로 방사되어 우리 삶의 상황들을 창조한다고 본 것이다.

호킨스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품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몸은 마음이 간직한 신념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표출한다. 겁 많은 사람이 어떤 병에 두려움을 갖게 하기는 매우 쉽다. 몸은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이며 바이러스는 잘 옮는 것, 전염되는 것이라는 마음의 신념에 복종한다. 그 결과 몸은 마음이 간직한 신념대로 제어되어 감기를 현실로 나타낸다.

호킨스는 유행병은 사실상 대중매체가 창조한다고 보았다. 건강의 위험에 대해 '경고' 할 때 공포에 기초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는 공포의 대상인 그 일이 일어나게끔 정신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어떤 연구에서 여성들에게 월경기간을 2주 앞당기는 호르몬 주사를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식염수로 된 위약을 주사했다. 그런데도 70% 이상의 여성들이 육체적 심리적 증상을 모두 포함하는 월경 전 긴장 증상을 일찍 보였다. 생각을 품으면 생각이 자란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만들어낸 모습이 탄생한다.

오늘날 사회는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 인간의 영적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욕망이 목적이 되는 자기중심주의나 성취에 대한 자만심, 그리고 감정적 집착이나 무관심은 모두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로써 진정한 삶의 길을 가로 막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의 작용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단지 더 나은 생각을 하지 못했거나, 더 잘 할 수 없었거나, 자신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란된 생각과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영혼의식을 왜곡시키고 제한시켜 지성을 흐리게 한다. 영혼의 본성인 순수의식은 변함없는 상태로 남아있지만 생각의 작용이나 감정적인 상태에 깊이 빠짐으로 인해 그 본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마음을 자기치유로

서두에서 제시했던 드라마의 부정적 감성의 훈습은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즐겁지 않은 삶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명상센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필자의 간절한 소망이 무의식으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웨인다이어의 깨어있는 마음으로 인한 행동이 자기치유로 이어지는 것은 삶을 보다 의욕적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정서에 영향을 미쳐 불안하고 우울하며 긴장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슬픔에 빠지거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상태가 된다. 이를 뇌의 부정적 편향성(negativity bias)이라고 한다. 이러한 편향성은 우리의 뇌가 쾌감을 주는 자극보다 고통을 주는 자극을 훨씬 빨리 받아들이고, 공포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표정은 행복이나 만족감 같은 긍정적 표정보다 재빨리 인지한다. 그리고 불쾌한 경험은 유쾌한 경험에 비해 쉽게 기억되고 오래 저장되며 한번 상처받은 마음을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몇 배의 긍정적 경험을 되풀이해야 한다. 따라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황하는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멈추게 하거나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괴로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명상수행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호킨스에 따르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난 오래된 문제는 해결을 위한 답을 찾기보다 문제 이면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즉 문제 밑에 깔린 감정이 어떤 것인지 면밀히 관찰하고 그 감정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내려놓게 되면 감정에 관련된 생각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생각이 만들어낸 잘못된 삶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창조한다. 내가 진심으로 약속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나의 의지가 확실할 때는 의식의 에너지가 집중되고, 그 의식은 내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뻥뻥!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름,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심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육임 직접 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 각 60만원
  월령도
  주역,명리,성명학 - 각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연정사 운암 합장

건강을 위한 하루 한시간!
템플라이프 선무도!

고요히 나를 보는 명상
굳은 몸을 풀어주는 선요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발차기!



선무도 기초 1년 과정 모집 중!

종 로 02-763-2980
서 초 02-599-5554
서대문 02-735-5349
송 파 02-3431-4889

www.sunmudo.kr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 세계선무도총연맹

한국최초!! 내 손 안의 육임

◆무료강의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후 4시
(미리 접수바랍니다)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❶ 동영상 강좌 : 250만원 ❶ 직강 : 300만원
❸ (내손안에 육임) 프로그램 : 450만원
❶+❷+❸ 合 600만원 (개별구입 가능)
※ 각종카드, 할부금융 - 무이자 18개월 할부 가능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육임이 보인다」 저자



대행 스님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고 옛 사람들도 없습니다!

옛 산도 옛 물도 옛 사람들도…

질문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는 물이 옛 물이 있을쏘냐.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더라." 하는 이런 내용의 한시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중생들도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면서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합니다. 저희가 흘러가는 곳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전에도 그런 시를 읊었는데…, 지금 보니 옛 산도 옛 물도 옛 사람들도 없다고요. 그렇게 없기에 있다 없다 하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라고 말들을 했죠. 옛 산이 있고 옛 물이 없다면 그건 한 부분에 속한 얘기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볼 때 옛 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습니다. 묵묵히 그대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 그대로 살아 있기에 옛거다, 옛것이 아니다 그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가다 보니까 이 육체로 인해서 옛날이다, 지금이다, 조상이다 또 그 조상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이다, 재작년이다, 올이다, 내후년이다 하고 말들을 해 놓은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살아나가자니 질서를 지켜야 하고, 문란치 않게 스스로 정립을 하고, 그러기에 이름을 지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속된 꿈이지마는 지속된 실상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된 삶의 근본을 알고…. 그 근본의 도리가 생로병사라고 하고 또는 고집멸도 사제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진화력을 얻어서 탈바꿈을 하고 자꾸 지속된 한 발을 떼어 놔야겠기에, 결국은 진화라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정을 고가 없이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해서 고집멸도라고 말씀을 했겠죠. 사계절이 그대로 돌아가듯이 인간도 추위를 무릅쓰고 또는 더위를 무릅쓰고 또는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떨어졌다 피고 떨어졌다 피고 이렇게 지속되는 나날을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계발을 한다면, 즉 말하자면 나무와 나무를 접을 붙여서 열매와 열매가 모양이 달라져서 나오게 만들고, 그 연관성으로 인해서 진화력으로써 창조력을 키우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는 정신 개화가 되고, 나아가서는 마음의 실상이, 즉 생명의 실상이 그대로 마음으로서, 한마음으로서 존재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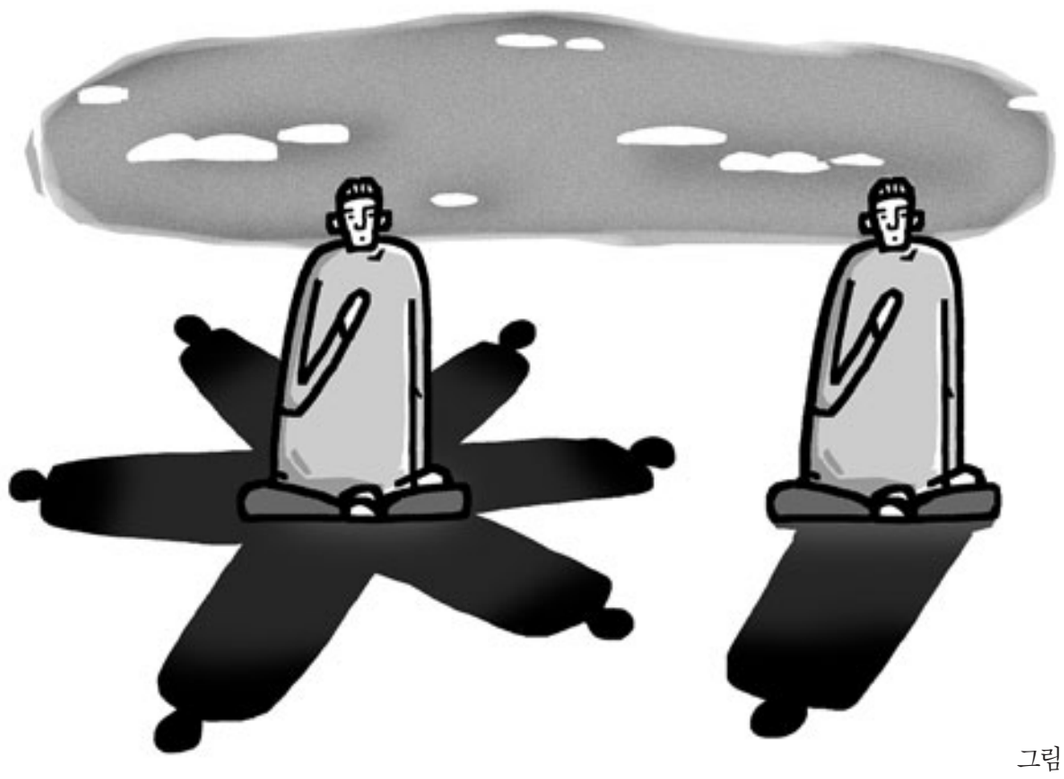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촛불이 있다 할지라도 성냥을 그어대지 않으면 불이 되지 않듯이 그거는 누가 켰든 간에 내가 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켜진 겁니다. 그것은 촛불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불이죠. 그러니 안팎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부 여러분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나의 그 생명의 실상이 있기에, 거기는 없다 있다 하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기에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실상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몸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자기라는 그 자체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움죽거리고 있죠. 꿈을 꿨다 안 꿨다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이지만 항시 밤낮이 없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자도 잠이 없고 낮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없고. 여러분은 몸이 다니니깐 내가 다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나 아닌 참나가 있기에 바로 내가 움죽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꿈엔 꿈대로 내가 움죽거리는 게 아닌가요? 바로 나 아닌 내가. 그 분신이 움죽거리고 있는 그건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적인 환상입니다. 꿈에 본 자기도, 꿈에 본 상대도, 현실의 나, 이 분신도 바로 현실의 상대고요.

생각 없는 일을 하는 법이 없고 생각 없는 일을 설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나기 이전에 인연의 소치로 만난 인연들이죠. 인연들이 꿈에는, 우리가 하루를 지낸다 하면 바로 일 년을 지낸 듯이, 그렇게 하룻밤에 일 년을 지낼 수도 있고 삼 년을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수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살다가 끝을 마치지도 못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선 깨다 보면 새로 한 시다, 새로 두 시다, 세 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깨 보니깐 그렇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룻밤에도 몇 차례씩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에 도달해 있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 시간을 따지면서 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따질 필요도 없는데 왜 그걸 따져야 하느냐. 한두 사람이 산다면 따질 필요도 없지만 천차만별로 모두 여러 생명들이, 아니 여러 물체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시간도 정해 놓고 해도 정하고 달도 정하고 날도 정했죠.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는 충성이나 효도도 없을 것이고 아주 고등 동물의 그 행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단군께서 그렇게 질서를 지키게 해 놓으셨던 거죠. 그러자 마음을 기르라고 석가가 탄생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생긴 원인도 바로 그래서 생긴 게 아닐까요?

가끔 여러분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혼자 앉았지만 나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거에도 현실에도 미래에도, 우주 삼세를 두고 말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 하면 억겁을 통해서도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몸바꿈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과거'라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과거에 수없이 탈바꿈을 해 가지고 자기 형상을 형성시켰건만 자기는 그것을 아예 모르는 채 지금 현실에 형성된 내가, 바로 내 모습이 난 줄 알고 시간만 따지고 급급해서 날짜만 보고 애를 쓰고, 내가 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고 옛 사람들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언어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작용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자기의 마음의 지혜에 따라서 인연의 업보를 지을 수도 있고 인연의 업보를 부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의 업보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자꾸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매사를 자기가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보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습은 지속될 수 없지만 참 자기는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참나는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라고요. 유생 무생이 한데 합쳐지고 일체 만물이 다 합쳐진 이 내공에 의해서 모든 것은 자기가 할 탓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깐 그대로 아니다 기다 이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 꿈이다 생시다 이러한 게 붙지 않는 자리, 즉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이 붙지 않는 자리, 생사윤회라는 말이 붙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내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달을 할 수 있고 상신할 수 있고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 즉시에 모든 것을 놔 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놓으면서도 그대로, 하고 가는 것이 놓고 가는 것이기에 생각났으면 어떤 사람은 재깍 해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아, 내일 해도 괜찮은 건데, 뭐.' 그러고선 미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격은 몸으로도 금방 생각나면 생각나는 자리에서 해치워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거든요. 또 내일 할 일이라면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항상 그대로 여러 가지를, 억겁 천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옛 산은 있어도 옛 물은 없다고 한 말은 그것은 사량에 의한 말이지, 본래 옛 산도 따로 없거니와 옛 물도 따로 없고 옛 사람들도 따로 없다 이

☞ A18면으로 계속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참나는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소립니다. 삼천 년 전에도 이러했고 삼천 년 후의 오늘에도 이러할 겁니다. 옛날의 부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옛날의 그 부처가 있기 이전에 부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 생각을 하면 참 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한생각을 다시 돌이켜 봅니다. 나는 뭐, 애당초부터 알았나? 내가 옛날에, 벌써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전에 그 모르는 거를 알았다 할지언정, 여러분도 모르는 거를 지금 알았다 할지언정 그것이 삼십 년 전에 알았고 바로 지금 알았다고 해서 어찌 그게 둘이겠는가. 삼천 년을 삼 일로 칠 수도 있고 하루로 칠 수도 있으니 어찌 그게 둘이라고 보겠습니까? 옛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 반면에 새 사람도 아닙니다. 새 산도 아니고 새 물도 아닙니다. 헌 물, 헌 산, 헌 사람들도 아닌 반면에 새 것, 새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들을 보십시오. 옛것들도 아니고 현재 것들도 아닙니다, 그냥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 청청한 푸른 산의 풀잎들도 옛 풀도 아니고 지금 현재 풀도 아닙니다. 그것도 풀잎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름을 다 갖추어서 가져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풀 이파리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지었을 뿐입니다. 이름을 본래부터 가져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버섯 종류도 여러 이름들이 많지만 요즘 영지버섯이라고 이름 나온 것도 그 버섯을 사람들이 실험해서 보니까 아주 영약이라고 해서 영지버섯이라고 했지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 놓고 부르는 거지 본래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건만 그 버섯 종류의 실질적인 근본이 아주 남한테 이익하게만 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름도 영지버섯이라고 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사슴뿔을 용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서 지은 겁니다, 모두. 그 물건을 봐서 실험해 보고선 '아, 이건 용으로 이름을 지어야겠구나.' 그걸 먹으면 용기가 왕성해지고 기운이 나고 그래서 활동을 잘 시킨다고 해서 용이라고 했겠지요. 모든 것은 그렇게 해서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물은 안 그렇습니까? 제자리에서 있는 것이 물입니까? 고정되게 제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물이 아닙니다. 흘러서 또 나가고 흘러서 들어오고, 흘러서 나가고 흘러서 들어오고 이러는 것이, 흘러서 나가도 줄지 않고 흘러서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한 그 연결됨이 바로 우리의 마음, 즉 말하자면 과거생으로부터 마음이 연결되는 거지 육신이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육신도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다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옛 산은 있어도 옛 물은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합디다마는 그거는 당치 않은 소리라. 그건 내 생각에 당치 않은 생각이니까. 또 그것도 고정되진 않습니다. 내 생각에 말입니다.

공부가 여일히 되질 않아요

질문 금강경을 아침저녁으로 독송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공부가 통 여일히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공부가 여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얘기 또 해야 되겠군요. 옛날에 어느 도량에서 학인들이 결제가 되면 한 철에 모여서 참선을 하든가 경을 읽고, 해제가 되면 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결제가 돼서 다들 들어왔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너희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들어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전부 무슨 경을 읽었다 무슨 경을 읽었다 하는데 한 분만은 "너는 무슨 공부를 했느냐?" 하니까 "저는 잠자고 밥 먹고 똥 싸고 있었습니다." 하거든요. 그렇게 똥 싸고 밥 먹고 잠잤다고 하는 말에 "예, 이놈!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잠만 자고 똥만 싸고 그렇게 했으니 너는 부목이나 해라."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부목을 하면서 나무를 들고 패서 스님 방에 불을 때느라고 그 앞을 자꾸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스님께서 노래를 했답니다.

어쩌다가 벌이 말입니다, 벌 있죠? 벌이 어쩌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건 입산한 걸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벌이 방에 들어가서 유리가 반사가 되는 거를 보고 그것이 문인 줄 알고 자꾸 입으로다가 거기를 쪼니까 고만 입이 뭉그러져 떨어졌거든요. 쪼다가 몸이 떨어지니까 입도 떨어지더라. 그게 아니라 말이 떨어지더라는 얘깁니다. 몸이 떨어지니깐 입도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니깐 말이 떨어지더라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몸으로써, 사량으로써 책을 보고 이론으로다가 이거를 알고 그런다면 이 몸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참 내면세계의 참나를, 참나인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만 있다면, 몰락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내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사량적인 마음으로써 물질을 보고 그것을 글자 풀이를 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진짜 금강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경을 누가 읽나?' 그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누가 읽고 있을까?' 하고.

> **생명의 실상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몸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 **자기라는 그 자체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움죽거리고 있죠.**

양심의 가책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질문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정도의 죄를 짓고도 어떤 사람은 아주 가책에 못 이겨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죄를 좀 지었기로서니 그게 뭐 그토록 가책 받을 일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지요.

답변 그게 두 가지가 다 글러요. 두 가지가 다 나쁘다고요. 가책을 받지 않을 일이라면 그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저 가서 사과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책 받을 일, 아예 그렇게 하려면 하질 말아야 되겠지요. 또 '그까짓 걸 뭘 그래? 가책을 뭘 받아?' 이러고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 앞에 돌아오게끔 돼 있죠. 그러니 우리가 그 가책을 받는다 한다면 양심이라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다음에 그런 짓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괴로워서. 그렇지만 '그까짓 걸 뭘 가책을 받아?' 이럴 때는 그 사람은 능히 그런 일을 더 저지르고도 남음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기 이전에 잘못하질 않는다면 회개도 할 것이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혹시나 잘못되는 일로 갈까 두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거를 주인공에 맡겨 놔라." 이럴 때 '야, 그럼 나쁜 도둑질을 하고도 맡겨 놓으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주 짚고 넘어가는 말이 있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상식과 도의, 의리, 도덕을 갖추어 가지고 나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서 부모에게 묵은 빚을 갚으며 자식들에게 햇빛을 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 중도의 참,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인간의 참마음이 우리 인간들을 조성해 내지 않았나. 그렇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약에 "도둑질을 해도 거기다 맡기면 되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아예 대꾸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마음 자체,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음부터 헤아려야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우주 만물만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는 참,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그 뼈다귀 없는 뼈다귀를 세세생생에 우려먹어도 그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젖 같은 그 물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고 끄달리지 않게 하는 보배예요. 우려도 우려도 줄지도 않고, 갖다 부어도 부어도 늘지도 않고 항상…. 세상에 그런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라도 부처님 하나만 모셔 놨다 하면 밥은 굶지 않으니 도대체 그 보배는 어떻게 생긴 보배기에 그렇게 좋단 말입니까. 거죽 모습으로 생긴 것도 갖다 놓기만 하면 먹고 살게 해 주는데 하물며 모습 아닌 그 보배는 얼마나 윤택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말이에요. 아니, 가고 오고 그런 것도 없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주인공과 나의 주인공

질문 부처님의 주인공이나 저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라 그러시는데요, 부처님의 주인공은 무명을 일으키지 않는데 저의 주인공은 왜 무명을 일으킵니까?

답변 무명이 달리 무명인가요? 그 도리를 모르니까 무명이지. 무명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명이 붙지 않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잠재의식 깊은 속에 만약에 녹음테이프가 하나 있다면, '일심이라면' 하는 소립니다. 그 공한 일심이라면, 자기 주인공 그 자체가 테이프라면 말입니다, 녹음이 된 데다가 다시 녹음을 하고 또 녹음이 된 데다 다시 녹음을 하고 자꾸자꾸 이렇게 가면 그 앞서 녹음한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다면 그것은 무명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대로 놓고 가는 것입니다. 무명이라는 것도 이름을 붙여서 무명이지 무명이 없으면 부처를 이루지 못해요. 망상이 없어도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소? 그럼 목석이고 송장이지. 또 생명의 그 근원, 뿌리만 있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예요.

그래서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근본적인 생명의 그 뿌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양면을 다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런 뜻은, 넓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런다면 위로는 부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라는 그걸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하나를 놓고 축소해서 작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 위로는 참자기 그 자체를, 참자기를 존중하면서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를 올바르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아야 남도 올바르게 끌어 주지 않습니까? 내 행동이 발라야 남의 행동도 스스로 "저 사람 정말 배울 만해. 말과 뜻과 행이 올바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될 때, 하나라도 어긋날 때 그것은 업보가 되고 유전이 되고, 바로 무명이라고 이름해서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명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부처라고 붙일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돌아가려니까 뭐든, 돈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고 또는 물건에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으니까. 어린애를 낳아도 이름을 붙여서 "아무개!" 이래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 놓은 것뿐이지 이름이 사실은 그 사람 진실, 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그 이름이 대동소이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했다는 얘깁니다.

그거고 저거고 다 한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쁜 마음이 나오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좋은 마음이 나오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좋은 마음이 나오면 좋은 행을 할 것이고 나쁜 마음이 생기면 나쁘게 행을 할 것이니까 자기 참주인공에 모든 거를 맡겨 놓고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 관하면, 그저 닥치는 대로 거기다가 관해서 의정(擬定)하면…, 모든 것을 의정(擬定)해서 놓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놓고 알면 아는 대로 놓았을 때 비로소 참 생명수의 근원이 나에게 홀연히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에 지금 이렇게 풍파가 많고 병이 많고 죽겠는데, 급해서 죽겠는데 무슨 주인공을 찾고 전부 거기다 맡겨 버리래? 아니, 난 지금 당장 급한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뿌리가 싱싱하면 가지도 싱싱할 것이고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파리도 싱싱할 것입니다. 이파리 썩고 가지가 썩고 그런다고 해서 애를 쓰지 마시고 뿌리만 싱싱할 수 있다면 그 가지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파리도 싱싱하게 아주 푸르를 것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 (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첫번째 공부모임을 갖게되었으니 동참 가능한 분은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 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2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2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 녀 평생 모십니다.

- 1인 1실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입주시 1천만원
- 부부실 :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입주시 3천만원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 불자 세상보기 |

패거리 · 학벌 문화 배우려 입학하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초봄, 3월은 학교 입학의 계절
신입생에겐 잔인한 3월로 변모

대학 OT선 '군기잡기' 판 치고
유치원 입학은 로또 당첨 같아
초등생들은 선행학습에 멍들어

학벌주의로 공교육 목적이 상실
세상 변하는데 우린 '학벌' 갇혀
신나고 재미난 학교, 못 만드나

3월이다. 해빙의 계절이고 설렘의 달이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의 달이다. 내가 사는 의왕시 백운고등학교 담벼락에 "헌 남학생 교복 구합니다. 175cm"라는 큰 쪽지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보니 3월은 입학의 계절이기도 하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공부를 하고자 하니 이 얼마나 찬란한 달인가? 그런데 누가 3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축복받아야 할 입학의 계절에 황당하고 우울한 소식이 지면을 장식한다. 대학 신입생에서부터 유치원 입학에 이르기까지. 이를 종합해 보면 마치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점의 집하장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일부 대학의 신입생 강압적 군기 잡기(이를 똥군기로 표현한다)와 성희롱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군대 문화에서 이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의견도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입대하여 서부전선 GOP사단에서 3년간 사병생활을 한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 신병이 오면 장기 자랑을 하게 하고, 여동생이 있느냐는 장난기 어린 질문으로 새 식구를 받아 들였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요즘 세대에서 폭력적 집단주의 의례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에서 만연한 권위적 서열 문화, 약자에 대한 갑질 문화, 조폭적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황당한 신입생 군기 잡기와 성희롱 사건은 바로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조 신임관료에 대한 신고식과 유생의 성균관 입학 신고식이 잔혹할 정도로 유별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의 붕당 정치의 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혹독한 신고식이 같은 패거리를 만드는 첫 관문의 의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대학은 그렇다 치고 유치원은 어떤가? 유치원도 명문이 있어 그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손녀의 유치원 입학 추첨에 직접 참여하여 당첨되어 길길이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에 나는 어리둥절했는데 자초지종을 들으니 이해가 갔다. 4번째 시도만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치원 교복 값과 교재비 등 입학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친구는 당분간 궁핍하게 지낼게 뻔하다. 유치원부터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할까?

초등학교 입학도 만만치 않다. 우리 시절에는 모두가 얼떨결에 초등학교 교정에 '나란히 나란히' 하면서 섰는데, 요즘에는 입학하기도 전에 선행학습을 위해 여러 학원을 배회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어떤 선행학습이 필요한지 궁금할 뿐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러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되새김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가는 꼴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에 비해 행복도가 매우 낮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제일 큰 원인은 '학벌주의'의 병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학벌주의로 인해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사라졌고, 교육의 주체는 도구화되었고,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길을 잃었다. 이제 입학은 학벌이라는 트랙을 달리는 출발점이 되고 말았다.

이 못된 학벌주의는 한국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생성된 경쟁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한국인은 그만큼 험하게 사납게 살아왔다. 제4차 산업혁명이니 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학벌주의의 액자에 갇혀있다.

불가에서 중생(衆生)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중생은 함께 사는 존재라는 뜻이다. 타자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타자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중생이다. 신나고 재미나는 학교에서 어린 중생이 한껏 춤을 추어야 하는데. 입학의 계절에 사나운 경쟁의 트랙에 들어선 어린 중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리다. 이를 어쩌랴.

社說

불교, 韓中 신뢰 회복 키워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 · 중 양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수입 및 소비 금지를 골자로 한 금한령과 한국관광 금지 등 양국 교류의 맥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이 한중 불교교류를 통해 양국 교류의 맥을 잇고 있다. 그 단체들은 108산사순례기도회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중국 불교계에서 영향력이 큰 저장성 설두사와 결연을 맺고, 5월 중 성지순례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3월 17일 중화전국청년연합회와 교류협약을 맺는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금한령 속에서도 교류를 성사시킨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신뢰'였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꾸준히 친선교류 활동을 해 온 파라미타 상인 스님, 그리고 중국 스님의 동국대 초청유학 등이 작용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삼국시대 때부터 불교전래를 시작으로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양국 스님들의 교류는 문화교류이자 지식교류, 정치교류이기도 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구법승들은 민간외교관 역할도 했다. 짧게 보아도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전부터 양국 불교계는 발빠르게 교류를 맺어온 역사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호혜적 관계로 보고 있다. 북핵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은 장기적으로는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할 과제란 것이다. 이런 과제 앞에 이제 불교계가 서있다. 불교계는 다시 한반 불교교류로 양국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갈등의 시대, 화쟁의 묘를 살리자

부처님 당시의 일이다. 카필라국과 콜리국은 본래 형제우애를 쌓은 사이였지만 큰 가뭄이 들자 다툼이 일기 시작했다. 두 나라 사이 강의 물을 더 많이 끌어오려고 한 것이다. 이를 안 부처님은 중재에 나섰다.

두 나라 왕을 불러놓고 부처님은 "물의 값어치는 얼마나 나가는 것인가?"라고 묻자 왕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부처님이 "병사들의 목숨과 피의 값은 얼마나 되나?"고 다시 묻자 왕들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답했다. 부처님은 물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친다는 것이 온당하냐며 왕들에게 다시 질문했고, 이들의 전쟁을 중지시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쪼개진 한국 사회 진영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보수와 진보, 양측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불교계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상반된 견해로 인한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런 갈등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양측의 논리는 같다.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 그리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격렬하게 상대방을 이기고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이 더욱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같다.

이제 남은 것은 부처님과 같이 양측을 모아 놓고 소통하고 그 가치에 대해 알려주는 중재자의 역할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다양한 사회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다.

탄핵으로 인해 민심이 분열된 지금이 바로 이러한 중재자 역할이 활발히 일어나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특별기고

불교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천석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본부장

봄날이 온다. 우리 생애에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온다. 잠시 왔다 다시 가야할 봄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기다려진다.

하지만 요즘 봄은 너무 짧아지고 있다. 사계의 구분이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조금 조금씩 봄과 가을을 도둑맞고 있다고나 할까.

어느 기상전문가에 의하면 앞으로 50년 후 한반도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 한다.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봄, 가을은 더 짧아진다. 또한 봄 가뭄도 심각해진다.

한편 지구 다른 한편에선 홍수로 난리다. 해마다 극심해지는 폭염과 추위, 그리고 점점 빈번하고 거대해지는 태풍. 한쪽은 가뭄으로 신음하고 한쪽은 폭우로 몸살을 앓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몸과 마음이 편치 않다. 원인은 편리함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파헤쳐 지고 있는 화석에너지. 이에 따른 온실가스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나는 지구온난화 현상. 지구온난화와 우리의 일상은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우리가 자행한 무분별한 에너지 개발과 사용이 이같은 업보(業報)를 낳은 것이다. 붓다는 연기법을 통해 나와 세상 일체 만물은 연결돼 있음을 설했다. 이를 새겨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지구 곳곳이 앓고 있는 몸살의 책임은 나로부터 시작돼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같이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좇다 직면하게 된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욕망'을 다스리는 길 뿐이다. 문명에 찌들어 키워진 욕망을 거두어야 한다. 소박한 삶을 강조하는 붓다의 가르침이야 말로 우리 앞의 재앙을 최소화하는 최상의 해결책일 것이다.

이에 '에너지절약을 통한 친환경세상 구현'을 표방하는 불교계의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에너지절약 ACE운동'이다.

3년 전부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시작된 이 운동은 에너지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사찰에 대한 에너지 진단(Audit)을 통해 에너지 낭비 요소를 분석,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진단에 따라 사찰도 이제 고효율 LED램프 교체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인다. 또한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며 환경보전에 앞장서 나간다.

한편으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간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나와 가정, 사찰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친환경적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에너지 문제는 이미 우리 불자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제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삶과 우리가 꿈꾸어야 할 삶,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 더 나아가 우리 불교계는 이제 지속가능 친환경적 삶을 위한 역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다.

혹독한 겨울을 헤치고 다가오는 따스하고 자비로운 봄볕이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계속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에너지 이용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절제 · 절약 실천운동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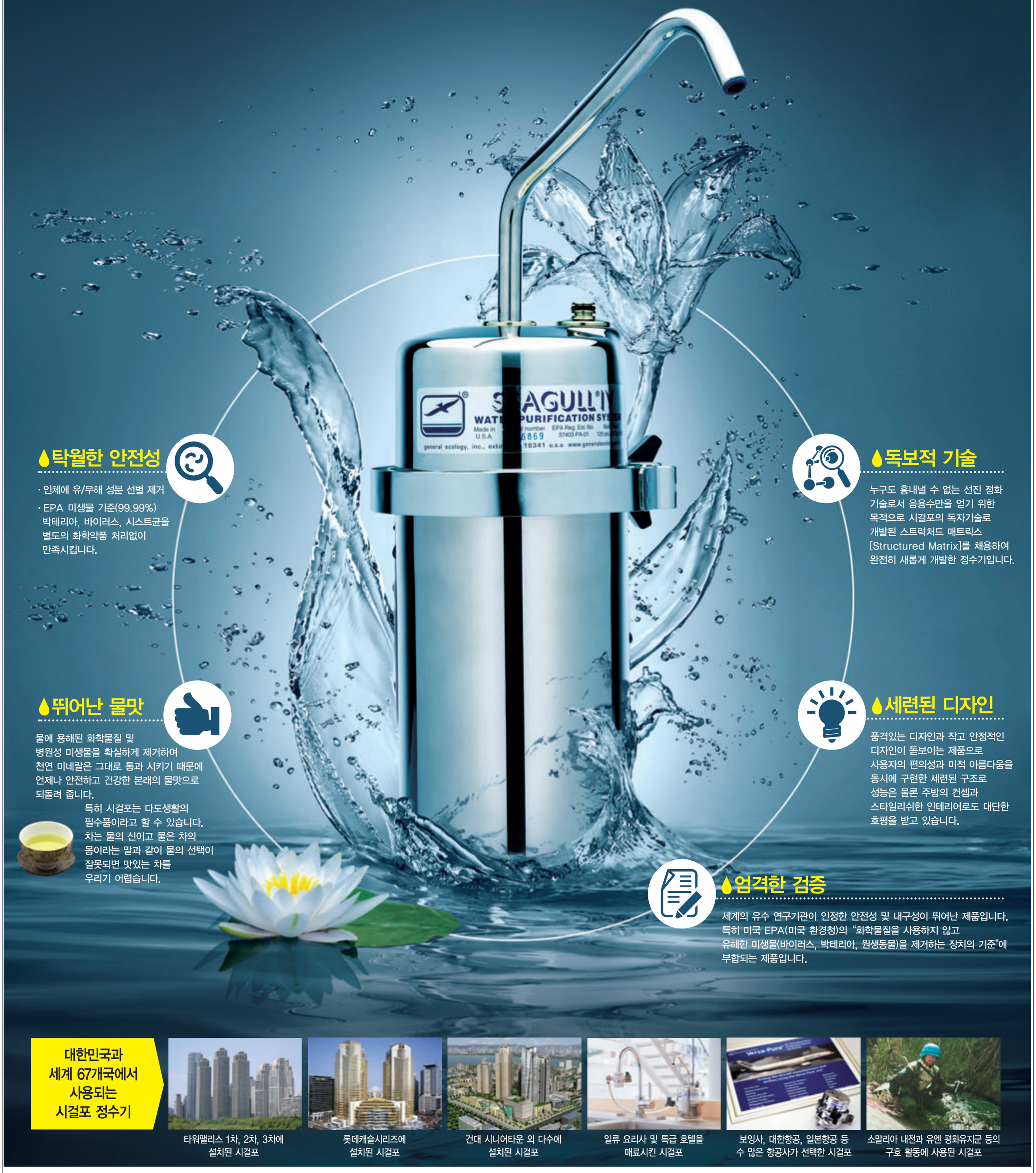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사찰의 감로수를 시걸포에서도 느끼세요!

시걸포는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천연수로서
대자연에서 정화된 암반수와 같은 건강한 감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안전성

- 인체에 유/무해 성분 선별 제거
- EPA 미생물 기준(99.99%) 박테리아, 바이러스, 시스트균을 별도의 화학약품 처리없이 만족시킵니다.

독보적 기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진 정화 기술로서 음용수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걸포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스트럭처드 매트릭스 [Structured Matrix]를 채용하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정수기입니다.

뛰어난 물맛

물에 용해된 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천연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 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본래의 물맛으로 되돌려 줍니다.

특히 시걸포는 다도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는 물의 신이고 물은 차의 몸이라는 말과 같이 물의 선택이 잘못되면 맛있는 차를 우리기 어렵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품격있는 디자인과 작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 세련된 구조로 성능은 물론 주방의 컨셉과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증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 인정한 안전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EPA(미국 환경청)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한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장치의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시걸포 정수기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에 설치된 시걸포

롯데캐슬시리즈에 설치된 시걸포

건대 시니어타운 외 다수에 설치된 시걸포

일류 요리사 및 특급 호텔을 매료시킨 시걸포

보잉사, 대한항공, 일본항공 등 수 많은 항공사가 선택한 시걸포

소말리아 내전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구호 활동에 사용된 시걸포

판매원 현대불교현불샵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제 품 문 의
상담 후 카다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080-866-1080

현대불교 Mandala

유철주 작가의
〈위대한 스승 청화 큰 스님〉 B4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제 1139 호 B1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3월 15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스님은 취임 이후 한국불교 포교 · 전법 역량 강화를 위해 '붓다로 살자'를 모토로 한 신행혁신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시대적 불교' 구현… 포교가 나아갈 길

리더에게 聽하다

취임 1주년 맞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포교원장 취임 1년간의 소회

원장 취임해보니 막막한 상황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의 1년
"이젠 종책 큰 방향은 설정했죠"

불자 300만명 감소 원인은

기복에 매달려 자력 신앙 상실
신행 바뀌지 않으면 미래 없어
'부처님 法대로의 삶' 복원하고
합리적·시대 맞는 신행 만들어야

한국불교는 지난해 12월 쓰디 쓴 결과물을 받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불자 인구가 300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처음으로 시행된 표본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내 "제대로 된 불교를 구현해왔는가"에 대한 자성론이 제기됐다.

불자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탈종교화 현상부터 포교 부재까지 다양한 진단들이 쏟아졌다. 더불어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바빠진 곳은 바로 조계종 포교원이다. 당시 조계종 포교원은 이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변화의 중심에는 그해 3월 15일 제7대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취임한 지홍 스님이 있었다. 그리고 지홍 스님이 제시한 것은 '신행혁신 운동'이다. '붓다로 살자'를 모토로 추진되는 '신행혁신운동'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당장 3월부터는 '신행혁신'을 의제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신행혁신 대중공사를 열고 전법 · 포교 강화를 위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청취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지홍 스님에게 1년간의 소회와 현재 한국불교 포교 진단과 나아갈 길에 대해 물었다.

Q: 3월 15일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으로 취임하신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2015년 동국대 총장 선출 문제로 말썽이 있었고, 당시 이사로서 총사퇴를 주장해 스스로 이사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의원과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까지 일체 공직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숙업인 포교에만 집중하며, 조용히 살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서 포교원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교원장직 수락을 권유했고, 결국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수락하게 됐습니다.

막상 취임해서 와보니 상황이 막막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데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었고, 포교원 산하단체도 풀이 죽어있었습니다. 자체적인 포교 계획이 없었어요. 여기에 지난해 12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나와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변화시켜야겠다는 다짐이 제일 컸죠. 지금도 '이 길로 가면 자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일단 포교 종책에 대한 큰 가닥은 잡았습니다. 지속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 포교원이 나아가야 할 종책의 줄기가 세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Q: 지난해 불교계는 300만 불자 감소라는 충격적인 통계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불교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은 한국불교가 시대를 좇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은 변화하는 데 불교의 신행은 과거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교의 현재 신행 방식은 1000년 전 무속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처님 가르침하고도 전혀 다르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본래 불교의 신행은 절대자에 구원을 비는 타력신앙이 아닌 스스로 수행하고 깨닫는 자력신앙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불교는 타력신앙 체계에 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을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이제 신행이 바뀌지 않으면 지식인과 젊은이들은 불교에 관심 갖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 신행을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포교원 중심 종책이고, 그것이 바로 '신행혁신운동'입니다. 미래 종교는 메시아적 계시 종교가 아닌 수행의 종교인 불교가 맞습니다.

Q: 탈종교화 현상은 탈제도종교화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명상 · 힐링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에서 변화될 지점은 없습니까.

제도권 종교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기성종교계가 기복적이고 권위적이며, 비합리적인 형태의 신앙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대중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제 불교는 시대정신에 맞는 불교여야 하고 신행을 해야 합니다. 불교의 신행은 수행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 방식이 일반 대중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수행만이 자신의 가치 지향성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데 수행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게 인식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행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불교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불교로 나아가야 하고, 포교와 전법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신행혁신'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발로입니다.

Q: 현재 한국불교 포교를 진단하자면 계층포교가 사실 붕괴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포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령자 포교는 미래세대 포교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사찰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다 너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사찰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도반과 스님, 부처님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는 절대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방문을 하고 병원에 있으면 문병도 갑니다. 스님들은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야 일반인이 연로해 집에 있거나 병원에 있으면 안 갑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습관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불광사는 지역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서비스와 더불어 어르신 돌봄이 법등을 조직해 15~20명이 활동목표를 세워 봉사를 진행합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열전

B5
문화
대만출신 조일죽 작가 개인전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 근본이자 목표

취임 1주년 ‘지홍 스님’

B1면에서 계속

사찰에 나오는 모든 어르신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죠. 어르신들은 인터넷 잘 못하니까 주로 전화로 연락합니다. 문병을 가거나 쾌유기도도 합니다.

이런 활동은 해당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만족도가 높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사찰에 연락이 오면, 장례 염불봉사와 49재 등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보면 가족들까지 사찰에 정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단 주요 사찰에서는 노인요양원 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면 사찰이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 사찰 신도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Q: 한국불교의 가장 문제는 미래세대의 부재입니다. 사실상 계층 포교 붕괴 현상 중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약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경제 등의 이유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고, 경기 약화로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청년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종교가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 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가 같이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종교와 철학에 관심을 갖긴 어렵습니다.

물론,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약화된 것은 현 불교계의 책임이 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님들의 인식입니다. 보통의 스님들은 시끄럽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죠.

또한,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다보니 사찰 재정에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활동하는 스님들도 많지만,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동련과 파라미타 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올해 파라미타 등이 주최로 개최하는 청소년국제캠프는 주목할만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국제캠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열린 달마 오픈 스노보드 대회도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모범사례입니다. 선수 160명이 참가했는데 가족들을 합치니 300명 이상 모입니다. 이곳 스님들이 시상을 하니 마치 불교 잔치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더군요. 이 대회를 통해 전문 선수로 나아가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창구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불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불하고 법회하고 절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흥미를 이끌기란 어렵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행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홍 스님은 … 1970년 부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1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및 포교부장, 1998~2004 서울 조계사 주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제11~16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1991년 광명 금강정사를 창건했으며 현재 불광사 회주와 중흥사 주지를 맡고 있다.

Q: 앞서 ‘시대에 맞는 불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에 맞는 불교’는 무엇인지요.

물의 모습은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 물은 비가 내려 모여 흐르면 돌에 부딪혀 부서지기도 하고, 계곡에서는 하나의 줄기로 흐르기도 합니다. 언덕을 만나서는 폭포가 되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 있을 때는 씻어내기도 합니다. 벌판에 이르러서는 도도히 흘러가는 힘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생명을 만나면 생명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모습도 그렇고요. 부정이 있을 때는 정의를 실현하고. 국정농단에서도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할로 불교가 가야 합니다. 그런 자세 취하는 것이 불교적이고 곧 중도입니다. 상황에 맞게끔 올바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중도적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불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미래의 상황에 맞게끔 말이죠. 중도적 관점에서 삶의 자세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다른 종교는 규정돼 있습니다. 불교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지혜를 제공해야 합니다.

Q: 포교원이 추진하는 ‘신행혁신’ 중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천편일률적인 기복신앙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건전한 기복신앙은 살려야합니다. 기복을 통해 신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발하게 하는 형식까지 없애면 안됩니다.

무너진 계층포교 대책없는가

나이들어 사찰 못 가면 인연 끝나
신도 문병·임종 도움 등 관심 필요
주요 사찰들 노인요양원 설립해야
청소년 신행프로그램 개발 고민 중

‘신행혁신’ 무엇을 담고 있나

건전 기복 유지… 이타적 신행으로
‘부처님 法’으로 돌아가는 게 ‘혁신’
중도 · 연기법 실천하는 者가 참불자
‘내 자신이 붓다’라는 생각 가져야

예를 들어 아이를 낳고 부처님 전에 고하는 것이나 자녀에 대한 지극한 발원이 있는 수능기도 등은 필요합니다. 제사를 지낸다든지 불교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시대에 어울리게 잘 가꿔야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신행 경력이 생기면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수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주석하는 불광사의 출가열반 정진주간에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주일 동안 정진하면서 ‘가장 나쁜 자신의 버릇 고치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108배를 하고 삼보예경을 다짐합니다. 장소 구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뽑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가족과 대화하고, 다른 이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등 6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된 행동들의 수행 여부를 매일 표에 체크하도록 했죠. 이를 통해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치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수행이기도 하고, 기도 성취이기도 합니다. 동기 부여는 자신의 신행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Q: 신행혁신의 중심에는 ‘붓다로 살자’가 있습니다. 이는 신행혁신의 기본 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전근대적 기복을 없애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신행혁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붓다로 살자’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생애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붓다로 살자’는 것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붓다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 양심적으로 사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적 사고로, 이기적인 가치로 살았다면 공동체적 삶의 가치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것을 모토 살며, 가장 나쁜 습성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니다. 또한 중도 · 연기적 관점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이 시대의 불자상입니다.

Q:이제 2년차에 접어듭니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사업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신행혁신’과 ‘붓다로 살자’입니다. 혁신이란 표현은 올해가 지나면 크게 쓰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붓다로 살자’만 남을 겁니다. 포교원에서는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춰 어떻게 사는 것이 붓다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을 세밀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실 ‘붓다로 살자’는 제가 포교원장 임기를 끝난 뒤에도 꾸준히 이어져야할 운동입니다. ‘붓다로 살자’의 가치와 사상은 불교의 선을 비롯한 다양한 수행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탄생, 깨달음, 전법, 열반까지도 일관되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실한 너를 등불로, 계율을 등불로,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말이죠. ‘붓다로 살자’는 변하지 않는 금강석과 같이 추진해야할 신행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불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처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신 것도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알리고자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이후 신과 인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났다고 하신 것은 바라문교에 의해 설정된 신과 인간 사회 계급구조를 타파한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생의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신행을 해왔습니다. 욕망이 요구하는 노예가 돼 살지 말고 법을 중심으로, 나 자신이 붓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도록 합시다.

지홍 스님은 지금이 한국불교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할 시기라고 봤다. 변화해 나아갈 지점도 명확하기 제시했다.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자력신앙으로의 회귀가 그것이다. 이제 2년차를 맞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펼칠 신행혁신운동의 행보가 기대된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 및 정리=노덕현 · 윤호섭 기자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⑥ 연종 제13조 인광대사(印光大師)

‘문자삼매’로 ‘염불삼매’ 대중화



“현생에 틀림없이 생사고를 벗어날 수 있고, 아승지겁의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친히 법신(法身)을 증득할 수 있으니, 이 정토법문은 여래의 일대시교(一代時教)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법문이며, 실로 일체중생이 닦아 지니는 모든 행법 가운데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긴요한 도문(道門)이다. 왜냐하면 정토법문은 부처님의 자비 가피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 인광대사 법어록

염불법문 수행법 체계화
양계초, ‘문자삼매’로 칭송
정토종 제 1도량 창건하고
13대 조사로 추존되다



그림 · 김홍인

견성해도 업습 제거해야 윤회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 가피력에 의지하는 정토법문의 이익과 수행자가 전적으로 자력에만 의지하는 일반적인 법문의 이익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다. 무간아비지옥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중생이라도 십념(十念)의 지극한 염불로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고, 이미 등각(等覺) 보살의 경지에 오른 성인도 10가지 큰 행원(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극락정토로 회향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참선과 정토는 근본 이치 상으로는 둘이 아니지만 윤회를 벗어날 확률은 참선이 염불을 따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참선은 확철대오 하고 보림(保任)을 잘 하여 완전히 증득하지 않으면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종과 교종의 이론과 실참에 두루 통달하고 염불삼매를 증득해 대세지 보살의 화신으로까지 존중 받은 인광(印光: 1861~1940) 대사는 견성(見性)한 도인들조차 윤회를 벗어나기 어려운 수행현실을 지적하며, 자력(自力)과 더불어 불력(佛力)이 하나된 정토수행을 널리 권장하였다.

염불인은 신 · 원 · 행만 갖춰도 윤회 벗어나

인광 대사는 참선인이 인연에 따라 어느 순간 자성(自性)을 단박 깨달을 수 있지만, 시작도 없는 오랜 옛날부터 쌓여온 업습(業習)의 기운은 단박에 모두 사라질 수 없으며, 그 업습이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말끔히 제거하여야만 비로소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오조(五祖) 계(戒) 선사는 소동파(蘇東坡)로 태어나고, 초당(草堂) 청(淸) 선사는 노공(魯公)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예로 부터 확철대오 하고서도 완전히 증득하지 못한 대종사들이 수없이 많았다.” -인광대사 법어록

인광 대사는 이는 오직 자력에만 의지하고 부처님의 자비 가피를 구하지 않은 탓으로 보았다. 반면, 정토수행은 ‘아미타불과 정토에 대한 믿음(信)과 왕생 발원(願), 염불행(行)’의 3요소만 갖추면 업장을 짊어진 채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며, 한번 왕생하면 생사윤회를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이미 깨달아 증득한 사람은 곧장 부처의 후보 자리인 보처(補處) 보살에 오르게 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할지라도 불퇴전(不退轉)의 경지를 증득하여 다시는 육도윤회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단, 중생구제를 위한 원력소생은 제외)

정토수행 체계화 · 대중화에 기여한 ‘문자삼매’

청말 민국 초기에 중국이 극도로 혼란하고 불법이 극심하게 쇠퇴한 상황에서, 인광 대사는 얕고 낮은 가르침이라고 깔보던 염불법문을 이처럼 선(禪)과 쌍벽을 이루는 심오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덕으로 훗날 정토종(蓮宗) 제13대 조사로 추존된 대사는 평생 출가 제자는 한 명도 받지 않고, 재가 신도들에게 주로 서신으로 설법하였는데, 한결같이 믿음과 발원으로 염불하여 일단 윤회를 벗어나 극락왕생을 구하라고 권했다.

대사의 법문은 양계초(梁啓超)가 ‘문자삼매(文字三昧)’로 칭송할 정도로 말마다 진리를 드러내고 글자마다 종지(宗旨)로 귀결되었다. 선종과 정토의 오묘한 법문을 떨치면서 그 사이의 쉽고 어려움을 잘 가려내어, 실로 이전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곳을 훤히 파헤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용서거사 ‘정토문’ 보고 염불에 귀의

중화민국 29년(1862년)에 태어난 스님은 중국 섬서성 합양(陽) 사람이며, 속성은 조씨(趙氏), 이름은 성량(聖量), 자는 인광(印光), 별호는 상참괴승(常 愧僧: 항상 부끄러운 중)이다.

젊은 시절, 유학을 공부하면서 정주학(程朱學)을 좋아하여 불교를 배척하다가 눈이 실명되자, 곧 철저히 반성하며 불전을 공부하게 되었으며, 참회하고 기도하는 지극 정성으로 눈병이 치유되는 가피를 입었다.

21세에 종남산에 들어가 연화동사(蓮華洞寺)의 도순(道純) 장로에게 출가하여 사미계를 받고, 1882년 호북성의 죽계 연화사(竹溪蓮華寺)에 머물다가 오래지 않아 섬서성 흥안 쌍계사(興安 雙溪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용서거사(龍舒居士)가 지은 정토문(淨土文)을 보고는 생사를 해탈하여 속히 불도를 성취하려면 염불법 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알고부터 항상 염불을 했다. 26세에 정토도량인 홍라산 자복사(資福寺)에 들어가 정토수행을 하면서 경전을 보시고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6년 간의 용맹정진으로 염불삼매 증득

그 후 다시 법우사라는 절에 가 6년간 문을 닫고 불철주야 염불을 하여 마침내 염불삼매(念佛三昧)를 크게 증득하였다. 염불을 한결같이 지속하여 공부가 순수해지고 힘이 지극히 붙으면 결국 마음과 부처님의 명호가 서로 합치되어 일심불란(一心不亂)의 경지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염불삼매이다.

인광 대사는 그의 문집에서 염불삼매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원만 갖추었으면, 반드시 뜻과 마음을 다해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의 성호를 붙잡아 지켜야 하오. 길을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옷 입거나 똥오줌을 싸거나, 어느 때건 이 성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오. 그래서 반드시 온 마음이 부처이고 모든 부처가 곧 마음이 되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마음과 부처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全心是佛 全佛是心 心佛不二 心佛一如) 하오. 만약 염불이 지극해지고 감정이 잊혀지면, 마음이 텅 비면서 부처가 나타날 것이오. 그러면 현생에 염불삼매를 몸소 증득하고, 임종에 가서는 극락정토의 상상품(上上品)의 연화에 왕생하게 될 것이오. 이것이 염불수행의 지극한 경지라오.”

-인광 대사 가언록

이렇게 하여 생전에 염불삼매를 증득하면, 이 업보의 몸뚱이가 다할 때 곧바로 극락의 상품연화에 오르기를 발원해야 한다.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대사(大事)로 삼지만 정토종에서는 일단 윤회를 벗어나 서방정토에 왕생(往生)하는 것을 일대사로 삼는다. 깨달음을 얻고도 왕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90명이나 되지만, 왕생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만명 중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문서포교로 ‘상참괴승(常 愧僧)’ 별호 알려져

인광 대사는 염불삼매를 증득한 뒤 중생을 교화하리란 원(願)을 세우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토법문을 설해, 스님의 인연으로 염불하는 자가 무려 이십만 명도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사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12년 〈불학총보(佛學叢報)〉에 기고하면서부터다. 이때 ‘상참괴승(常 愧僧)’이라고 서명하였는데, 그 이름이 중국 전역에 널리 퍼졌다. 대사는 평생 정토를 널리 선양하면서 주지직을 맡지 않고 권속을 두지 않고 대좌(大座)에 오르지 않는 3대 원칙을 굳게 지켰다. 그러면서 명리에 담박하고 철저한 근검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진실한 수행만을 가르쳤다.

세수 70에도 오현 보은사(吳縣 報恩寺)에서 문을 닫고 정진하다가 그 후에 비로소 대중법문을 펼쳤다. 아울러 보타 · 청량 · 아미 · 구화산 4대 명산지(名山誌)를 편찬하고, 오현에 영암산사(靈岩山寺)를 건립하여 진달(眞達) 화상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맡게 하니, 그로부터 정토종의 제1 도량이 되었다.

왕생 후 사리 1000여 과 나와 신심 일으켜

대사는 1940년 11월 4일, 세수 80에 묘진(妙眞) 스님에게 영암산사 주지직을 맡기며 정토법문의 선양을 당부한 후, 물을 가져오라 하여 세수하고는 앉아서 염불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문득 일어나며, “아미타부처님께서 왕림하셨다”며 대중에게 염불하라 이르고,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합장 · 염불하며 왕생극락했다. 다비한 후에는 무려 1000여 과(顆)에 달하는 오색 사리의 꽃과 구슬이 나와 염불에 대한 신심을 더욱 크게 자아냈다.

대사는 일생 동안 청정한 계행과 염불과 선(禪)을 아우르는 고준한 법문을 했다. 이에 감화를 받은 이가 많아서, 민국 이래로 정토종의 제1 존숙(尊宿)으로 추앙됐다. 인광 대사의 문초(文)와 전집(全集)이 세상에 널리 전해져 중화권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역서가 출간된 상태다.

수십년 이상 선방에서 화두를 들었건만, 한 발짝도 진보가 없는 이들은 필히 인광 대사의 법문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오탁악세의 시대흐름에 법등은 날로 희미해지고 선지식을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 수행자가 왜 성도문(聖道門: 자력수행)이 아닌 이행문(易行門: 불력수행)을 선택해야 하는지, 인광 대사는 수많은 편지설법을 통해 오늘도 후학들을 일깨우고 있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3.8~2017.3.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중생의 삶과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위대한 스승 청화 큰 스님

유철주 지음 | 상상출판 펴냄 | 1만 6천원



우리시대 큰 선지식(善知識)으로 존경받는 청화 큰 스님이 출재가 제자 20명의 회고담으로 다시 우리곁에 왔다. 불교계 기자 출신의 인터뷰 전문 작가인 유철주 선 전문지 〈고경〉 편집장이 〈위대한 스승 청화 큰스님〉을 펴냈다.

이번 책에서는 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과 같은 직계 상좌는 물론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 스님 등 불교계 리더들의 말을 통해 생전 청화 큰스님과의 일화를 정리했다. 또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해숙 선생님과 사촌동생이자 화가인 강행원 화백 등 6명의 재가 제자 인터뷰도 함께 실었다.

청화 큰스님<오른쪽 사진>은 '우리시대의 마지막 선지식, 도인'으로 추앙받는 어른이다. 청화사상연구회 박선자 회장은 "예전에 제방서 '진짜 중을 보고 싶으면 전라도 곡성 태안사에 가서 청화 스님을 찾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평생 수행에만 매진한 청정한 선지식 이다.

큰스님은 1947년 백양사 운문암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평생 동안 방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와 하루 한 끼만을 먹는 일종식(一種食), 수십 년간 이어진 깊은 산중서의 토굴 정진으로 일관한 청화 큰스님은 지혜와 자비로 수많은 대중들을 제접했다.

벽산문도회 문장 용타 스님은 청화 스님을 이렇게 소개했다. "큰스님은 하루 한 끼의 공양(一種食)과 청빈,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일생을 두고 실천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혹독하리만큼 철저한 큰스님은 사상적으로는 원효 성사에 닿아 있습니다. 큰스님의 사상은 원효 성사의 화쟁 사상과 맥을 같이한 통불교(統佛敎)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법은 대해'라는 말의 온전한 실현입니다"고 회고했다.

〈위대한 스승 청화 큰스님〉서는 이런 청화 큰스님의 생전의 삶과 가르침을 온전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2005년 소설 〈청화 큰스님〉을 읽고 큰스님을 알게 됐다. 그 후 자연스럽게 청화 큰스님의 법어집을 탐독 했고 이제야 큰스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 책을 통해서 큰스님의 지혜와 자비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책에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청화 큰스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칭송했다. 또한 "살아 있는 부처님을 모셨다"고도 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부처님과 청화 큰스님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한다.



출재가 제자 20명 회고로 청화 스님 조명
장자불와, 일종식, 청빈 등 일생동안 실천
"실제로 부처님 만났다" 후학들 한 목소리

"제가 부처님한테 닮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버림' '위대한 정진' '위대한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위를 버리고 온갖 악조건 속에서 정진 한 뒤 도를 깨달아서 중생들을 위해 살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화 큰스님께 부처님의 이 위대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부처님과 거의 같아요."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청화 큰스님을 '불교 덕후'라고 했다. "제가 볼 때 노스님은 요즘 흔히 말하는 '덕후'입니다. 어떤 분야에 몰두해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덕후'에 있잖아요. 노스님은 다른 덕후가 아니라 '부처님 덕후' '불교 덕후' '수행 덕후'입니다. 부처님과 불교를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요즘 스님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직업적으로 부처님을 좋아한다면, 청화 노스님은 그냥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은사스님이 노스님의 이런 면을 많이 닮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노스님과 은사스님의 '덕후적 본능'을 닮고 싶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부처님을 존경해서 부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청화의 아난'으로 불린 김영동 조선대 명예교수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같은 스승이 바로 청화 큰스님이라고 존경을 표했다.

"큰스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난 뒤 인간이 구축해 놓은 모든 문화형태 특히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정신문화를 다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철저한 체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큰스님께서 거의 20년 이상을 홀로 수행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큰스님께서 수행처를 자주 옮긴 것은 당신의 당호 무주(無住)처럼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시면 집착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피하면서까지 처절히 수행하신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언설로 표현이 불가한 수행을 하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진리 외에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을 닮으려고 노력하는데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청화 큰스님 일대기를 다룬 소설 〈청화 큰스님〉을 쓴 소설가 남지심 선생님은 청화 큰스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맨 처음 들었고 또 '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어요. '도인'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 큰스님을 친견했을 때 정말 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을 체험했습니다"라고.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시인이 이세상 소풍 떠날때 남긴 선물은?… 평화, 안정, 안심

노을빛이 물든 강물

서성림 유고시집 | 천년의 시작 펴냄 | 9천원



가족 뒷바라지에 늘 종종 걸음인 일상부터, 손주들 대할 때면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표정 등은 우리 평범한 어머니들의 모습이다. 이 시집을 쓴 서성림 시인도 그랬다. 여기에 서 시인은 하나 더 있었다. 내면 깊이 간직한 소녀다운 순수함. 이런 감성들을 서 시인은 씨줄과 날줄로 꿰어 시(詩)라는 옷을 지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없다. 지난해 지병으로 작고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고운 말들이 시어로 온전히 남아 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서 시인의 시를 진지하게 읽어보지 못한 모양이다. 장녀인 정주은씨는 이번 시집의 머리말에서 유가족을 대표해 이렇게 고백한다. "그동안 번잡한 일상에 치여 마주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시들을 이제 당신 떠나신 세상에 덩그러니 앉아 읽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마주할 수 없지만, 시를 통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미처 몰랐던 당신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남겨주신 이 시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지칠 때 꺼내 읽고 다시 힘을 내게 하는 크나큰 위로이자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청계산 기슭 남보다 먼저 피어나/고요한 천지에 함박웃음으로/꽃잎 펼치고/까만 꽃술 자랑하며/하늘하늘 행인을 유혹한다/'나 예쁘지 않아요? 쉬었다 가세요-'/간드러진 콧소리에/발길 멈추어/들여다보고 만져보고/철없이 아름답던/먼 추억 그리며/마냥 서서 바라본다."

– 〈진달래〉中에서

지난해에 작고한 서성림 시인의 유고시집 〈노을빛이 물든 강물〉이 출간됐다. 이 시집은 우리들에게 평화, 안정과 그리고 안심을 일러준다. 아무 곳이나 펼치고 가만히 숨을 고르며 읽어보면 시가 어려워야 한다는 것도 꾸미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며, 시가 거창하게 인류와 사회에다 대고 외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집의 해설을 한 김용택 시인은 서 시인의 시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한다. "서 시인의 시를 읽고 나면 우리들의 어지러운 삶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으라는 말을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해놓는다"고. 해설을 듣고 보니 이 시가 그렇다.

"또닥또닥 잠을 깨운다/무슨일이 있으려나/비 때문에 잘못 없으려나/출근길 막혀/지각 사태 나면 어쩌지/아침 까치 깍깍 울어대더니/그래도 좋은일이 있겠지"

– 〈새벽 빗소리〉中에서

김용택 시인은 "그렇다고 이 시집의 시들이 삶의 안정과 평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번뜩이는 통찰위에 번뜩이는 시적 표현을 해내기도 한다"며 "떨어지는 꽃잎은/떨어져 누운 꽃잎보다 아름답다"라는 삶의 역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분석한다. 즉 안정된 삶의 바탕위에서 바라보는 삶의 찬란을 시인은 놓치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또한 살아 생동하는 삶의 진실 앞에서 시인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삶의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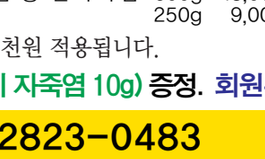
그의 시에서 겨울 잔디밭에 떨어진 잔잔한 햇살을 보았고, 바람 부는 강변의 억새들을 보았다. 잔물결을 보았고, 텅 빈 산을 보았다. 삶이 어찌 애잔하지 않겠는가. 삶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삶이 어찌 그립고, 또 그립지 않겠는가. 이 시집은 한 사람의 생이다. 그 생을 한군데 이렇게 잔잔하게 모았다. 이 또한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면 삶과 죽음이 따로가 아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 있는가. 우리는 한 사람의 삶 앞에 기쁘고 슬프고 또 아름다운 인연을 간직하게 된다.

참 다행이다. 그는 갔지만 그의 영롱하고 위안이 되는 시어와 시심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어서 말이다. 물론 시를 읽으면 읽을 수록 더욱 더 그가 그리울 수 있겠지만, 그는 우리들에게 시를 통해 영원히 살아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떠났다. 시가 바로 서성림이고, 서 시인이 바로 시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서성림**은?
1951년 서울서 출생한 서성림 시인은, 1975년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2000년 〈교단문학〉으로 등단했다. 前 한국문인협회 회원, 前 학여울문학회 회원, 前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 前 이대문인협회 회원을 역임했고, 2016년 작고했다. 시집으로는 〈초여름의 향기〉 〈무지갯빛 바람소리〉가 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진액 하수오추출액 10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조일죽 작가의 한국서 첫 개인전 '부처님과 함께 여행하다–삶은 곧 걷는 것' 개막식에 앞서 3월 9일 불일미술관에서 조 작가를 만났다.

불보살 가피로 맺은 인연, 화폭에…

불일미술관, 대만 출신 조일죽 작가 개인전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불보살님이 이끌어주셔서 만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삶 자체가 부처님과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한국 등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펼친 대만 출신의 조일죽 작가가 한국서 첫 개인전을 연다. 3월 19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 1관서 열리는 이번 전시 '부처님과 함께 여행하다-삶은 곧 걷는 것'에서 조 작가는 일본 시고쿠헨로 순례길을 걸으며 작업한 작품 15점, 한국서 만난 길상사 및 법련사 청년회 법우들 초상화 34점, 대만서 활동한 화집 등을 소개한다.

작품들엔 조 작가의 수행 여정,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아름답고도 귀한 인연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때론 목탄을, 때론 잉크를, 여의치 않으면 볼펜을 잡고 앉아 그려내지만 인물 또는 풍경을 표현해내는 조 작가의 섬세한 화풍은 변함이 없다.

조 작가가 여행하며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인도여행 때부터다. 두 번째 날 카메라가 망가져서 스케치로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무수한 감정들을 담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고.

특히 2014년 일본에 한 달 간 머물며 시고쿠헨로를 걸었던 일은 조 작가의 작품 활동은 물론, 삶 전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시고쿠헨로(四國遍路)는 당나라 때 유명한 승려였던 공해대사가 수행했던 길로, 해안선을 따라 시고쿠지역을 1바퀴 돌며 88개 사원에 참배하는 순례길이다.

"몸은 걷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 망상들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고, 자연스레 작품에도 반영됐습니다. 순례 초창기 그린 작품은 많은 것을 담으려는 욕심 탓에 더 구체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거둬내고 마음 속 평온함을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시고쿠헨로 순례 중 20번째 사찰 학림사서 그린 작품. '학림사로 가는 길에서 보살을 만나다'

3월 19일까지 한국서 첫 개인전
대만–일본–한국서 만난 불법 인연
초상 · 풍경화로 표현해 50여점 전시
길상사 · 법련사 청년회 법우 '큰 도움'

일본에서 그린 작품 중에서도 조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20번째 사찰 방문 당시 그린 '학림사로 가는 길에서 보살을 만나다'다. 그 작품을 그릴 때 마음이 가장 편안했기 때문이다. 절로 이르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려 바위에 걸터앉았는데, 눈앞에 보살상을 보니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순간 조 작가는 '언제나 보살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느꼈다고 한다.

부처님과 조 작가의 여행은 일본에서 그치지 않았다. 고국으로 돌아간 후 1년 간 한국어를 공부한 조 작가는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조 작가를 기쁘게 한 일은 길상사 청년회와 법련사 청년회 법우들을 만난 것이다.

"대만과 달리 한국 청년 불자들 간엔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대만은 청년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국보다 다채롭긴 하지만, 도반들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길상사와 법련사 법우들을 만난 것이 제겐 더없는 행복이었죠. 대화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불제자'란 사실만으로도 동질감이 들었어요."

이번 전시도 법우들의 도움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한국어가 서툰 조 작가를 위해 법우들이 전시 준비 동안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이에 조 작가는 길상사와 법련사 법우들의 초상화도 함께 그려 전시하고, 전시회가 끝난 후엔 초상화 작품들을 전부 법우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불일미술관 학예실장 구담 스님은 "작가는 불교를 믿음으로 한국 · 대만 · 일본 3개국에서 불교 법우들과 인연으로 창작열을 불태우고, 그림을 통한 인간미까지 전하고 있다. 길상사와 법련사 청년회 도반들이 응원하고 축하하는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청년 조일죽 작가에게 영원히 아로새길 귀한 법연이 아닐까 싶다"고 소개했다.

한편 조일죽 작가는 2010년 타이베이예술대학 미대를 졸업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대만 타이중과 가오슝에서 개인전 '착한 소원'을, 2016년 대만 타이난에서 개인전 '무심' 등을 연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국립박물관서 문화체험으로 유익하게!

공주 · 부여박물관, 어린이 또는 가족 주말 프로그램 개설

전국 국립박물관서 주말마다 진행하는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어린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제8기 어린이공주박물관학교'를 개설한다.

'문화재로 만나는 옛 조상들의 생활'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교과서 속 문화재 연계 강의 · 체험 · 답사 등을 실시한다. 4월 1일~11월 11일 격주 토요일마다 총 16회 운영된다.

세부일정은 △4월 29일 도구의 발달-청동거울 만들기 △5월 13일 먹거리의 생산-농사도구의 발달 △6월 10일 우리 그릇-빗살무늬토기 빗기 △7월 15일 조상들의 과학발명품-나도 발명가 △9월 2일 불교문화재 이야기-석탑 쌓기 등이다.

접수는 박물관 홈페이지(gongju.museum.go.kr)서 접수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amj93@ korea.kr) 또는 팩스(041-850-6360)로 3월 13~27일 송부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이며, 공주어린이박물관학교 기 참가자는 제외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041)850-6365

국립부여박물관은 주말 가족 프로그램 '토요일은 박물관이 좋아!'도 운영한다. 이는 초등학생 동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11월 4일까지 매달 첫째 · 셋째 · 다섯째 주 토요일 △백제 금동대향로 강의 및 입체 향로 만들기 '신비로운 향로 속 세상' △정림사 5층 석탑 강의와 장신구 만들기 '오층석탑, 색을 입다' △백제8무늬 벽돌에 대한 강의와 탑본 부채 만들기 '부채에 담긴 백제무늬' 총 4개 주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일정은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나, 매회 선착순 25가족만 가능하다. (041)830-8439

박아름 기자

신라 왕경 경주서 만나는 백제 문화

국립경주박물관서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

신라 왕경이었던 경주서 백제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첫 전시가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서는 정림사 출토 소조불 및 대당평제비탁본, 미륵사지 서석탑 출토 사리병 및 사리봉 영기 등 백제 불교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불교유물도 다수 소개돼 눈길을 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과 백제세계유산센터(이사장 남궁영)는 3월 7일~5일 7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공주와 부여, 익산 3지구를 중심으로 8개 세부 지구로 다시 나누어 도시 특성과 경관에 맞춰 유물들을 조명한다. 특히 신라 왕경서 열리는 첫 백제 관련 전시인 만큼 신라 문물과의 비교적 시점도 관람객들에게 이채로운 재미


미륵사지 출토 금제사리내호와 금동제사리외호.

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여 출토 대형 치미와 광배 등 약 800점 유물이 전시된다. 또한 공주 · 부여 · 익산 지역의 8개 유적을 드론으로 촬영한 대형 영상을 비롯해 백제금동대향로, 서동요 등 5개 영상이 함께 공개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054)740-7535

박아름 기자

월정사성보박물관, 민화강습 개강

월정사성보박물관이 2017 문화대학 민화연구반 강의를 시작한다. 민화연구반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민화강습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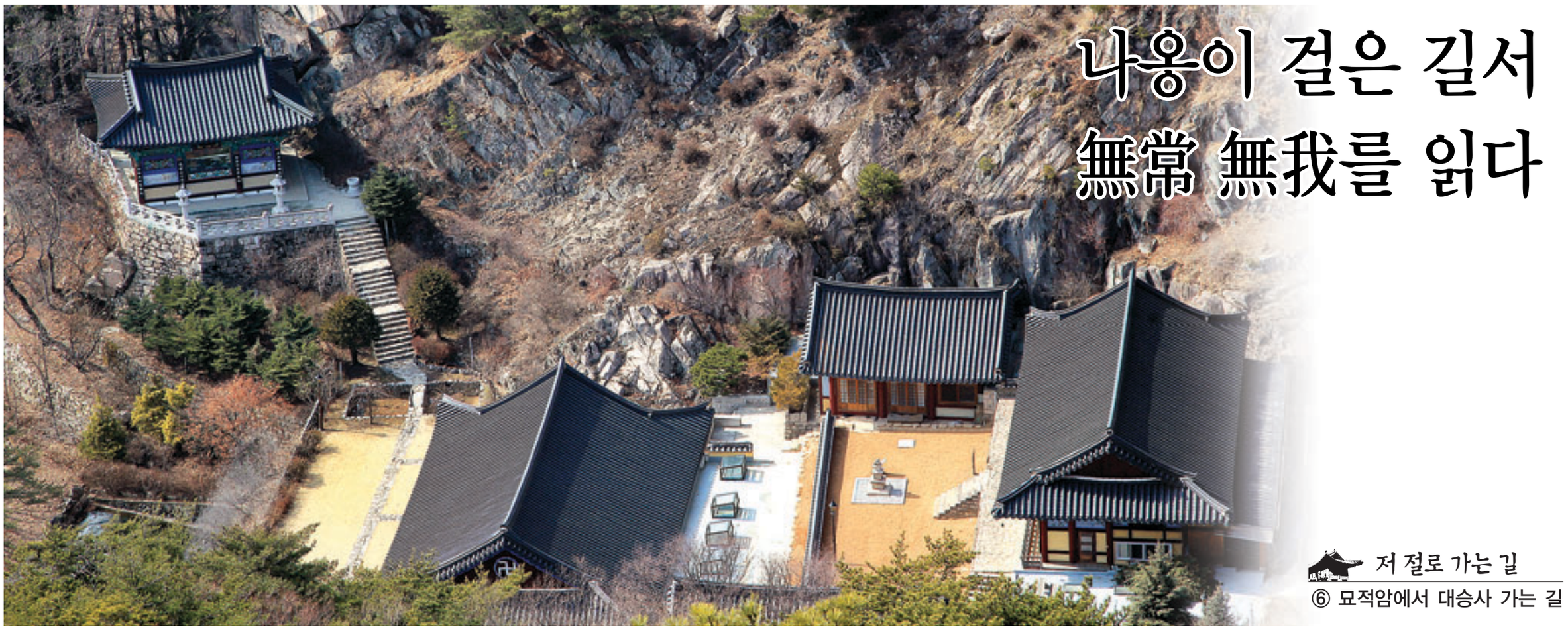
상반기(3~6월)와 하반기(9~11월)에 걸쳐 매주 일요일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이 그린 작품들을 모아 8월 오대산문화축전 동안 전시회도 연다.

3월 12일 오후 1시 월정사성보박물관 교육실서 개강하며, 상시 모집한다. (033)339-7000

박아름 기자



나옹이 걸은 길서 無常 無我를 읽다



저 절로 가는 길
⑥ 묘적암에서 대승사 가는 길

사불암에서 내려다 본 윤필암 전경. 윤필암에는 사불전이라는 전각이 있어 일대가 사불암과 연관된 영역임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 지역 산의 이름도 동서남북 각각 부처가 있다는 사불산이다.



진평왕 때 하늘서 내려왔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사불암.



사불암에서 올려다 본 윤필암 사불전.



진평왕이 세운 대승사.

- 걷는길 : 묘적암 – 윤필암 – 사면불 – 대승봉 – 옛고개 안부 – 대승사
- 거리와 시간 : 7km 정도, 3시간 예상

1341년, 한 청년이 출가한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부처도 생로병사의 의문을 풀기 위해 출가했다. '혜근'이라는 이름을 얻어 고려 땅에 태어난 청년도 그런 이유로 출가했다.

혜근은 머리를 깎기로 작정했다. 스님이 되어 본격적으로 죽음을 탐구하러 떠날 요량이었다. 혜근은 고향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를 떠났다.

언덕길 끝, 대승사 초입에 도착한 나는 스마트폰을 열었다. 그리고는 위성지도를 펼쳐 혜근이 21살 때 스님이 되려고 찾아간 사불산 묘적암(妙寂庵)을 내려다 보았다. 묘적암은 대승사 가는 길과 Y자로 갈라진 길에 있었다. 묘적암으로 가는 길에 윤필암이 있었다. 윤필암까지는 대형버스도 다닐 만큼 길이 넓었지만, 묘적암 가는 길은 그 절반으로 폭이 줄었다.

묘적암 앞에 이르자 '초하루나 보름 외에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쓴 팻말이 보였다. 그 앞에서 나는, 내가 외부인사인지 내부인사인지 잠시 생각에 잠겨야 했다. 나옹 선사는 죽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묘적암을 찾았다.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영덕에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묘적암에 이르는 먼 길을 걸은 나옹 선사는 그때까지 외부인사였을까? 묘적암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부인사가 된 것일까? 그렇다면 그가 궁금하게 여긴 죽음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세계였을까?

나는 반쯤 열린 문을 밀고 내부로 들어갔다. 죽음이 내부에 연결돼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마당에 내려앉은 새하얀 햇빛이 외려 어둡고 축축했다. 암자에 아무도 없는지 이방인의 등장에도 기척이 없었다. 일묵여뢰(一默如雷. 침묵은 우뢰와 같다)란 현판 하나가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여기 온 것이 무슨 물건인고?"

방문이 돌연 열리면서 어두운 안채에서 누가 물었다.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만,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군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었다. 내가 짐짓 나옹 선사를 흉내 낸 것이었다. 어두운 방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700여 년 전의 요연 선사(了然禪師)였다.

암자 주인이 외출했다는 표시인지 묘적암 현판 아래 방문 고리에 밀짚모자가 걸려 있었다. 등을 돌려 공덕산, 혹은 사불산이라고도 부르는 앞산을 올려다보자 한눈에 사불암(四佛岩)이 들어왔다. 신라 진평왕 때, 하늘에서 붉은 비단에 싸여

하늘서 떨어진 바위 '사불암'
인근 사찰 건립의 기원돼
나옹 선사 발자취 따라 탐방

내려왔다는 커다란 바위덩어리. 바위는 네모졌는데, 그 한 면마다 불상이 돋음새김으로 새겨졌다. 나옹과 요연선사는 앞마당에서 사불암을 올려다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묘적암을 나온 우리 발걸음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녔다. 우리의 목적지는 사불암이었다. 그곳에서 시산제를 지내기로 하고 묘적암에 잠시 들른 것이었다. 시산제 제물이 든 배낭이 가볍게 느껴졌다. 아직 2월인데도 불어오는 바람에 봄기운이 푸릇하게 묻어왔다.

다시 윤필암으로 되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마애석불여래좌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빙긋 웃었다. 고려 때 마애불로 보이는데 보존 상태가 좋았다. 서산 마애삼존불처럼 불상을 새긴 바위가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데다 얼굴 위에 갓바위가 달려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머리 양쪽에 연꽃이 도깨비 뿔처럼 돋아났는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형상이었다.

윤필암은 의상 스님의 이복동생인 윤필이 머물렀대서 지은 이름이다. 윤필암에도 사불전이란 전각이 있어 사불암을 올려다보게 했다. 일대가 사불암과 연관된 영역임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셈이었다. 우리가 시산제를 지내러 이곳까지 내려온 까닭도 사불암에 깃든 신비와 영험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사불암을 거쳐 쌍연봉과 대승봉을 지나 옛고개 안부에서 대승사로 내려오는 것으로 순례 일정을 짰으나, 아무래도 그 중심은 사불암이었다.

윤필암에서 대승사로 건너가는 경계에 사불암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었다. 아래서 올려다볼 땐 제법 멀었는데, 거기서 불과 30분 만에 사불암에 도착했다.

흔들바위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바위였다. 그 옆에, 바위를 뚫고 구불구불 자라난 몇 그루 소나무가 있어, 얼핏 도가적 풍경처럼 보이기도 했다. 자세히 보니 사각형도 아니고 둥글지도 않은, 다소 뭉툭한 기둥처럼 생긴 바위가 더 큰 바위 위에 올라앉은 형상이었다. 도반들이 가까이 다가가면서 찬탄을 쏟아냈지만, 한 달 전 답사에서 이미 사면바위를 친견한 나는 그 뒷전에서 다소 여유롭게 서 있었다. 도반들이 이내 돗자리를 깔고 떡시루와 삼색나물, 과일을 내려놓았다. 시산제 상차림으로 부산스러운데 제주(祭主)인 나는 막상 사불암 생각에만 한눈을 팔았다.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따르면 붉은 비단에 싸여 하늘에서 떨어진 바위라고 했다. 신라 진평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바위에 새겨진 사방여래불을 관찰했다. 왕은 곧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아 바위 곁에 절을 세우도록 하명하고 절 이름을 대승사라고 지었다. 왕은 또한 〈법화경〉을 외는 망명비구(亡名比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비구)를 불러다 사면석불에 조석으로 공양을 올리고 향화가 끊이지 않도록 했다. 나중에 그 스님이 죽어 장사를 지냈더니 무덤 위에 홀연히 연꽃이 피었다.

어디까지나 하늘에서 내려온 바위다. 바위에 새긴 불상도 하늘에 사는 누군가가 조각한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석공이 우연히 발견한 흔들바위에 불상을 새겨 넣었으리라 추측하면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학자들은 추측한다. 모두 불상으로 동쪽과 서쪽은 좌상, 남쪽과 북쪽은 입상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또 추측한다. 서쪽에 아마타불, 동쪽에 약사여래불, 남쪽에 석가모니불, 북쪽에 미륵불인 사면불(四面佛)일 거라고.

그러나 내 눈엔 약사여래좌상이라는 동쪽 불상만 어렴풋할 뿐, 나머진 형체를 쉬이 알아보기 어려웠다. 새 같기도 하고, 거북이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무엇이라도 찾아내려고 바위를 계속해서 눈으로 더듬는데 어디선가 요연 선사와 나옹선사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여기 온 것이 무슨 물건인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만,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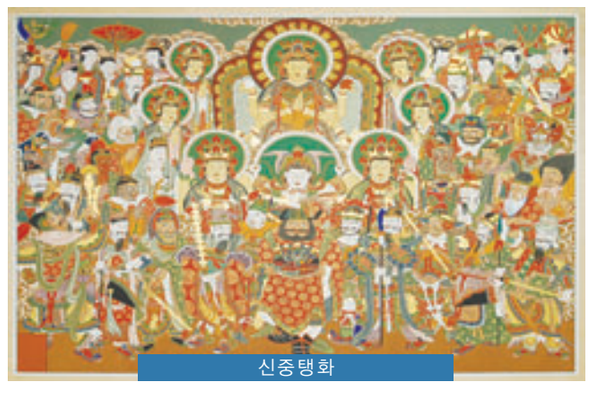
바로 그때 아! 묘적암 스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진리의 바다를 보려면 무상과 무아를 알아야 한다. 무아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처님만의 설법이다. 흔적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 고정된 실체가 없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바로 그것! 그 순간, 내 앞에 서 있는 사불암이 거대한 모래기둥으로 변해 오뉴월 땡볕 아래 바스라지고 있었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새들은 날고, 어디선가 꽃은 피고…

릴케는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 느껴야 하며, 작은 꽃들이 아침에 피어날 때 어떤 몸짓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열 줄의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랬던 것이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 역시 간단할 리 없다. 아침 안개 속으로 새들이 날고 있다. 그리고 어디선가 꽃이 피기 시작했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⑥ 지옥탐험, 지옥 동물 관찰

지옥, 죄인 스스로 만들어낸 業報

방학 한 달 동안 지옥 탐험을 한 이춘원 교수와 김법수 학생은 지옥 곤충만 조사했을까요? 아니죠. 지옥 동물을 모두 조사해 온 걸요. 지옥 동물 모두를 찰칵 찰칵, 카메라에 담아왔지요.

"지옥 탐험을 나선 걸음에 모든 지옥 동물을 조사하세."

교수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도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지옥 곤충만 관찰하러 간 것이었지만, 지옥 동물 모두를 조사하고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지옥은 지하의 깊이 2만 리에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가각 2만리의 크기입니다.

여기에 대초열지옥이 있고, 초열지옥이 있습니다. 흑승지옥이 있고, 등활지옥이 있습니다. 규환지옥이 있고, 아비지옥이 있습니다. 어느 지옥이나 뜨거운 불줄기가 타오르고, 지옥 죄인의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기 저렇게 넓은 강이 흐르네. 요철구강(饒鐵鉤江)이로군?"

지옥에는 지옥마다 여러 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옥의 강에는 모두 끓는 물이 흐릅니다. 쇠를 녹인 뜨거운 쇳물이 벌겋게 흐르거나, 구리를 녹인 뜨거운 물이 누렇게 흐릅니다. 밀랍을 녹인 뜨거운 강물이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요철구강은 끓는 쇳물 속에 쇠갈고리가 뒤엉켜 흐르는 용광로입니다. 수많은 지옥 죄인이 이 뜨거운 강물에 던져지면. 죄인이 머리 위에 쇠갈고리가 사정없이 죄인을 덮칩니다. 그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아우성이 넘칩니다.

"아이고 아파! 뜨거워 뜨거워!"

아우성이 넘치는 지옥에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불꽃 부리로 불을 토하는 지옥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끓는 강물 위를 날아다니며 신음하는 죄인을 불꽃 부리로 쪼아댑니다. 쫓기는 죄인을 따라가며 불꽃을 토합니다. 못 견딜 고통입니다.

불꽃 독수리를 겨우겨우 피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불여우가 내달아 죄인을 물어뜯습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이고!"

독수리와 여우는 소리치는 죄인을 향해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마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입니다. 그래도 지옥 탐험대 두 사람은 찰칵 찰칵,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지옥으로 옮겨 갔습니다. 금강 부리를 가진 까마귀입니다. 이 지옥 까마귀는 부리뿐만 아니라 발톱까지 금강 발톱입니다. 그 발톱으로 죄인을 할퀴고, 그 부리로 죄인의 전신을 쪼아댑니다.

다음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지옥의 사자 무리와 지옥 호랑이들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죄인이 기절을 하면, 사자와 호랑이는 죄인을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그림 · 강병호

쇠로 된 몸뚱이를 가진 곰이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쇠곰이 죄인을 발로 할퀴고 무거운 몸뚱이로 짓누릅니다.

"아이고, 몸이 터지네. 아이고!"

죄인들은 쇠 몸뚱이 곰에게 짓눌리며 아우성입니다. 불을 토하는 뱀이 죄인의 몸뚱이를 감아서 죄고 있습니다.

"목이 죄이네. 숨이 막혀! 몸이 죄이네. 부서지네. 아이쿠!"

대단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옥 탐험대 두 사람은 쉼없이 지옥 동물의 행동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강물 속에서 물고기의 괴롭힘을 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뜨거운 쇳물 속을 헤엄치던 커다란 물고기가 죄인을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죄인은 물고기에게 먹히고 맙니다.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곳은 매우 안락한 곳이구나"하고 지옥 죄인이 찾아든 곳은 악룡의 아가리였습니다. 용은 머리가 1천 개요, 불을 뿜는 아가리가 1천 개입니다. 눈에서도 불꽃이 뻗고 있습니다. 악룡의 1천 개 아가리마다 죄인이 가득합니다. 죄인은 죄업이 다할 때까지 악룡의 입속에서 타는 불을 견뎌야 합니다.

지옥의 마지막이 아비지옥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옥입니다. 지옥 중에서도 고통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아비지옥의 불은 먼저 죄인의 머리를 태우고, 다음에는 몸을 태웁니다. 산과 바다가 타는 불로 어우러진 세계가 아비지옥입니다.

아비지옥 속에는 지옥새만 모여 사는 악조처(惡鳥處)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 사람 지옥 탐험대는 마지막으로 악조처 탐험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지옥새가 죄인에게 달려들어 죄인의 전신을 쪼아댑니다.

수많은 지옥 새는, 죄인을 쪼아서 삼키는 부분이 다릅니다. 지옥새 식촉루(食　　)는 죄인의 머리를 쪼아서 그 해골을 삼킵니다. 지옥새 집인후(執咽喉)는 죄인의 목을 쪼아서 삼킵니다. 지옥 새 식생장(食生臟)은 죄인의 심장을 쪼아서 삼킵니다.

"끔찍하다!"

지옥탐험을 마치고, 악조처를 나오며 교수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런 참혹한 지옥을 없애야겠습니다."

학생이 교수에게 여쭈었습니다.

"지옥은 죄인 스스로가 만드는 걸세. 만드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짓는 사람이 없어야 지옥이 없어지겠네요?"

스승과 제자는, 죄인이 없이 텅텅 비어버린 지옥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요?

출처:〈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 지옥품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 × 145㎝ 가정용 45 × 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16나한도



달마도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